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 장기계획 비교연구

연구자: 이 용 교

목 차

I. 서 론	5
1. 연구목적	5
2. 연구범위	6
3. 연구방법	7
II. 본 연구의 분석틀	8
III. 수립과정	11
1. 한국의 기본계획	11
2.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12
IV. 수립참여자	14
1. 한국의 기본계획	14
2.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15
V. 주요내용	17
1. 한국의 기본계획	17
2. 일본의 21세기방안	21
3. 일본의 종합대책	25
VI. 한·일 청소년계획의 비교	28
1. 수립과정	28
2. 수립참여자	28
3. 주요내용	29
VII. 결 론	31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목적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어느 사회 어느 시기에서나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1960년대 초부터 증가되기 시작되었다. 미성년자 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었던 1960년대의 청소년문제는 비행청소년을 예방하거나 보호/선도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보호할 능력이 없는 요보호아동을 사회가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관심을 가졌다.

지난 30여년동안의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를 크게 변화시켰다. 따라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인 청소년정책도 일부 비행청소년과 요보호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선도대책에서 전체 청소년에 대한 육성정책으로 변화될 수 밖에 없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에는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1987년),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행정부서가 설치되었다(1988년). 이 시기에서부터 청소년정책은 독립적인 성격을 가진 정책으로 정립된 후에 현재(1992년)까지 한국 청소년정책은 두차례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청소년문제개선종합대책’(1984년)에서 시작되어 ‘청소년육성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체육부 청소년국이 설립되면서 청소년정책이 시행되는 시기이다. 다른 하나는 체육청소년부에 청소년정책조정실이 설치되고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 세워지며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는 시기이다.

그런데, 한국 청소년정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다른 사회정책에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특정 인구층(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정책, 여성정책, 노인정책 등에 비교할 때 학문적 접근이 빈약하고, 또한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고 청소년정책에 대한 문헌은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선행연구 조차 한국 청소년정책의 실태와 개선에 초점을 맞춘 응용적인 연구가 대부

분이다.

따라서 한국 청소년정책이 어떻게 형성되고 집행되었는 지, 한국 청소년정책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한국 청소년정책이 여전히 변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정책의 개발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기초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1980년대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이를 일본의 청소년정책과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비교의 대상으로 일본을 택한 이유는 일본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고, 역사적으로 한국의 청소년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청소년정책의 국제화와 지방화에서 한국보다 앞서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고, 두 나라 청소년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이 연구는 1980년대후반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 청소년장기계획의 형성과정을 비교연구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1991년)과 일본의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이하 ‘21세기방안’이라 한다, 1986년) 및 ‘종합적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 하여’(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 1989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와 같은 시기로 정한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 시기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격변기이기에 비슷한 기간동안의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청소년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의 기본계획은 2000년을 향한 10개년계획이고,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도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장기계획을 제언한 것이기 때문에 세 가지 계획의 수립과정, 주요내용 등을 비교연구하여 두 나라 청소년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가장 가까운 과거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이 연구는 한국의 기본계획과 일본의 21세기방안 및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방법을 통한 비교연구를 하고자 한다. 사회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는 사례연구방법을 사용하였고, 다른 연구방법보다도 상대적으로 중요한 장점을 가진 것으로 이미 인정되고 있다.

Hall(1975: 13-17; 현외성, 1994: 22-23 재인용)은 사례연구방법이 정책형성과정 연구에 특히 유용한 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이 방법은 정책이 개발·변모되어가는 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하여 준다. ② 이것은 정책이 개발·변모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서술에서 시작하여 일반화의 수준에까지 높일 수 있는 귀중한 수단이 된다. ③ 동태적 접근을 사용함으로써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한 행위자의 의도를 잘 설명하여 준다. 특히 사례연구방법은 역사적 사건 보다는 비교적 당대의 사건을 연구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청소년정책에 관한 문헌연구와 전문가 면접조사에서 자료를 찾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는 관계 문헌에 대한 연구와 정책형성에 참여한 주요 참여자에 대한 면접조사로 일차적 자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접조사는 한국 쪽 인사를 면접하는데 그쳤다.

II. 본 연구의 분석틀

한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왜, 그리고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밝힌 선행연구는 별로 없다. 그런데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청소년정책’이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족, 시장 그리고 국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정치적인 용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Frost and Stein, 1989: 1-9).

왜 청소년정책이 형성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인을 인식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이 요청되는 일차적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이슈’로서 청소년문제이다. 청소년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청소년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청소년문제’를 ‘청소년비행’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청소년문제를 비행에 국한시키는 것은 청소년문제가 성인 또는 지배층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도종수, 1992: 4).

청소년정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시각은 청소년정책의 요인을 가족과 사회의 변동에서 찾고 있다. 최근 경제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서 처한 여건이 많이 나아졌지만, 그러한 가족과 사회의 변동 자체가 청소년문제를 야기한다고 본다.

최근의 청소년정책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표되는 현대산업사회 자체에서 청소년정책의 필요성을 찾고 있다. 산업화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고,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황폐화시킨다. 이러한 변화의 일차적인 피해자는 성인남성보다는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청소년 등이 된다. 도시화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전통사회가 간직한 지역공동체의 일차적 사회 혹은 공동사회를 해체시킨다.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공간이 상업화되면서, 이윤추구를 일차적인 목적으로 하는 유해환경이 만연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유해환경의 통제에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정보화, 국제화, 고령화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 청소년들이 효과적으

로 적응할 수 있기 위해서도 청소년정책이 요청된다(總務廳靑少年對策本部, 1989: 55-67).

정책형성은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산출된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국민들은 누구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며, 민주적 정치체제에서는 그것이 또한 당연한 것이다(정정길, 1990: 138-139).

그러나 간접민주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정부의 담당자인 대통령이 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이들과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는 행정관료가 정책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책형성자 또는 참여자들은 크게 대통령, 국회, 행정기관, 사법부 등 네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한국의 사법부가 정책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잘 것이 없었다. 정책형성의 공식적인 참여자 이외에도 누구나 정책형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주의 이상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책형성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정당, 이익집단, 일반국민, 전문가와 학자, 언론기관 등이다(유훈, 1989: 134-167).

정책형성과정에서 참여자의 성분, 수와 역할은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대체로 다원주의론은 정책형성과정에 여러 이익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활발히 참여한다고 보고, 엘리트론은 소수 엘리트가 참여한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정책의 공식적인 참여자로 크게 대통령, 입법부(여당과 야당국회의원), 행정부(소관부처와 관련부처), 그리고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정당,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언론 등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이와 대칭되는 일본 청소년정책의 공식 참여자는 수상, 입법부(중의원과 참의원), 내각, 그리고 비공식참여자로 정당,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언론 등이 있다. 이들 참여자는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서 매우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만약 정책형성에 소수 엘리트만 참여하면 엘리트론이 수용되고 반대로 다수가 공평하게 참여하면 다원주의론이 수용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정책형성과정의 설명이론으로 엘리트론이 보다

더 적절했다(손준규, 1983; 정정길, 1990; 현외성, 1994)는 사실을 감안하여 엘리트 중에서 어떤 엘리트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제로 엘리트론에서는 해당 사회의 파워 엘리트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 Mills(1956)는 미국사회의 권력엘리트를 군대, 대기업, 고급관료로 인식하고, 일본에서는 정책형성의 핵심적인 힘이 여당인 자민당, 행정부의 고급관료, 대기업가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산업사회에서 엘리트로는 기술전문가, 지식인 등이 포함된다. 만약 따라서 엘리트론이 설명력이 있다면, 어떤 엘리트가 정책형성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II. 수립과정

1. 한국의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1년 5개월동안 준비하여 작성된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이다(공보처, 1992: 521—526). 노태우 대통령은 1990년 1월 31일 체육부 업무보고시 김집 체육부장관에게 청소년 건전육성은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과제이므로 8년간의 준비로 1988년에 세계적인 올림픽을 개최한 것과 같이 청소년문제도 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해결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건전육성 정책을 펴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청소년육성10개년계획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체육부는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위원회’를 1990년 6월 25일에 구성하였으며, 기획팀을 9월 28일 구성하였다. 11월 30일에는 10개년계획위원회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로 개칭하였다.

기본계획위원회는 1차시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여 2차시안을 작성하여 1991년 5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 관련 관계장관 합동보고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후 기본계획 기획팀이 보완작업을 하여 기본계획위원회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6월 27일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기본계획의 수립과정

연도	주요한 사건과 활동
1990년 1월 31일	노태우대통령이 체육부장관에게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의 수립」을 지시

1990년 6월 25일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위원회」의 구성
1990년 12월 4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제1차시안)을 수립/발표
1991년 4월 29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제2차시안)을 수립
1991년 5월 2/9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개최
1991년 5월 13일	청소년 관계장관 합동보고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의 주요 골격을 대통령에게 보고
1991년 6월 20일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최종안)을 수립
1991년 6월 27일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심의/의결

2.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일본의 21세기방안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1986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정책건의한 것이다. 이 정책건의서는 심의회의 제9기 위원들이 1983년 7월 20일에 심의 주제를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으로 정하고 ‘건전육성부회’를 설치하여 중간 보고서로 ‘현대청소년의 실상에의 접근’을 완성하였다. 이를 제10기 위원이 이어받아서 1986년 12월 4일에는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을 결정하여 내각총무대신에게 정책건의하였다.

종합대책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1989년에 내각총리대신에게 정책건의한 것이다. 이 정책건의서는 제11기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설치를 결정하고 약 1년간 연구한 것이다.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의 수립과정

연도	주요한 사건과 활동
1982년 11월 24일	제9기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 임명
1983년 7월 20일	심의주제로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을 결정
1984년 3월 23일	‘건전육성부회’의 설치 결정

1984년 11월 14일	중간보고 ‘현대청소년의 실상에의 접근’을 완료
1985년 1월 23일	제10기 위원 임명
1985년 4월 15일	건전육성부회의 설치 결정
1986년 12월 4일	‘21세기를 향한 청소년의 건전육성 방안’(의견상신)을 결정
1987년 9월 21일	제11기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 임명
1988년 5월 18일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설치 결정
1989년 6월 19일	‘종합적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의견상신)을 결정

IV. 수립 참여자

1. 한국의 기본계획

기본계획은 체육부의 주도에 의해서 구상되고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계획의 수립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체육부 감사홍 청소년국장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윤구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육성 10개년계획위원회’를 총 4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획팀을 한국청소년연구원 연구직원, 청소년육성위원회 전문위원, 청소년정책조정실 합동으로 구성하였다.

기본계획의 시안작성은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과 체육부 청소년국(후에 청소년정책조정실)의 관련 공무원에서 의해서 기초 자료가 준비되면, 이를 기획팀이 취합하는 형식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기획팀은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여 각 연구팀에게 세부안을 제안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기획팀이 정리한 초안은 형식상 기본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안이 되고 시안에 대한 행정부서,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등의 여론을 수렴하였다. 따라서 기본계획수립과정에서 체육청소년부의 담당공무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들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되고, 다른 행정부서와 청소년단체의 의견은 선별적으로 반영되었다. 비록 기본계획위원회에는 행정부의 청소년정책담당자(주로 과장급)가 1/3정도,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이 1/3정도, 기타 청소년단체의 대표와 청소년전문가가 1/3정도 참여하였지만, 계획안의 작성은 기획팀에 의해서 주도되었다.

2.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의 수립 참여자는 청소년문제심의회 의원이다.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주제를 정해서 연구팀(‘부회’)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이를 정책건의하였다. 21세기방안은 제9기 위원의 연구팀이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고, 제10기 위원의 연구팀이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청소년문제심의회 제9기 위원은 20명중 9명이 전전육성부회의 의원이고, 제10기 위원은 19명중 8명이 연구팀이었다. 그동안 청소년문제심의회 의장은 바뀌었지만, 전전육성부회의 部長은 坂本昇一(千葉大學教授)이 맡았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80—81).

종합대책은 제11기 위원의 연구팀이 1여년동안 연구해서 작성하였다. 심의회 위원 19명중 11명이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의원이고, 부회장은 吉里邦夫(日本女子社會教育會理事長)가 맡았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33). 심의회 의장과 부회장은 세 경우 모두 部會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연구에 깊이 관여하였다.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 명단을 보면, 위원의 소속과 직위는 대학교수(명예교수 포함)가 부회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청소년단체의 대표(3명), 주식회사의 대표(2명), 고등학교장(1명), 변호사, 평론가, 발레교실 주임지도원(각 1명) 등 다양한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 장기계획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제안되고,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됨을 알 수 있다.

제10기 청소년문제심의회 위원 명단

(1985년 1월 23일 임명)

직책	이름	소속과 직위	部회원
회장	加藤 陸奥雄	東北大學名譽教授	0
副회장	勝部 眞長	お茶の水女子大學名譽教授	0
위원	飯田 亮	セコム(株)代表取締役會長	

위원	江橋 愼四郎	前鹿屋體育大學長	
위원	生沼 スミエ	日立ベレーボール教室主任指導員	
위원	小野寺 喜一郎	前日本青年團協議會會長	
위원	栗本 六郎	弁護士	
위원	小玉 正任	公害等調整委員會委員	0
위원	齊藤 一郎	全國防犯協會聯合會顧問	
위원	坂田 清一	日本青年國際交流機構會長	0
部회장	坂本 昇一	千葉大學教授	0
위원	佐膳 紀久雄	外交評論家	
위원	佐分利 輝彦	社會保險審查會委員	0
위원	祐成 善次	(社)日本青年奉仕協會常務理事	
위원	永井 多恵子	日本放送協會解說委員	
위원	廣 慶太郎	久保田鐵工(株) 代表取締役相談役	
위원	増田 信	國士館大學附屬高等學校長	0
위원	山口 ミチコ	前神奈川縣立縣民ホール副館長	0
위원	吉里 邦夫	藤驛市社會教育委員	

V. 주요내용

1. 한국의 기본계획

1) 구성

기본계획은 제1차시안, 제2차시안, 최종안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기본계획의 최종안은 1차·2차시안이 ‘수련활동계획서’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내용보다는 형식을 바꾸었는데, 총괄,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법제보강, 재정확충/운영, 기대효과 등 모두 7편으로 구성되어 있다(체육청소년부b, 1991: 1-4).

기본계획의 총괄편은 기본방향, 목표, 기본방침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1,360여만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의식과 사회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자질을 개발할 수 있는 수련활동기반을 마련하는 장기적·조장적·종합적 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고 기본방향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기본계획은 “미래사회의 주인이 될 우리의 청소년은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서와 용기가 충만하며, 이웃과는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며,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긍지를 갖고 인류공영에 기여할 줄 아는 밝고 능동적인 모습이어야 한다”는 청소년상을 세우고 청소년의 자발·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의 실현, 보다 나은 기회가 부여되는 청소년 성장 요람 조성, 선진·민주·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함양을 중점목표로 하였다. 총괄편은 기본계획에 대한 상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체육청소년부는 이 계획을 통하여 청소년활동영역에서 ‘수련활동’을 발굴하여 “수련영역의 책임소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 청소년활동

기본계획에서 강조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은 수련거리의 개발과 보급, 수련터전의 확보,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을 핵심으로 한다.

수련거리의 개발은 청소년들의 창의적 개인성 개발을 위한 건강·정서·용기 및 상호적 사회성 개발을 위한 예절·협동·공지 등 6대 수련지표에 따라 체력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복합수련 등 7개 활동영역별로 300종의 기본형 수련거리를 한국청소년개발원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개발·보급하고 청소년의 대상별·성별·연령별 및 적용될 시기와 장소등의 특성에 따라 응용 시행한다고 했다.

이러한 수련거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수련터전(장소·시설·설비)의 유형과 기준을 제도적으로 정하여 행정구역, 청소년분포, 자연경관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수련터전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과 대자연 속에 위치한 자연권으로 나뉘었다. 기본계획이 청소년수련활동을 강조한 계획이라면, 수련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수련터전의 확보로 요약된다. 기본계획은 생활권 수련터전(1만 2,909개) 및 자연권 수련터전(608개)에 필요한 총 1만 3,517개 시설중에 4,494개소는 기존의 청소년전용시설, 문화·복지·체육시설, 공공회관, 농어촌 폐분교 등을 활용하여 충당하며 나머지 9,023개소는 신규로 확보할 예정인데, 향후 10년간에 걸쳐 점차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권장한다고 하였다.

청소년지도자는 전문 양성과정 및 임용·배치기준이 없는 가운데 청소년단체가 주로 현직교사, 직장인,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는 실정으로 전문성과 시간이 부족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제, 임용의무화, 교육훈련 전담기구의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최종안은 1차·2차시안중에서 논란이 많은 ‘수사’란 명칭 대신에 청소년지도자로 하고, 지도자의 종류를 크게 전문지도자(1급, 2급)와 자원지도자로 나누었다. 또한 지도자의 임용의무화를 자격취득자의 우선배치로 완화시켰다. 그런데 10년동안에 전문지도자 20,000명

과 자원지도자 100,000명, 현직지도자 17,000명 등 총 137,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약한 것이었다. 지도자양성에 필요한 소요예산 3,071억원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금액 조차 강사료와 교재비이고 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는 인건비는 계획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수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협)에 가입되어 있는 31개 단체와 기타 비가입단체를 포함하여 50여개에 이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들은 재정적 열세성과 전문지도자 부족 등으로 단체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기본적·초보적 활동에 머무르고 있으며, 활동의 내용도 각 단체의 설립목적과 이념에 따라서 대상과 성격을 달리하면서 독자적으로 수행됨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종안은 청소년단체의 유형을 청소년단체(회원중심), 수련터전운영법인(터전중심), 수련거리 전문운영단(거리중심), 청소년 자생모임(동아리 씨클)등 4가지로 나누고, 각 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정립하였다. 연차별 전문단체의 설립/지원은 10년간 회원중심청소년단체 200개, 수련활동시설법인 1,389개이다.

기본계획은 수련활동의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다양한 동기부여책을 통해서 청소년의 참여를 장려하고자 했다. 최종안은 한국청소년수련원과 시/도 청소년수련원에서 수련활동기록부를 관리하여 정책의 자료로 삼고 대학이 신입생을 전형하거나 기업체가 신입사원을 전형할 때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하기로 했다. 대입 전형에 수련활동실적을 반영하는 문제는 교육부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지만, 내신성적의 25%를 수련활동으로 평가한다는 2차시안은 수용되지 않았다.

3)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가 청소년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볼 때 기본계획에서는 매우 소홀히 취급되었다. 기본계획에서는 사회환경의 개선과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함하여 '청소년복지'란 독립된 편을 구성했다. 1차·2차 시안에서 논란이 많았던 유해환경의 정비는 유해환경 감시를 위한 민간단체활동의 지원, 대중매체의 자율규제기능

강화 등과 같이 유해환경에 대한 민간의 감시와 규제능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청소년육성세 등의 신설은 제외되었다. 어려운 청소년의 지원은 수련활동지원, 교육·직업훈련지원, 비행예방·관리 등 주로 체육청소년부가 할 수 있는 청소년복지만을 다루고 다른 행정부처에서 하는 청소년복지는 대부분 누락되었다.

4) 청소년교류

기본계획은 국제교류, 남북한청소년동질성회복에 세계한민족체전 청소년행사를 추가하여 ‘청소년교류’ 편을 구성하였다. 국제교류는 국제간 협력증진, 국제간 이해 및 우의증진, 국제감각 고양, 해외탐방선으로 재편성하고, 남북한청소년 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남북한 청소년어울마당, 통일기원 청소년대행진, 학습여행단 상호방문 등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청소년교류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불투명한 계획들이 많았다. 국제교류의 인원을 10년간 26,134명으로 한다는 것은 필요한 예산의 뒷받침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남북한 청소년 동질성회복을 위한 사업도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이는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5) 법제 보강

기본계획은 청소년 배려제도 보강, 수련활동 중추기구 설치, 청소년기본법 제정, 청소년관계법령의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한 ‘법제보강’을 한 편으로 다루고 청소년기본법의 시안을 제시하였다. 기본법 시안은 청소년활동의 영역에서 ‘수련영역’의 설정과 지원체계, 청소년을 위한 대통령위원회의 설치, 청소년활동을 위한 민간중추기구의 설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등을 포함하였다.

6) 재원조달

기본계획은 소요예산을 2조 4,836억원으로 추정하고 이를 국고(7,785억원), 지방비(4,312억원), 기금(714억원), 민자(1조 2,025억원)로 조달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육성세는 삭제되고 청소년공공예산의 획기적 증대, 청소년기금의 확대, 청소년활동사업 주체의 다양화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청소년 재정의 문제점인 국고의 빈약,

지방청소년재정의 영세성, 청소년기금확충방안의 불투명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2. 일본의 21세기방안

1) 구성

21세기방안은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앞으로 21세기에 이르면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등의 커다란 사회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소년이 적극적인 역할을 짊어질 필요가 있고, 사회변화의 영향을 받기 쉬운 청소년을 전전하게 육성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전전육성의 과제와 행정의 대응방책을 정책건의한 것이다. 21세기방안의 구성은 청소년의 현상과 의식을 개관하는 현대청소년의 실상(제1장),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의 가운데에 있는 청소년의 역할과 청소년 전전육성의 과제에 관해서 진술하는 21세기를 향한 사회와 청소년(제2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과제와 행정의 대응방안을 진술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방안(제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현대청소년의 실상

현대 일본의 청소년은 경제적으로 풍요한 시대에 자라서 풍요사회를 향수할 수 있기 때문에 진학, 취학 등의 사회적 측면의 상황과 신체, 영양섭취 등 개인적 측면에서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이다. 그러나 소년비행은 전후 제3의 피크라고 불릴 정도로 높고, 정신적인 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경제와 사회발전의 과정에서 가정과 지역의 변화 등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청소년의 의식은 개인지향적이고 사회적 관심이 희박해지고 지금까지 일본의 특징이었던 직장과의 일체감도 변화되고 있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編, 1989: 45-79).

3) 21세기를 향한 사회와 청소년

이 정책건의서는 현대 청소년의 실상을 알리고, 21세기를 전망하면서 시대에 맞는 청소년정책을 제안한다. 청소년 건전육성에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의 변화를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의 진전으로 보고 이 세가지 측면에서 청소년육성상의 과제를 제안한다.

고령화의 진전으로 청소년의 역할은 한층 중요할 것이다. 그 가운데 청소년 육성의 과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① 자원봉사활동, 복지시설에서의 활동 등 각종 사회참가활동에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참가시키는 기회를 증가시켜, 청소년의 가슴에 사회적 연대의식을 키울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지역과 학교의 실태에 맞는 창의력있는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직장에서는 사회참가를 위한 휴가제도 등 기본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사회참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청소년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제공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② 자발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청소년활동을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에서 한층 활성화시켜서, 이러한 활동의 참가를 통해서 청소년의 자율성과 활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청소년활동지도자의 양성과 청소년시설의 충실, 청소년 단체에 원조 등을 할 필요가 있다.

③ 핵가족화등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가정의 교육기능을 보강하고, 세대간의 연대감을 키우기 위하여 지역에서 세대를 초월한 사람들간의 교제를 깊이하고, 의사전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청소년시설에서의 제활동에 지도교사 등의 형식으로 지역의 문화, 예술, 기능 등 보유자, 퇴직한 직장 생활의 경험자들을 참가시켜, 지역의 행사가운데 청소년단체와 노인단체의 교류를 꾀하는 등 지역 세대간의 의사전달의 촉진을 힘쓴다.

④ 직장에서는 근로청소년의 노동의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승진제도, 근무시간, 휴가제도 등을 고치거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를 원조하며 건전한 여가생활의 충실 등 직장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⑤ 청소년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예컨대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등 지역에 있는 조직에 청소년의 영입추진, 지역활동의 장이나 기회의 확보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정보화의 진전 가운데 청소년의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적응능력이 특히 기대되고, 다음과 같은 과제에 유의하여 청소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① 청소년의 풍부한 창조성과 정서를 키우기 위하여, 자연관찰과 자연속에서 활동 등 학교 안밖에서 다양한 학습활동 등을 많은 학생들에게 주어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흥미와 지식을 높이는 기회를 키울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관계시설에서 정보기구를 취급하거나 그것의 이용을 위한 강좌와 연수 등을 열어서, 정보기술에 접촉의 기회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청소년에게 가까운 것이 되도록 보급하고 일반화를 꾀한다.

③ 정보유통의 불균형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보공급측의 자제를 촉구하는 국민운동을 활성화시키고, 또한 보호자와 청소년육성단체 등도 힘을 합하여 사회전체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그것이 청소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④ 앞으로 한층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가시간을 유효하게 활용하고, 생애학습으로서 청소년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사업과 근로청소년복지사업의 지도자의 양성,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시설의 충실, 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의 체제를 정비한다.

⑤ 정보화사회에서는 정보기구와의 접촉이 증가하고, 실제체험이 결여되어 인간성의 상실, 따뜻한 분위기의 결여, 체력의 저하 등이 생기므로, 집단숙박생활과 공동체험학습, 자연의 관찰 등을 통하여 정보로 알고 있지만 체험하지 않은 자연, 동물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를 깊이하며, 또한 야외레크리에이션등을 통하여 건강/체력단련 운동을 촉진시킨다.

⑥ 청소년의 균형있는 인간형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에 맞는 예술과 철학 등의 정서/정신측면에서의 육성의 충실을 꾀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사회에서 일본의 국제화를 한층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에 유

의하여 청소년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① 청소년국제교류를 통해서 청소년에게 국제적인 연대감과 협조정신을 고양시킨다. 이 경우에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의 충실 등 청소년국제교류의 센터로서의 기능을 가진 시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국가, 지방공공단체와 민간단체에서 행하여온 집단수준의 조직적인 청소년국제교류와 함께 '근무휴가제'의 활용과 '민박' 등에 의한 개인수준의 국제교류도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류사업에서 프로그램 등 그 내용의 검토를 한층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을 청년해외협력대 등 국제협력 분야의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시켜서 청소년 의식의 국제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활동 중의 사고보험과 직장복귀의 원만 등의 환경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서 국제협력의 지원활동과 국제이해의 보급활동을 시작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③ 다른 문화의 이해와 국제이해를 키우기 위하여 청소년에게 외국어와 외국문화의 학습 기회를 다양하게 준다. 이 경우 지금까지 하여온 구미지역의 학습 이외에 아시아, 아프리카 등의 학습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

④ 올바른 국제인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전통문화의 진흥과 보급 등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깊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청소년과 지역사회의 방안

청소년의 전전육성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그 방안의 제시가 요청된다. 21세기의 사회는 도시화의 진전, 가족의 변화, 고령화, 정보화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역사회에서 고령자보호, 세대간 교류, 지역만들기 등의 필요성이 한층 높아지고, 청소년이 지역의 제반 활동에 참가하여 새로운 공동체의 형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기대된다.

따라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의 과제는 청소년의 학습·사회참가촉진을 위한 기반적 조건의 정비와 비행등 문제행동의 방지가 핵심이다. 청소년의 학습·사회참가

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활동장소의 확보, 지도자의 양성과 확보, 정보수집·제공과 상담기능의 충실, 모델사업 등의 추진, 단체활동의 촉진, 안전의 확보 등의 기반 조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차원에서 행정을 재조직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지역사회에 맞는 청소년 건전육성방안을 연구하고, 청소년육성도도부현민회의와 청소년육성시정촌민회의가 청소년 건전육성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사회수준에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 시설등이 연대하고 협력해서 청소년건전육성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5) 동경도의 사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동경도 행동계획

동경도는 청소년 건전육성의 장기적 전망에서 세운 제 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1984년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동경도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1990년까지 7년동안 “자립적인 청소년의 육성”을 목표로 실천한 바 있다. 또한 동경도는 “청소년 생활공간의 재편”과 “풍부한 인간관계의 재생”을 목표로 하여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새동경도 행동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동경도 행동계획은 생활의 장인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정보공간의 충실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선 그리고 심신건강과 체력의 충실 등을 7가지 과제로 삼고 사회참가의 추진, 정보사회에의 대응, 국제사회에의 대응, 건강과 체력의 증진, 비행·문제행동의 방지 등 5가지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새행동계획에 포함된 사업수는 345개로 이는 (구)행동계획의 296보다 49개나 많아졌고, 새행동계획에서는 ‘정보공간의 충실’이 추가로 강조되었다(東京都, 1991; 이용교, 1994, 151—173).

3. 일본의 종합대책

1) 구성

종합대책은 일본의 청소년문제가 단순하지 않고,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는 소년

비행, 도피적 문제행동 등에 대해서 시대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관계 성청의 시책의 추진·제휴체제의 정비 등 종합적인 조치의 강화를 건의하였다. 종합대책의 내용은 머리말, 문제의 소재와 검토의 시점, 청소년행정의 종합적인 추진체계 등, 청소년관계시설의 이후 방안, 청소년상담의 충실·강화, 청소년국제교류의 추진, 조사·연구와 정보수집·제공기능의 충실 등 6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종합대책은 21세기를 향한 급변하는 사회에서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정서와 창조성, 마음깊은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실천적 사회성, 자율정신, 상호이해에 기초한 국제 연대감과 협조정신을 체득하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이 정책제안서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상호간에 연대, 제휴, 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종합적 청소년행정의 추진 방안

행정에서 청소년대책의 종합적인 조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종합적 시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행정 상호간의 연락·조정·정보교환·제휴·협력을 강화·충실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등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청소년행정에 대한 기본적·종합적인 시책의 수립과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에 관계 성청의 협력하에 현재의 ‘비행대책의 추진에 대하여’의 대신에 비행대책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인 ‘청소년대책추진요강’을 만들어서 이를 추진한다.

청소년대책의 종합적인 추진과 제휴를 꾀하는 체제로서 현재 관계성청의 담당 국장수준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 이외에 과장수준의 연락회의(청소년대책관계성청연락주관과장회의, 비행대책관계성청연락회의, 청소년상담기관관계성청연락회의, 청소년사회참가관계성청연락회의)가 있는데, 이후에는 청소년에 관한 시책전반이 각 성청연락하에 한층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제휴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를 ‘청소년대책추진연락회의’로 개조하고 다른 연락회의를 포함하여 현 체제의 방안을 바로 잡는다. 그

방법으로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각 성청간의 제휴 확보에 배려한다.

아울러 지방공공단체는 청소년문제협의회가 청소년문제를 조사·심의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도도부현청, 교육위원회, 경찰본부 등의 청소년담당부서는 도도부현 청소년종합대책본부로서 정비하고, 앞으로 내부의 제휴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요망된다.

VI. 한·일 청소년계획의 비교

1. 수립과정

한일 청소년장기계획은 수립과정에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청소년담당행정부서인 체육(청소년)부에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 체육(청소년)부가 청소년전문가를 동원하여 기본계획의 안을 만들고 이를 전문가의 자문, 공청회 등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완성시켰다. 그런데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주제를 결정하고 이를 연구팀이 연구를 해서 내각총무대신에게 정책건의 형식으로 제출하면, 이것이 대체로 정부의 청소년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이다.

기본계획은 기본계획위원회란 비상설기관이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고 관련 행정부서와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안을 작성하고 이를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인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정부의 청소년정책계획서라면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정부에 제출된 청소년정책건의서란 차이가 있다.

2. 수립참여자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의 일부 직원과 한국청소년연구원의 연구직원 등으로 구성된 ‘기획팀’이 기본계획의 골격과 세부내용을 총체적으로 설계하였다. 여러 차례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쳤지만, 다른 행정부처, 청소년단체 그리고 여론의 강한 반대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일본의 21방안과 종합대책은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에서

주제를 정해서 자체 연구하여 정부에 건의한 것이다. 한국에 비교해서 일본의 청소년장기계획은 오랫동안 청소년문제심의회에 의해서 주도되었고, 심의회의 기수가 바뀌어도 위원들이 지속적으로 정책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11기 위원으로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의 부회장을 맡은 吉里邦夫는 제10기에는 건전육성부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3. 주요내용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의 범위를 정하고 주무 부서로서 체육청소년부의 역할을 확장하는데 있었다. 청소년정책은 교육부, 보건사회부 등 기능별로 나누어진 다양한 정부부처가 고유업무와 함께 관련된 청소년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체육청소년부가 고유업무로서 청소년정책을 수행하는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고유업무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강조점을 두고,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지원하는 청소년정책의 ‘통괄’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체육청소년부는 고유업무로서 청소년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과 ‘육성’이 함께 필요하다는 논리로 기본계획을 설계했다. 현재의 교육정책은 지식위주의 교육이기 때문에 체육과 덕육을 중심으로 한 ‘육성정책’에 의해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체육청소년부의 시각은 교육의 이상은 지·덕·체육을 통한 전인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 별도로 육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교육부의 시각과 갈등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현실적으로 학교교육이 담당하지 못하는 영역만을 체육청소년부가 담당하길 기대하고, 체육청소년부가 ‘수련활동’을 통해서 학교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기피하였다. 기본계획이 초안에서 최종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은 청소년업무에 대한 체육청소년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와 기존의 영향력을 보존하려는 관련 부처의 ‘싸움’이고, 청소년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 강화와 민간 청소년 단체의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힘겨루기로 인식된다.

체육청소년부는 제2의 서울올림픽과 같은 거대한 청소년육성계획을 세우려고 하

였지만, 다른 행정부처와의 현실적인 역학관계 내에서 기본계획의 최종안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핵심이 되는 청소년수련터전의 확보, 수련거리의 개발, 청소년단체의 육성,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에 관한 방대한 계획을 담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의 제정을 기정 사실화하였다. 다만 기본계획이 다소 무리한 계획이고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후 정치적 변동과 예산의 빈약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현재의 청소년문제와 미래사회에 예견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일본의 청소년대책은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 사회를 겪어질 청소년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특정부서의 청소년업무를 확장하려는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의 종합대책은 청소년 관련 성청이 자기 고유업무를 하면서도 다른 성청과 연대·협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21세기 방안과 종합대책은 청소년정책이 도도부현과 시정촌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동경도 행동계획’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도도부현단위에서 구체화되었다. 새동경도 행동계획은 생활의 장인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정보공간의 충실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개선 그리고 심신건강과 체력의 충실 등을 7가지 과제로 삼고 사회참가의 추진, 정보사회에의 대응, 국제사회에의 대응, 건강과 체력의 증진, 비행·문제행동의 방지 등 5가지에 초점을 맞춘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종합대책은 현재의 ‘비행방지대책추진연락회의’를 ‘청소년대책추진연락회의’로 개조하고 다른 연락회의를 포함하여 청소년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관한 각 성청간의 제휴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간의 제휴와 협력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력이 요망된다는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정책건의는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해서 ‘청소년대책추진요강’을 개정하였다(總務廳青少年對策本部, 1990).

VII. 결 론

이 연구는 한국의 기본계획과 일본의 21세기방안 및 종합대책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청소년장기계획의 수립과정, 수립참여자, 그리고 주요내용을 비교연구하였다.

양국의 청소년문제가 상이하고, 두나라의 청소년행정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 장기계획을 단순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두나라 청소년정책은 많은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고,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한국의 청소년정책이 일본의 그것을 모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양국의 장기계획은 비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양국의 청소년장기계획의 성격을 보면, 한국의 기본계획은 행정부가 주도한 정책 계획서이고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민간인으로 구성된 청소년문제심의회의 정책건의서이다. 계획의 수립과정을 볼 때, 한국의 기본계획은 대통령이 청소년주무부서인 체육청소년부에 10개년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하여, 체육청소년부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청소년연구원과 기획팀을 구성하여 계획초안을 만들고, 기본계획위원회의 의례적인 협의로 수립되었으나,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내각 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인 청소년문제심의회의가 주제를 정하고 연구팀을 만들어서 내각총무대신에게 정책건의를 하는 절차를 거쳤다.

따라서 계획수립의 참여자는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의 행정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이 핵심이고,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나 청소년단체의 대표 등은 주변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행정부처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내용에 대한 기득권 보호의 차원에서 정책수립에 관여하였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의 대표, 기업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계획수립에 참여하였다. 이처럼 일본의 청소년문제심의회의는 수십년동안 많은 정책을 건의하였고, 그 정책제안은 대부분 청소년정책으로 반영되었다.

한국의 기본계획은 모든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목표에서는 미래사회상, 청소년상, 중점목표 등을 밝히고 있지만, 정책의 내용은 청소년활동의

육성에 쏠점을 두었다. 최종안에서 청소년복지와 교류가 강조되었지만, 주로 청소년 활동을 위한 시설, 수련거리, 단체, 지도자 육성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제보강과 제정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기본계획은 청소년정책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청소년육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민간이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정책을 제안하지 못하였다.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은 21세기를 준비하면서도 현재 증가되고 있는 비사회성문제를 포함한 광범한 청소년문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청소년정책의 개발과, 기존 정책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는 각 성청간의 연대와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단체)의 제휴, 정부와 민간의 협력방안을 제안하였다. 청소년정책을 독립된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이 소관 청소년사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기본계획과 일본의 21세기방안 및 종합대책의 비교

	한국의 기본계획	일본의 21세기방안과 종합대책
명칭	한국청소년기본계획	•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건전육성 방안 • 종합적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
발표연도	1991년	1986년, 1989년
성격	청소년 10개년계획서	청소년정책에 대한 정책건의서
수립계기	대통령이 체육부에 지시	청소년문제심의회가 의결
작업반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 조정실과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심의회와 건전육성부회 와 종합적 청소년행정추진부회

총괄기구	한국청소년기본계획위원회	청소년문제심의회
	－ 한시적인 체육청소년부의 자문위원회	－ 내각 총리대신의 법정 자문기구
수립참여자	체육청소년부, 한국청소년연구원, 관련 행정부, 청소년전문가	대학교수, 청소년단체, 청소년전문가, 기업인, 각계의 대표
정책확정	청소년육성위원회	내각
핵심내용	청소년활동 장려	청소년의 삶의 질의 향상
주요사업	청소년활동의 제도화 복지와 교류증진	고령화, 정보화, 국제화에 대응하는 청소년의 육성, 비사회성문제에 대응
교육과관계	육성을 교육과 별개로 인식	교육을 청소년대책의 핵심사안으로 인식
정책변화	청소년기본법 제정 시도별 한국청소년기본 계획 연도별시행계획 수립	청소년대책추진회의 구성 도도부현별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한일 청소년 장기계획을 비교연구하면서, 한국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의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일본의 청소년대책본부와 청소년문제심의회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지만 심의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청소년대책본부 산하에 국장수준으로 구성된 청소년대책추진회의가 있고, 과장수준으로 구성된 5개의 관계성청연락회의가 있어서 청소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한국의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육성실무위원회(국장급)는 연간 한두차례의 의례적인 회의에 그치고, 청소년 관련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심의능력이 미약하다. 따라서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조정과 협력기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서 과장급의 협의조직을 설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정책의 심의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

다.

둘째 청소년정책의 수립에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기본계획은 청소년 담당행정공무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직원이 초안을 작성하고 다른 전문가들은 주변인이었다. 앞으로 청소년정책의 수립에는 청소년전문가, 청소년단체, 기업인, 법률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대표와 청소년전문가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의례적인 회의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연구하고 정책을 실천적으로 제안할 수는 실무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정책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그동안 청소년정책은 주무부서가 내무부, 국무총리실, 교육부, 체육청소년부 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이제 청소년정책은 모든 청소년의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단지 청소년이란 이유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회여건을 고치고 미래사회의 주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기본계획은 체육청소년부가 수련활동을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각 부처가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향후 청소년장기계획은 청소년의 권리, 청소년의 건강, 국제화·정보화·지방화 사회에서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정책은 지방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정책은 가정·학교·직장·지역사회 등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서 청소년의 생활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도, 시·군·구의 수준에서 청소년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실천하며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망을 구축해야 한다. 일본의 청소년육성국민회의, 도도부현민회의, 시청촌민회의와 같은 청소년을 위한 국민운동을 조직화해야 한다. 이 조직에는 청협의 단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소년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공보처, 「제6공화국 실록;노태우 대통령정부 5년」 제4권, 1992.
- 김영모 외,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채육부, 1988.
- 손준규, 「사회보장·사회개발론」, 집문당, 1983.
-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의 현실과 대안」, 은평천사원 출판부, 1993.
- 이용교,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새동경도 행동계획”, 東京都, 「青少年 健全育成のための 新東京都 行動計劃—青少年の 豊かな生活空間をめざして—」, 1991. 11.
- 이용교, 「한국 청소년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12.
- 이윤구 외,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정정길,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1990.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한국청소년기본계획(안), 1990. 12. 4.
- 체육청소년부(a),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발표자료—」, 1991. 5.
- 체육청소년부(b), 「한국청소년기본계획」, 1991.
- 체육청소년부(c),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참고자료」, 1991.
- 체육청소년부(d), 「한국청소년기본계획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안)(총괄편)」, 1991.
- 체육청소년부(e), 「청소년백서」, 1991.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기본법 제정 관련 설명자료」, 1992.
- 체육청소년부, 「체육청소년 10년사」, 1992.
-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1993. 5.
-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제1차 청소년정책토론회—21세기를 살아갈 오늘의 청소년: 과제 및 정책—」, 1992. 10. 14.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일본중앙청소년단체연합회, 「21세기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방안」, 1988. 5. 16.
- 함병수 외, 「청소년관계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육성체계·법령을 중심으로」,

- 한국청소년연구원, 1991.
- 현외성,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유풍출판사, 1994.
- 東京都, 「青少年 健全育成のための 新東京都 行動計画—青少年の豊かな 生活空間を
めざして—」, 1991. 11.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青少年白書—青少年問題の 現況と 對策—」, 1987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青少年の 健全育成を めどして— 青少年問題審議會 10
年の歩み—」, 1989. 8.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編, 「青少年白書—青少年問題の 現況と對策—」, 1990
- Frost, Nick and Stein, Mike. *The Politics of Child Welfare —Inequality, Power and Change*,
New York: Harvester Wheatsheaf, 1989.
- Graycar, Adam and Jamrozik, Adam. *How Australians Live —Social Policy in Theory
and Practice*, Artarmon: Macmillan Company of Australia Pty Ltd, 1989.
- Jeffs, Tony and Smith, Mark(ed.), *Welfare and Youth Work Practice*,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88.
- Jeffs, Tony and Smith, Mark(ed.), *Young People, Inequality, and Youth Work*, London:
Macmillan Education Ltd, 1990.
- Jones, Charles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 金海東 譯, 「政策形成論」,
法文社, 1986.
- Kadushin, Alfred and Martin, Judith A. *Child Welfare Services*,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1988.
- White, R. D. *No Space of Their Own—Young people and social control in Austral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Youth Affairs Council of Australia, *Creating Tomorrow Today— a Youth Policy Report
based on Nationwide Consultation—*, Youth Affairs Council of Australia, 1983. 7.

〈자 료〉

일본 청소년문제심의회의 발자취

1947년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학교교육법, 노동기본법 제정

1948년 소년법 전문개정

1949년 사회교육법 제정

「청소년범죄방지에 관한 결의」(중의원)

「청소년불량화방지에 관한 결의」(참의원)

「內閣官房에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 설치

1950년 총리부에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

(청소년문제대책협의회 폐지)

1951년 아동헌장 제정

1952년 「이와유루 인신매매사건대책요강」(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1953년 청소년문제협의회 설치법 제정

청년학급진흥법 제정

「정신박약아대책기본요강」(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1954년 「청소년각성제문제대책요강」(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1955년 「양친 또는 편친이 없는 자등의 취직에 대하여」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청소년에 유해한 출판물, 영화 등 대책에 대하여」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1956년 「정시제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일하는 청소년의 교육보호복지대책 요강」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정시제고등학교(통신교육 포함)에 대한 재정조치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
제협의회 의견상신)

- 「성인의 날」의 운영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청소년에 유해한 영화대책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 상신)
- 1957년 「근로청년교육대책요강」(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58년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사무국 설치
- 「喫茶店등의 심야영업대책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청소년의 단체활동의 촉진과 청소년의 비행방지에 관한 종합적 연구기관의 설치등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59년 「정신박약아대책의 추진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0년 「칼을 갖지말자 운동」의 실시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 「청소년의 비행방지와 근로청소년대책의 강화 등에 관한 의견상신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1년 스포츠진흥법 제정
- 「청소년의 스포츠진흥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청소년대책당면의 중점사항」(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 1962년 「청년의 집, 유스호스텔의 정비충실에 대하여」
-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 「청소년대책의 강화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3년 「소년의 비행집단대책에 관한 의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4년 「당면한 청소년대책에 관한 의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5년 「청년해외피유사업의 개선에 대하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결정)
- 「청소년비행대책에 관한 의견」(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 의견상신)
- 1966년 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을 청소년문제심의회와 지방청소년문제협의회설치법으로 개정
- 총리부에 청소년국과 청소년문제심의회 설치
- (중앙청소년문제협의회와 동 사무국 폐지)
- 「당면한 청소년대책의 중점에 대하여」(청소년문제심의회 답신)

- 1967년 「청소년전전육성시책의 정비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 1968년 총리부에 청소년대책본부 설치 (청소년국 폐지)
- 1969년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관한 지도자의 양성확보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 1970년 근로청소년복지법 제정
「도시화의 진전과 청소년대책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 1971년 「청소년의 국제교류의 진흥방안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 상신)
- 1972년 「청소년에 관한 행정시책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청소년문제심의회 답신)
- 1979년 「청소년과 사회참가」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 1981년 「청소년문제에 관한 제언」 (청소년문제심의회 중간답신)
- 1982년 「청소년의 비행등문제행동에의 대응」 (청소년문제심의회 답신)
- 1984년 청소년문제심의회와 청소년대책본부를 총리부에서 총무청으로 이관
- 1986년 「21세기를 향한 청소년 전전육성의 기본방안」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 1989년 「종합적인 청소년대책의 실현을 목표로」
(청소년문제심의회 의견상신)

청소년 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정보센터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자: 김 정 주
김 혁 진

목 차

I. 서론	45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5
2. 연구내용 및 방법	46
1) 연구내용	46
2) 연구방법	47
II. 정보센터의 이론적 배경	48
1. 정보화와 정보시스템	48
1) 정보의 개념	49
2) 정보시스템	51
2. 정보센터	55
III.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모형	57
1.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	57
2.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현황	59
1) 청소년정보센터의 사례	59
(1)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정보의 제공	59
(2) 외국의 청소년정보센터	60
3. 청소년관련정보의 활용실태 및 정보관심분야	64
1) 조사결과	65
2) 결과의 논의	75

4. 정보센터의 모형개발	77
1) 운영모형	77
(1) 운영체계 개요	77
(2) 단계별 운영과정	79
2) 조직구성 모형	93
(1) 조직구성의 조건	93
(2) 조직체계 모형	97
 IV. 결 론	101
 * 참고문헌	104
 * 부 록 I. 청소년관련자료의 분류	107
부 록 II. 설 문 지	151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보화사회라는 흐름에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필요한 모든 자료는 그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화된 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은 자료의 정보화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대시키고 또 이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성립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연구와 수련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 분야에서도 청소년관련 자료에 대한 이용 요구는 매우 커가고 있다.

청소년관련 정보는 청소년이라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부터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이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생산기관 역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다양한 기관들에서 생산하는 많은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분석되지 못하면 청소년을 위한 가치있는 자료로서 활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라 할지라도 필요한 용도에 맞게 가공되어 있지 못하고 또한 쉽게 구할 수 없다면 정보로서의 활용가치가 적게 마련이다.

현재 일부 기관에서 청소년관련 문헌자료나 수련활동자료를 정리한 경우는 있지만 청소년에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수집되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즉 청소년관련 종합정보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아직 없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고 가공하여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국가적인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이 부여되어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내에서 청소년관련 정보화에 관한 연구가 1992년 이후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수련활동을 관리

하기 위한 기초적인 전산프로그램은 개발되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연구 방향은 청소년수련활동 및 수련활동 기록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청소년 관련 정보는 청소년교육, 여가, 건강, 복지, 상담 등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소년관련 정보화의 영역을 보다 포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연구단계로서의 논의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연구나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청소년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이 기능을 수행할 주체가 설립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의미를 갖는다. 영국이나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에서 설립한 청소년기관에서 청소년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서비스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이 기능을 수행할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 연구는 청소년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국가적인 정책으로 계획되어 청소년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개발원에서 95년도 사업으로 추진중인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연구하였다.

- ① 정보 관련 개념 및 정보센터에 관한 문헌고찰
- ② 청소년정보의 현황 및 청소년정보에 대한 관심분야 파악
- ③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 모형 개발

그러나 청소년정보센터가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는 이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국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청

소년정보센터가 국가의 정책으로 추진될 때 적용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 본 것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세부적인 연구와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이다.

2)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 이용한 연구방법은 정보화 관련 사항과 외국의 청소년정보화 사례를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 청소년지도자의 정보활용실태와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정보관심분야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청소년관련 정보화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청소년 관련단체 방문 조사, 청소년관련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 및 컴퓨터통신 전문가의 자문 청취 등이었다.

II. 정보센터의 이론적 배경

1. 정보화와 정보시스템

현재 및 미래의 사회를 흔히 컴퓨터시대 혹은 정보사회라고 말하고 또한 모든 조직은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으로 편성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컴퓨터가 분석, 계산, 의사소통하는 인간의 능력을 놀랄만큼 확장시킴으로써 인간의 기술적 진보를 크게 가속화 시켰다는 면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소영일, 1990:17).

특히 최근에 와서 정보통신기기의 발달과 각종 뉴미디어의 등장, 소프트사이언스(soft science)의 발전에 따라 "정보화사회"라는 개념은 새로운 사회형성의 목표이념으로서 사회적으로도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정보화사회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정보의 축적, 처리, 전달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 물질이나 에너지 못지 않게 중요해지는 사회로 정의되며, 정보와 지식이 중요한 재화로 인식되고, 정보기술이 가사, 기업활동, 행정 등 인간의 갖가지 활동에 도입되어 인간의 제반 사회경제 생활양식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사회를 말한다(강석호, 1990:20).

이 과정에서 정보화사회론이 보여주는 정보화사회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강석호, 1990:27).

- ① 정보가 수행하는 역할이 큰 사회이고
- ② 가치관이 다양화된 사회이며
- ③ 정보량이 증가된 사회이고
- ④ 급속히 변화되는 사회이며
- ⑤ 유연성 있는 구조적 시스템 지향사회이며
- ⑥ 자연에의 도전에서 인간 상호간 게임의 사회로 변모하고
- ⑦ 하드테크놀로지(hard technology)에서 소프트테크놀로지(soft thechnology)

의 시대로 변화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보’와 ‘지식’이다.

1) 정보의 개념

정보라는 것은 사실 또는 어떠한 현상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에 의해 수신자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취하기도 하고 지식을 얻기도 한다. 이러한 일반적인 정보의 개념은 학문분야의 관심에 따라서 심리학, 철학, 언어학, 행동과학, 통신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A. M. McDonough는 "정보란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가치가 평가된 데이터이다."라고 정의하여 데이터로부터 얻어낸 부가가치를 정보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G. B. Davis는 "정보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필요한 형태로 처리된 데이터이며, 현재 또는 미래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현되든가 또는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라고 규정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N. Winner는 "정보란 인간이 외계에 적응하려고 행동하고 또 그 조절 행동의 결과를 외계로부터 감지할 때 외계와 교환하는 내용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의 정의는 인간이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지혜로 보고 있다. 또한 C. S. Shannon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서 A,B,C등이 생각되나 이중에 어느 것이 실제로 일어날지 명백하지 않다. 그때 상황은 일정량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보다."라고 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김승렬·전태준,1993:29-30).

위와 같은 정의들을 살펴 보면 정보란 수령자에게 의미있는 형태로 처리된 자료(data)를 의미하며, 또한 현재 혹은 미래의 행위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실제적이거나 지각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보의 개념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는 데이터는 정보와 구별되지만 아주 관계 깊은 개념이다. 정보는 데이터에서 발생되어 나온다. 데이터는 직접 관찰한 사항이나 생각되는 사실이다. 사실의 대체물인 데이터를 수신자가 자기의 지식을 증가시킬 방법으로 모델화하고 편성하며 조직하여 교환한 결과가 정보이다. 데이터는 본래 객관적인 것이 아니면 안된다. 사실은 개관적인 사

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흡수되고, 교환되면, 그것은 수신자의 주관에 따라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를 주관적이라고 하는 견해도 생기고, 가치평가가 가해진 데이터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정보가 갖고 있는 특성은 다음과 같다(김승렬·전태준,1993:32-33).

① 시한성 : 정보는 시한성이 있다. 즉, 정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된다.

② 독점성 : 정보는 독점성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정보라도 공개되고 나면 정보의 가치가 급속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공개된 정보보다는 반공개 정보가, 반공개 정보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갖는다.

③ 사용성 : 정보는 사용성이 있다. 정보의 소유는 물질의 소유와는 달리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빌려주더라도 자신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비이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필요한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가치를 부여하는 무한가치성을 가지며, 사용자의 필요성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가치변화성을 갖는다.

④ 누적효과성 : 정보는 누적효과성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볼 수 있듯이, 정보는 풍부하게 생성, 축적되면 필수로 그 가치가 높아진다. 또한 정보는 결합되고 가공되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해내는 결합성을 갖는다.

⑤ 결과지향성 : 정보는 결과지향성이다. 즉, 정보는 노력의 세계가 아니라 결과의 세계이다. 따라서 아무리 내용이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정보는 정보의 정확성, 출처의 신뢰성 및 유용성 등의 검토를 거쳐 평가됨으로써 사용자에게 유용하게 이용된다. 앤드루스는 정보사용을 촉진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용을 정보의 형태가 의사결정자의 요구사항에 보다 더 근접하게 맞추어짐에 따라 정보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형태효용(form utility), 필요할 때 필요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면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보다 더 큰 가치를 준다는 의미에서 시간효용(time utility),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전달할 수 있다면 정보는 보다 더 큰 가치를 갖는다는 장소효용(place utility), 정보소유자는

타인에게로의 정보전달을 통제함으로써 그것의 가치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소유효용(possession utility)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소영일,1990:617). 즉 사용자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그때에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정보로서 효용가치가 크다는 것이다.

2) 정보시스템

데이터가 정보로 되는 과정은 수신자에게 달려있다. 데이터를 정보로 변환시키는 논리적인 과정에서는 ① 입수 ② 확증 ③ 분류 ④ 배치 ⑤ 요약 ⑥ 계산 ⑦ 축적 ⑧ 검색 ⑨ 재생 ⑩ 전달 등과 같은 논리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데이터의 변환과정을 거쳐 정보가 된다. 이러한 변환과정을 수신자가 아닌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정보시스템이다.

시스템은 ‘복잡한 기능적 효과와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정보 연결을 유지함으로써 자체제어를 가능하도록 설계된 개별요소 또는 하위시스템들의 집합체’라고 정의한다면, 정보시스템은 인간과 정보(자료)와 기능으로 구성된 하나의 조직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기능은 사회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시스템의 목적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는데 있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 조직한 것이다(이경호, 1990:74).

정보시스템의 특성은 ① 시스템의 목적·목표, ② 입력, ③ 출력, ④ 자원, ⑤ 운영(operation)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목적’은 특정 사태 혹은 어떤 문제에 당면하였을 때, 그것에 대하여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를 구하는 사람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다. 정보시스템에서의 ‘입력’은 외부환경의 특정부분이 정보시스템에 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이나 행동에 결부되는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경제·정치·사회·제도와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 이를 구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요구정보가 입력되어 들어온다.

정보시스템의 ‘출력’은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시스템이 작용하여 구체적인

작용의 결과로서 시스템에서 외부환경으로 나가는 것이다. 출력은 시스템이 지향하고 있는 목적이나 목표 및 그것에 관련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시스템의 ‘자원’으로서는 사람, 설비, stock, 자금 및 시스템내의 상태 등이 포함된다. 상태에는 정신적 상태와 물질적 상태가 있다.

정보시스템의 ‘운영(operation)’이라 함은 외부환경에서 시스템으로 입력된 것을 출력으로 변환처리하는 조작 및 그것에 관련되는 일련의 순서로서, 이 변환처리를 위하여 많은 요소가 자원으로부터 나온다. 시스템의 자원은 시스템의 운영을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시스템의 운영에는 입력을 출력으로 변환하는 조작과 그 절차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조정을 담당하는 제어, 운영의 특정단계에서 얻어진 정보를 다른 단계로 돌려보내며, 입력으로서 제어, 계획, 수정에 사용하는 피드백 및 징후가 나타나기 전에 예측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피이드포워드(feed foward)의 능력까지도 갖고 있다(이경호,1990:178).

한편 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는 중요한 자원으로서 관리된다. 정보자원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몇가지 활동 중 자료관리(data management)는 조직전체를 통해서 자료를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데이터베이스 내에 있는 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 구성(networking)은 자료가 조직전체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직의 통신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임무이다. 이러한 활동은 정보자원의 흐름을 통합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사무자동화와 워드프로세싱 활동은 사무활동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그것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정보를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사무활동을 자동화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종사용자 컴퓨팅(end-user computing)은 정보시스템의 구조나 설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최근의 가장 중요한 발전사항으로 사용자 혹은 사용부서가 그들 자신의 자료처리와 자료분석을 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는 조직의 데이터베이스내에 있는 자료에 직접 접근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정보처리를 수행하도록 단말기나 퍼스날컴퓨터, 그리고 강력한 소프트웨어의 지원을 받는다. 또한 최종사용자가 처리한 결과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통신망을 통하여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시스템의 최종적인 목적은 인간의 의사전달과정의 촉진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자료내에 수록된 정보를 사용하기 쉽도록 조직화 하고 다양한 이용자의 환경을 고려하여 몇몇 다른 종류의 정보시스템을 개발하여 온 것이다. 정보제공의 대상자, 제공하는 정보의 유형, 제공방법 등에 따라서 세분할 수 있다. 예컨대, 한정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내시스템도 있는 반면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용 상용(汎用 商用)시스템도 있다. 또, 제공되는 정보의 유형도 다양하여, 서지(書誌)정보, 리퍼럴(referral)정보, 물성(物性)정보, 수치정보, 문장 수치정보, 전문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제공매체도 다양하여 컴퓨터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에서부터, 색인지 초록지나 각종 자료를 사용하는 수작업 방법에 의한 것까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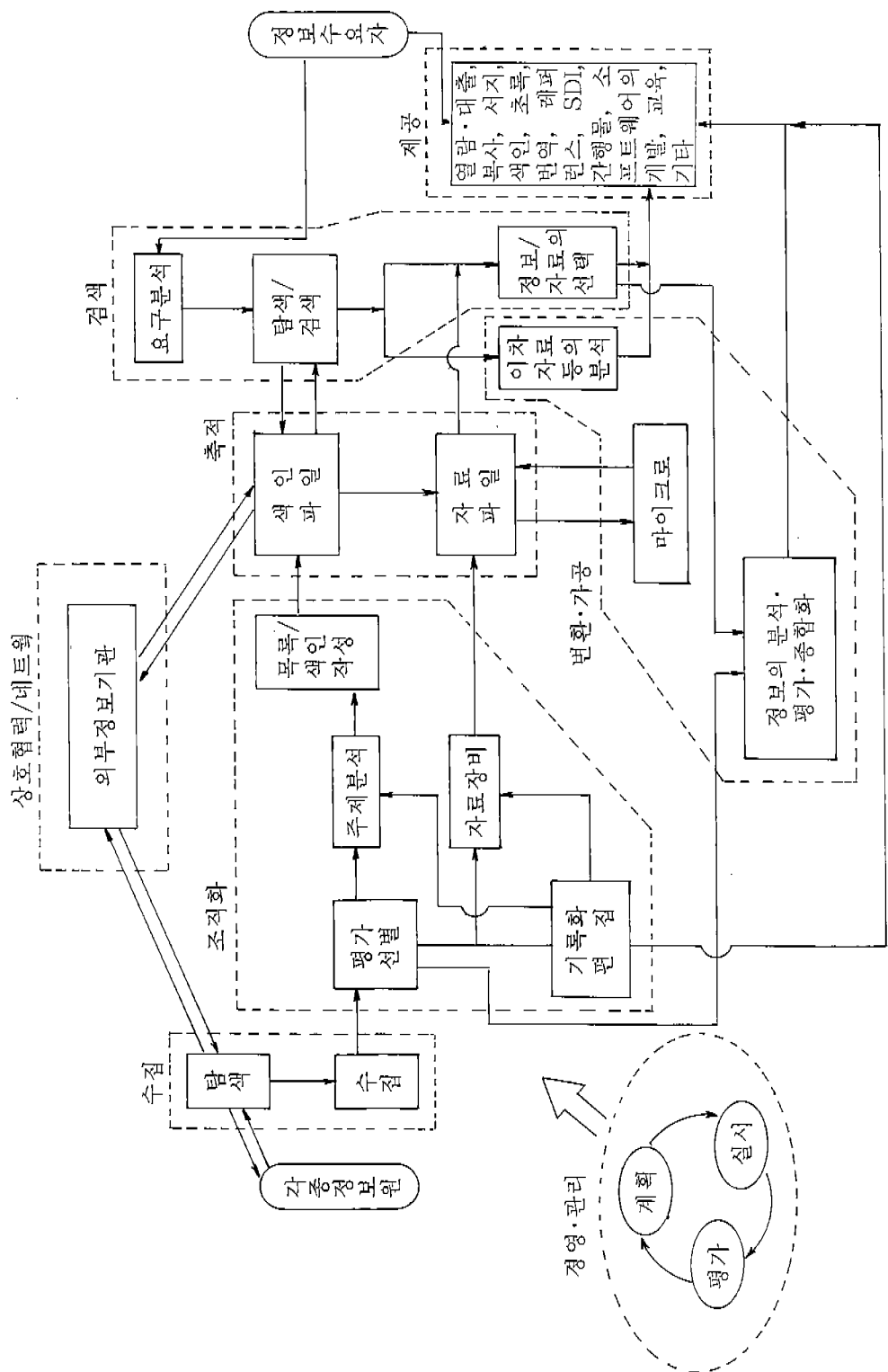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정보시스템의 설치 주체는 행정기관, 준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이 있고, 수요선(需要先: 봉사대상)으로는 많은 수의 공공기관, 사업소, 개인이 있으며 그 유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정보시스템은 특성상 정보서비스기관으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 그 형태는 몇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그 하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시스템의 하드(hard)적 요소, 즉 시설, 제품 등을 주체로 한 축적(蓄積)부분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움직임을 주체로 한 소프트웨어(soft)적인 부분의 '흐름'이다. 기본적으로 후자는 인간의 행위에 직접 의지하는 것으로서 서비스나 정보흐름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어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포함된다. 서비스에는 물적인 것에 중점을 둔 물적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신적 서비스, 기능제공이나 정보제공을 행하는 기능적 서비스가 있다.

정보서비스기관은 공공적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시설, 비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축적되어 있는 많은 정보 및 기록매체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각종 수단이 강구되어 시스템이 짜여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이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정보서비스기관의 기능은 <그림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정호역, 1990: 185).

정보서비스기관의 유형(type)으로는 각종 도서관, 각종 정보센터, think tank,



(그림 1) 정보서비스 기관의 기능

software house, system house,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 출판사, 데이터베이스 벤더(database vendor), 각종 consultant, 각종 광고 기획상(企劃商: agent), 각종 교육기관, 문화 오락(recreation)시설 등이 있다. 다음에는 이들 중 범위를 한정시켜 이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보센터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광대한 지식을 산출하게 되어 날이 갈수록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축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요구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정보의 생산과 분배의 메카니즘 속에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많은 정보를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는 내용에 있어서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목적과 대상들이 각양각색의 성격을 갖게 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수집·보관하는 단계에서 출발하여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정리하여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제공하고 전체적인 정보의 탐색·보관·제공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료가 어디에 보관되어 있으며, 어떤 방법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토대로 효율적인 정보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보의 근본적인 저장소로 여겨지는 정보센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성기덕, 1994:1-2).

정보센터라는 개념의 출현은 조직내에서 늘어난 정보와 지식을 효율적으로 정리·보관·저장할 수 있는 센터의 필요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Hammond는 정보센터를 정보서비스 부문의 한 부분으로 최종사용자에 의한 보고서 산출, 수정, 데이터 조작, 자발적 조회 등을 지원한다고 정의하고 정보센터의 기본전제로 사용자에게 교육훈련, 기술지원, 유용한 도구, 시스템의 용이한 접근이 지원된다면, 그들은 정보서비스 부문에 의존하는 업무영역의 일부분을 그들 스스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

이라고 평가하였다.

보다 현대적인 개념인 최종사용자 전산(end user computing)에서는 정보센터란 장소가 아니고 정보시스템부와 사용자간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하게 되며, 최근에는 최종 사용자들의 전산지원을 위해 효율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도입, 컴퓨터 관련 설비들간의 표준화와 호환성, 그리고 사용자 개발 프로그램의 문서화, 사용자 교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되었다(성기덕,1994:6).

그러나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정보센터란 일반 공공도서관 또는 대학도서관과는 그 기능상에 있어서 의미가 다른 특수도서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수도서관은 일반적으로 정부, 협회, 기업 등의 지원을 받아 부여된 임무에 근거를 두고(mission-oriented) 그 업무에 적절한 정보 또는 데이터를 깊이 있게 모집하여 분석, 축적, 검색하는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주요 목적은 그 특수한 주제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보 정리하며 이용가능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센터는 종래의 도서관 기능인 소극적인 보관업무에서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보제공, 출판, 배포, 정보의 유통기능을 강화한 전문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Ⅲ. 청소년정보센터 운영모형

1.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

앞에서는 정보와 정보시스템, 정보센터 등에 관한 개념들을 살펴 보았는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정보센터는 '청소년'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 각종 프로젝트의 수행에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특수도서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관련 정보의 영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전영역을 망라하기 때문에 유관기관과 정보교류를 위한 협조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정보센터의 정보시스템은 일반적인 정보시스템의 개념과 특성을 고려하여 그 운영체제를 개발해야 한다.

1) 청소년정보센터 운영의 필요성

청소년기본법의 시행으로 국가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한국청소년개발원과 한국청소년학회를 중심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1993년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민간시설은 생활권 수련시설이 112개소, 자연권수련시설이 166개소, 유스호스텔 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문화체육부, 1993). 또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원단체로 34개 청소년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한편으로 전국의 청소년시설운영자의 모임인 한국청소년수련시설운영자협회가 사단법인체로 발족하였고, 국가정책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제도가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청소년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청소년활동에 관한 관심과 활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활성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년활동이 충분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에 따라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 입안자, 연구자, 청소년지도자 그리고 각 단체조직과 유관기관들의 청소년에 관한 올바른 의사결정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각종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 관리, 유통시키는 것이 청소년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사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측면에서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몇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정보센터는 각종 청소년수련시설과 단체의 프로그램을 교환하고 공유하기 위한 장을 제공하고, 이들 조직간의 연결을 유지,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현재 청소년 시설이나 단체들 간에는 활동 프로그램이 일종의 노하우(know-how)로 인식이 되어 있어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의 정보화사회는 조직자체에서 개발된 노하우만으로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변화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노웨어(know-where)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여 노하우 못지않게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정보센터가 청소년시설과 단체들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장으로 활용되고, 이들간의 유기적인 연결을 지원하여 프로그램과 인력의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정보센터는 청소년지도자를 비롯한 청소년관련 인력의 관리와 이들의 활동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본격적으로 청소년관련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 지도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매년 청소년전문지도자가 제도적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들이 적재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중개역할을 하고, 이들간의 협력과 교류를 지원할 공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요구에 대응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기관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을 청소년정보센터가 수행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정보센터는 일반대중의 청소년관련 정보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청소년활동에 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보센터의 이용자는 특정한 집단에게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청소년정보센터의 경우 대상자의 범위가 청소년관련 업무 담당자는 물론이고, 청소년 자신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의 부모를 포함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는 대중매체나 기업체 등 많은 정보수요자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청소년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이나 부모가 청소년활동에 관한 관심이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중매체가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표기관이 필요하다. 즉, 청소년분야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기능은 물론 실질적인 정보제공기관으로 정보센터가 필요하다.

2. 청소년정보센터의 현황

1) 청소년정보센터 사례

(1) 우리 나라에서의 청소년정보의 제공

국내에서 청소년관련 정보의 생산 및 제공 기관으로는 문화체육부,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대화의 광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 각 청소년회관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체육부의 경우 매년 청소년백서와 청소년수련활동사례집, 청소년수련시설편람 등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고, 각종 연구사업보고서와 정책관련 자료들을 배포하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관련 연구와 수련거리개발, 청소년지도자 양성, 수련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중추적인 기능이 부여된 국책기관으로서 많은 정보를 생산하고 보급할 임무를 가진 기관이다. 매년 연구보고서, 수련거리집과 연구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청소년육성관련 세미나 및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 연수를 통하여 청소년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청소년지도자간의 상호교류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련활동 및 수련시설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해오는 방문자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오늘의 청소년」이라는 청소년정보지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회원단체들의 수련활동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각 회원단체들도 역시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보들을 생산하여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청소년사업관은 청소년관련 종합정보지인 「푸른소식」을 매월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또한 서울청소년회관등 대부분의 청소년회관 및 청소년관련 시설에서도 청소년관련 자료들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청소년관련 정보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을 일반인들이나 청소년관련업무 수행자가 쉽게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발행부수의 제한을 들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이 어느 곳에서도 정리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떠한 자료가 어디에서 발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또한 일단 배포되고 난 후에는 구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최근에는 새로운 형태로 천리안이나 하이텔 등 통신망을 통하여 전국의 청소년상담실 중 몇 지역의 상담실에서 상담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YMCA에서 자체 홍보란을 개설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정보의 경우도 자체의 사업에 국한되고 있다.

(2) 외국의 청소년정보센터

① 영국의 국립청소년국(National Youth Agency)의 정보센터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NYA(National Youth Agency: 우리나라의 한국청소년개발원과 유사한 기관)에서는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NYA의 사업영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YA에서는 정보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영국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센터는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정보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철저한 서비스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이용자는 청소년들도 포함되지만 주요 대상으로 청소년지도자이며,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주요 도시의 변화가에 청소년을 위한 ‘정보센터(information shop)’를 운영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을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NYA의 정보센터에서는 소식지, 신문, 팜플렛, 통계자료, 전문서적, 관련기관 등 청소년들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자료를 모으며 이를 컴퓨터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료실의 일반적인 자료는 행동 및 사회과학, 문화와 인문학, 과학과 공학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분류되지만 청소년정보의 영역은 이와는 별도로 10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그 영역은 교육, 고용과 훈련, 환경, 유럽, 가족과 관계, 보건, 주택, 정의와 평등, 금융, 스포츠·여가·비행이며 각 영역별로 세부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 영역별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가지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고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소식지나 팜플렛, 책과 같은 정보화된 자료로 제작하여 출판하고 수집 및 제작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정보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문, 전화, 팩스, 편지 등으로 자신의 활동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여 이를 주문할 수 있다. NYA에서는 자료를 빌려주거나 판매를 하며 필요한 자료는 복사를 하여 제공하고 있다.

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출판업무가 매우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는데, 각종 자료의 출판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출판물의 형태는 매우 다양한데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게임형태로 제작된 자료, 단행본, 관련 문헌집, 팜플렛, 특정한 주제를 다룬 2-4페이지 분량의 sheet자료 등이 있다. 그리고 출판물에 대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이를 이용하여 자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연구보고서 형태의 책자로 발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보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NYA에서 발간되는 간행물 중에서 정기간행물로는 청소년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를 알려주는 Young People Now(월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면서 지도자들에게 정보와 소식을 알려주는 Youth Action(연 3회), 청소년서비스의 운영자나 정책담당자들을 위한 Policy Update(격월간) 그리고 흑인청소년 등 소수민족의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Shabab 등이 있다.

NYA의 정보센터 이용 현황을 보면 1992년 4월부터 1993년 3월 동안 약 8,000여회의 문의가 있었으며, 자료의 판매는 17,860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자문 및 이용자료의 내용은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서비스분야, 청소년활동에서 연수과정, NYA에 대한 소개,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청소년 일반에 관련된 사항 등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NYA에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Information Shop for Young People"을 개설하고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지역 청소년정보센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1991년에 Bradford에 설치된 이후 현재 10개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입지조건에 있어서 중심가의 변화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데 배경을 두고 있다. 여기에서 청소년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조언, 정보를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 곳에서 취급되는 주제는 에이즈, 건강, 스포츠, 교육, 성, 고용, 면접기술, 장애인교육프로그램 그리고 해외교환프로그램 등이다.

그리고 NYA 이외에도 여러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센터에서도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각종 연수나 정보지, 소식지 등을 발간하고 있다. 그리고 NYA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체적인 영역을 포괄하지만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그 분야를 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② 프랑스의 청소년정보문헌센터(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프랑스의 청소년정보문헌센터(CIDJ: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는 정부(청소년체육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청소년들과 관련

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1969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파리에 5개 지역,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23개 각 지방별로 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업무의 영역도 프랑스 전체의 국가적인 업무와 함께 각 지방별로 청소년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CIDJ의 조직은 현재 18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10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는 행정, 개발 그리고 문헌-편집-정보의 3분야로 이루어진다.

CIDJ의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제작하여 이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다. 문헌정보는 크게 교육, 직업연수:직업과 활동영역, 고용, 평생교육, 사회와 현실생활, 여가, 휴가, 외국, 스포츠의 9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마다 세부적인 하위 영역으로 분류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은 470여분야의 정보카아드와 180여종의 문헌자료의 카아드, 브로셔, 각종 기록물의 형태로 제작, 관리되며 이용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내용을 기록한 자료카아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각종 자료들을 편집하여 종합정보자료집을 발간하며 CIDJ의 각종 간행물과 행사 등에 관한 자료들은 판매 또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정보의 제공과 이용 방법은 이용자의 방문과 담당 직원의 자료상담, 통신, 서신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형태는 청소년들의 정보센터 방문과 담당직원이 직접 청소년들의 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통신의 경우에 청소년들은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Minitel 이라는 통신망을 이용하여 사회문화, 스포츠활동, 자격증 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신의 경우에는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 보내는 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발송하고 있다.

문서의 관리, 정보의 전달등과 같은 업무의 관련자들을 위한 연수는 문서관리 기술지도(정보의 매체에 대한 연구, 서류의 수집, 분류, 검색, 보급을 위한 기술), 정보의 전달과 방문자에 대한 자문(정보전달 도구와 매스컴 매체의 분석, 자문장소의

정비와 구상, 개입의 정도와 정보제공자의 역할 등), 구직을 위한 조직(청소년들의 취업전략 안내 등)으로 이루어진다.

다른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수준 높은 정보서비스를 도모하는데 예를 들면 국립직업연구소, 의료보험기금 등과 같은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며, 청소년정보지도센터의 협조를 받고 있다. 또한 CIDJ에서는 유럽 공동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 전체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조언유럽협회가 설립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협회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혁신과 정보의 조언에 관한 유럽의 협력 증진,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발, 유럽적 공간 창출의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보지원의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3. 청소년관련 정보의 활용실태 및 정보관심분야

청소년관련정보의 활용실태 및 정보관심분야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정보관심분야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의 청소년관련 정보 수집방법과 활용실태 그리고 관심있는 정보분야를 파악하였다.

이번 설문조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은 총482명을 조사하였는데, 보라매 청소년회관의 동아리회원 46명, 서울청소년회관 동아리회원 93명, 언남중학교 152명, 삼성고등학교 195명 등이었다. 청소년지도자는 94년도 1급 및 2급청소년지도자이수과정 연수에 참가한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들 중 382부를 회수하여 분석하였다.

1) 조사결과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소년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별로 볼 때 남자 58.5%, 여자 41.5%이었다. 학력별로 볼 때 중학교 재학생이 32.6%, 고등학교 재학생이 67.4%였다. 고등학생 325명중 인문계학생이 230명으로 70.7%이었고 실업계 고등학생이 29.3%인 95명 이었다. 수련활동 참가경험별로 살펴 보면 90%이상 이 1회이상 수련활동에 참가하였으며 4회이상 참가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5%이었다. 청소년단체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응답자가 29.3%이었고, 70.3%가 미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청소년의 특성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자	282	58.5
	여 자	200	41.5
학 력	중 학 교	157	32.6
	고등학교	325	67.4
수련활동참가경험	없 다	45	9.3
	1-3회	172	35.7
	4회이상	265	55.0
청소년단체회원	가 입	141	29.3
	미가입	343	70.3
계		482	100.0

설문조사에 응한 청소년지도자의 특성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았는데, 성별로는 남자가 63.9%, 여자가 36.1%이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41.9%로 가장 많은 비율이었다. 경력별로는 1-5년 사이가 41.6%로 가장 많았고 11년 이상된 응답자도 21.7% 이었다. 무응답자 중에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에 참가한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별로는 대학졸업이 60.7%를 차지하고 있고, 대학원 졸업도 18.8%에 이르고 있어 전체적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80%를 넘었다. 근무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원으로 근무하는 응답자가 68.6%이었고 자원봉사자가 16.2%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지도자의 특성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성 별	남 자	244	63.9
	여 자	138	36.1
연 령	29세 이하	97	25.4
	30-39세	160	41.9
	40-49세	93	24.3
	50세 이상	32	8.4
경 력	1~5년	159	41.6
	6~10년	92	24.1
	11년 이상	83	21.7
	무응답	48	12.6
학 력	고 졸	35	9.2
	전문대졸	40	10.5
	대 졸	232	60.7
	대학원졸이상	72	18.8
	무 응 답	3	.8
근무형태	자원봉사	62	16.2
	정규직원	262	68.6
	기 타	39	10.2
	무 응 답	19	5.0
계		382	100.0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관련정보 수집과 활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육성 관련업무에 종사하면서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4.2%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은 18.3%로 나타났다.

<표 3> 정보에 필요한 이유

구 분	빈 도	백 분 율
수련활동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207	54.2
청소년 상담을 위해	45	11.8
청소년을 이해하기 위해	70	18.3
새로운 기능 습득을 위해	40	10.5
기 타	13	3.4
무응답	7	1.8
계	382	100.0

청소년지도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을 두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순위를 산정한 결과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관련 세미나, 대중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의 이용, 청소년 관련기관 방문, 청소년 관련기관 발행의 소식지 이용, 도서관 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정보를 얻기위해 이용하는 방법(2배수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청소년지도자연수 및 청소년관련 세미나	156	1
대중매체(방송,신문,잡지 등)의 이용	144	2
청소년관련기관 방문	124	3
청소년 관련기관 발행 소식지 이용	107	4
도서관 이용	94	5
지도자들과의 협의회	51	6
각종 행정기관 방문	29	7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료 검색	7	8
기 타	8	

청소년지도자들이 정보를 얻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들 중에서 실제로 도움이 된 방법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순위를 산정한 결과 <표 5>와 같이 청소년지도자연수 및 청소년관련 세미나, 청소년관련기관 방문, 대중매체 이용, 청소년기관 발행 소식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정보를 얻기위해 이용하는 방법중 실제로 도움이 된 방법(2배수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청소년지도자연수 및 청소년관련 세미나	185	1
청소년관련기관 방문	123	2
대중매체(방송,신문,잡지 등) 이용	119	3
청소년기관발행 소식지 이용	92	4
도서관 이용	69	5
지도자들과의 협의회	57	6
각종 행정기관 방문	27	7
컴퓨터 통신을 통한 자료 검색	6	8
기 타	9	

청소년지도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자료의 형태로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도자연수 및 세미나 자료, 문헌자료, VTR자료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6>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자료형태(2배수 응답)

구 분	빈 도	순 위
지도자연수 및 세미나 자료	277	1
문헌자료	206	2
VTR자료	149	3
컴퓨터통신 자료	60	4
카세트 테이프	12	5
음성정보시스템	3	6
기 타	14	

한편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관련 정보를 얻을 때 가장 어려운 점은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가 적다는 문항에 응답한 비율이 46.9%이었고,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문항에 25.9%가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청소년관련 정보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즉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가 적다는 것의 의미는 청소년관련 자료들이 정보수요자들의 요구에 맞게 가공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의 의미는 자료들이 어느 곳에서도 모아지고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표 7> 정보를 구할 때 가장 어려운 점

구 분	빈 도	백 분 율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가 적다.	179	46.9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	99	25.9
시간이 오래지나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많다.	60	15.7
찾은 정보가 직접 이용하기에 너무 복잡하다.	33	8.6
무 응 답	11	2.9
계	382	100.0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라고 할 때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것은 청소년이라는 주제영역을 대상으로 청소년정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정보의 개념이 성립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 활동, 취미, 관심사항 등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청소년관련 정보의 영역에 포함 될 수 있다. 이용대상자의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부모, 청소년연구자, 청소년정책담당자 등 다양하지만 크게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로 나누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청소년정보센터의 주요한 이용대상이 될 수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의 관심영역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관심분야의 파악에 있어서, 두 대상의 정보관심영역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즉 청소년의 정보

에 대한 관심은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학업등과 같은 분야가 주종을 이루지만 청소년지도자의 관심은 이들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정보관심분야를 조사하였다.

먼저 청소년지도자의 정보관심 영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여기에 제시된 정보영역은 기존의 문헌과 현재 천리안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통신 서비스들 중에서 청소년지도자의 업무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를 1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고, 각 영역에 대한 청소년지도자의 관심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여 그 평균값에 따라 순위를 산정하였다.

<표 8>에서 보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연구자가 제시한 15개 정보영역에 관하여 모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련활동 프로그램 관련정보,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정보, 청소년관련 문헌 및 시청각자료 등의 정보, 청소년의 약물·건강·성교육 등에 관련된 정보, 수련활동 시설 및 단체관련 정보, 청소년관련 세미나 및 학술 모임 등에 관한 정보 등에 높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표 8> 청소년지도자의 정보관심분야

정 보 영 역	관심정도(%)							평균값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 이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무응답	계	
1) 수련활동 프로그램 관련 정보	59.7 228	23.3 89	12.8 49	0.8 3	0.3 1	3.1 12	100.0 382	4.45
2)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육 관련 정보	46.3 177	37.2 142	13.1 50	0.0 0	0.3 1	3.1 12	100.0 382	4.33
3) 청소년관련 문헌, 시청각 자료 등의 정보	5.5 174	36.6 140	14.7 56	0.5 2	0.0 0	2.6 10	100.0 382	4.30

4) 약물·건강·성교육 관련 정보	45.8	34.0	15.4	1.0	0.0	3.7	100.0	4.29
	175	130	59	4	0	14	382	
5) 수련활동시설 및 청 소년 단체 관련 정보	45.5	31.7	17.3	1.8	0.5	3.1	100.0	4.23
	174	121	66	7	2	12	382	
6) 청소년관련 세미나 및 학술평의에 관한 정보	40.6	37.4	18.1	0.8	0.3	2.9	100.0	4.20
	155	143	69	3	1	11	382	
7) 수련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정보	42.7	31.2	20.9	1.6	0.3	3.4	100.0	4.18
	163	119	80	6	1	13	382	
8) 청소년의 취미·여행 활동 관련정보	36.4	42.4	15.4	2.1	0.0	3.7	100.0	4.17
	139	162	59	8	0	14	382	
9) 외국의 청소년수련 활동 관련정보	38.7	30.1	24.3	3.9	0.0	2.9	100.0	4.06
	148	115	93	15	0	11	382	
10) 청소년을 위한 연극· 공연·도사등의 관련 정보	29.6	40.8	24.3	1.0	0.5	3.7	100.0	4.01
	113	156	93	4	2	14	382	
11)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 관련법규 및 제도	27.7	39.8	27.5	1.6	0.0	2.4	100.0	3.97
	106	152	105	6	0	13	382	
12) 청소년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관련 정보	38.0	28.0	24.6	5.8	1.3	2.4	100.0	3.97
	145	107	94	22	5	9	382	
13) 진로·취업 관련 정보	25.7	35.9	27.7	4.7	1.3	4.7	100.0	3.83
	98	137	106	18	5	18	382	
14) 청소년수련활동을 도와 줄 자원봉사자관련정보	26.7	33.8	29.8	5.2	1.0	3.4	100.0	3.82
	102	129	114	20	4	13	382	
15) 학습·진학 관련 정보	18.8	33.2	38.5	4.7	1.0	3.7	100.0	3.66
	72	127	147	18	4	14	382	

청소년들의 정보관심분야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결과는 <표 9>와 같다. 이 조사에 제시된 정보영역은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친리안에 제공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

스를 관찰한 후 청소년에게 관심이 있거나 의미있을 만한 정보를 30개 영역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각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정도를 5점척도로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순위를 구하였다. 조사결과 청소년들은 직업 및 진로정보, 학습자료, 대학 및 학과정보, 공부방법 상담 등 학업이나 진로에 관련된 정보영역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디오나 음반, 연극이나 영화상영 정보, 청소년 잡지나 만화 도서 등에 관한 정보 등에도 관심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청소년의 단체활동이나 캠프, 미술관·박물관 등의 전시회, 사물놀이나 탈춤 등 전통문화활동, 오페라나 무용 등 문화예술활동 등에는 낮은 관심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학업과 음악감상, 영화보기, 만화나 잡지책 보기 등 혼자서 할 수 있는 단편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서를 함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활동영역에 대한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정보지발간 39.8%(192명), 방송이용 30.7%(148명), 신문 잡지에 게재 17.4%(84명), 컴퓨터통신 5.8%(28명), 기타 및 무응답 6.3%(30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9>

청소년의 정보관심분야

정 보 영 역	관 심 정 도 (%)							평균값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 이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무응답	계	
1) 직업 및 진로정보	55.4 267	28.6 138	9.5 46	3.5 17	1.2 6	1.7 8	100.0 482	4.36
2) 학습자료	42.1 203	38.2 184	15.4 74	1.0 5	1.7 8	1.7 8	100.0 482	4.20
3) 대학 및 학과정보	44.4 241	33.6 162	14.7 71	2.9 14	2.3 11	2.1 10	100.0 482	4.18

4) 비디오, 음반 등에 관한 정보	35.5	33.8	18.7	7.3	2.7	2.1	100.0	3.94
	171	163	90	35	13	10	482	
5) 공부방법 상담	38.0	27.0	22.2	6.4	4.4	2.1	100.0	3.89
	183	130	107	31	21	10	482	
6) 연극공연 및 영화상영 에 관한 정보	25.5	40.5	22.0	7.3	2.9	1.9	100.0	37.9
	123	195	106	35	14	9	482	
7) 청소년잡지, 만화, 교양도서 에 관한 정보	28.6	30.7	26.6	6.4	4.8	2.9	100.0	3.74
	138	148	128	31	23	14	482	
8) 성격상담	25.7	32.8	27.8	8.1	4.2	1.5	100.0	3.68
	124	158	134	39	20	7	482	
9) 여행정보	24.7	32.0	28.6	8.7	3.5	2.5	100.0	3.67
	119	154	138	42	17	12	482	
10)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22.8	36.1	23.2	10.2	5.8	1.9	100.0	3.61
	110	174	112	49	28	9	482	
11) 교육방송의 학습강좌	18.7	32.4	34.2	8.1	4.3	2.5	100.0	3.54
	90	156	165	39	20	12	482	
12) 이성문제 또는 성문제 상담	26.1	23.2	30.7	11.2	7.1	1.7	100.0	3.51
	126	112	148	54	34	8	482	
13) 청소년음악회 등 청소년 문화 행사에 관한 정보	20.3	32.4	28.8	10.4	6.0	2.1	100.0	3.51
	98	156	139	50	29	10	482	
14) 스포츠관람 및 각종 경기 기록에 관한 정보	23.4	26.3	29.5	11.8	6.2	2.7	100.0	3.49
	113	127	142	57	30	13	482	
15) 청소년시설(청소년회관, 야영장 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	22.8	27.8	27.2	15.1	5.0	2.1	100.0	3.49
	110	134	131	73	24	10	482	

16) 대중가수콘서트, 음악회 등에 관한 정보	21.4	27.4	32.0	11.8	5.0	2.5	100.0	3.49
	103	132	154	57	24	12	482	
17) 컴퓨터게임, 응용S/W, 기 기 등에 관한 정보	25.3	23.0	28.6	13.5	6.8	2.7	100.0	3.47
	122	111	138	65	33	13	482	
18) 자격증 소개	18.5	27.6	33.4	12.2	5.2	3.1	100.0	3.43
	89	133	161	59	25	15	482	
19) 건강·질병·약물에 관한 정보	17.2	30.7	31.7	11.8	6.6	1.9	100.0	3.40
	83	148	153	57	32	9	482	
21) 각종 취미 및 교양강좌·강 습회 관련 정보	12.9	28.0	38.0	14.5	4.6	2.1	100.0	3.30
	62	135	183	70	22	10	482	
22) 주말 또는 평일에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에 관 한 정보	14.9	27.2	32.8	14.1	8.9	2.1	100.0	3.25
	72	131	158	68	43	10	482	
23) 가족문제 상담	14.9	25.5	33.2	15.1	8.9	2.3	100.0	3.22
	72	123	160	73	43	11	482	
24) 각종 미술관·박물관 등의 전시회	11.2	24.5	40.7	16.2	5.6	1.9	100.0	3.19
	54	118	196	78	27	9	482	
25) 청소년단체의 회원가입 및 활동에 관한 정보	13.7	22.2	34.4	18.3	9.5	1.9	100.0	3.12
	66	107	166	88	46	9	482	
26) 가수, 탈렌트 등 연예인 등의 동정에 관한 정보	16.2	17.0	36.5	18.5	10.0	1.9	100.0	3.11
	78	82	176	89	48	9	482	
27) 청소년캠프 행사일정 및 참가 정보	13.1	19.9	35.1	19.1	11.2	1.7	100.0	3.04
	63	96	169	92	54	8	482	
28) 탈춤, 사물놀이 등 전통문 화활동의 공연 및 강습에 관한 정보	10.6	20.3	38.6	17.2	11.2	2.1	100.0	3.01
	51	98	186	83	54	10	482	

29) 오페라, 무용, 발레 등의 공연 및 강습 관련 정보	9.1	15.8	38.8	21.4	12.4	2.5	100.0	2.87
	44	76	187	103	60	12	482	
30) 유학정보	8.7	16.2	37.3	17.4	16.8	3.5	100.0	2.81
	42	78	180	84	81	17	482	

4) 결과의 논의

이상의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관련정보 활용실태 및 정보관심분야 조사결과가 청소년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청소년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 관련정보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정보가 필요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지도자 연수나 교육이 제시 되었다. 이는 수련활동 프로그램과 관련된 정보의 경우 구체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현장적용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청소년지도자들이 청소년관련 정보를 수집하려 할 때 어렵게 느끼는 문제로 지적된 ‘필요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가 적고, 어디에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지를 모른다’는 결과는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수하게 쏟아지는 자료들 가운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셋째,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의 정보관심분야를 조사한 결과에서 볼 때, 청소년정보를 활용할 주대상이 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청소년활동에 관계된 전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수련활동과 지도자연수에 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분

석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청소년정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정보의 정보영역분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보관심분야를 파악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바와 같이 학업과 진로, 음악, 비디오, 잡지, 만화 등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으나 정서 및 사회성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대한 관심은 별로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이 실제로 학업이외의 활동에 참여할 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라는 정보수요자를 대상으로 생각해보면, 청소년정보센터가 청소년의 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여야 하는 활동에 관한 정보 보다는 부담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정보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의 관심사항을 수시로 분석하여 반영하는 신속함을 유지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네제, 청소년정보센터의 정보제공 방법은 정보의 성격과 이용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청소년지도자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때가 많다. 이러한 정보는 지도자 연수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청소년정책의 변화 같은 정보는 통신이나 우편에 의하여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 된다. 한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서비스 방법은 청소년정보지를 발간을 중심으로 하고, PC통신을 통한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이 현재의 사회변화의 추세에 비추어 합리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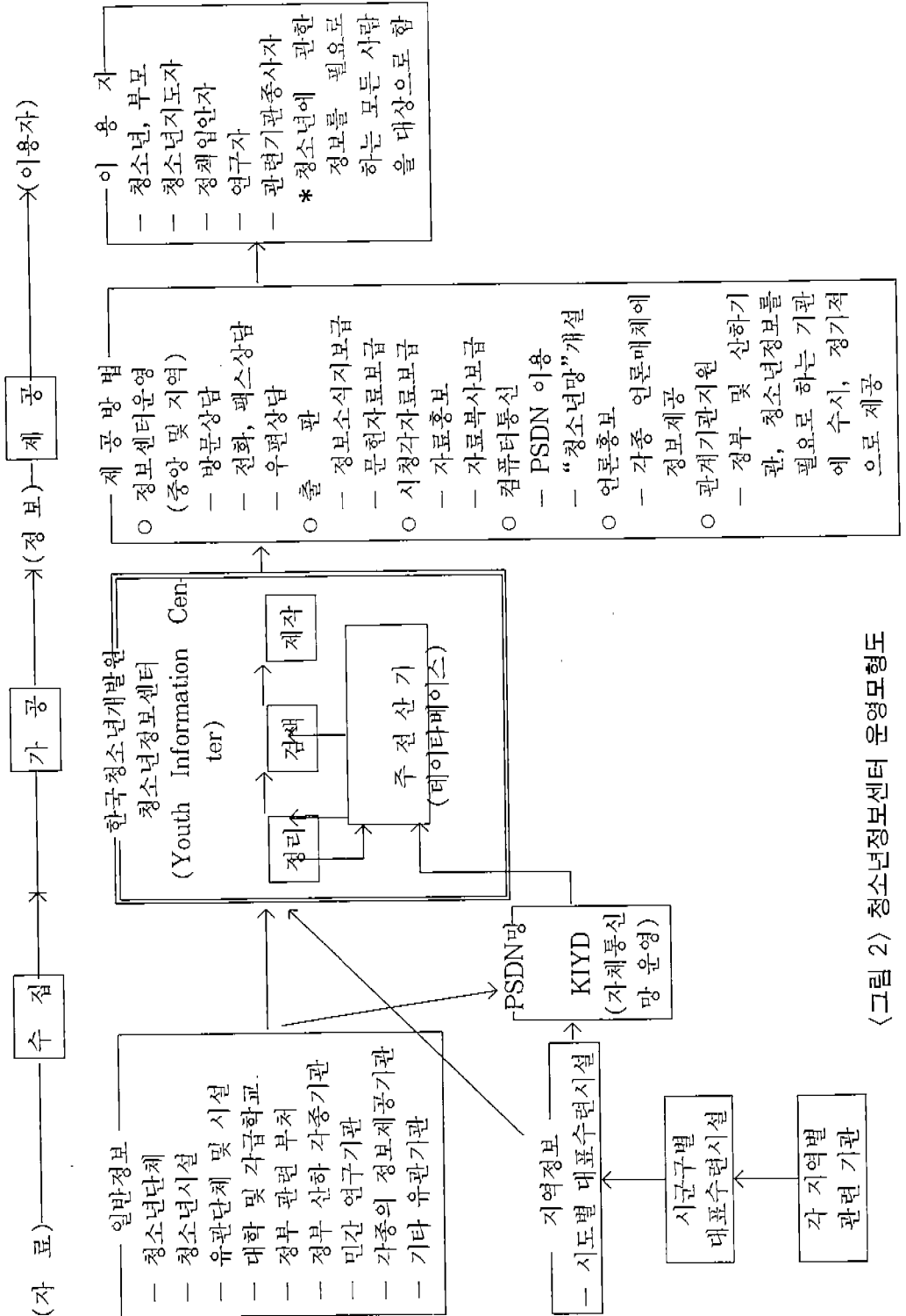
4. 청소년정보센터의 모형개발

1) 운영모형

(1) 운영체계 개요

청소년정보센터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형태의 정보센터와 그 개념이나 형태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정보의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이라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일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센터와는 실제적인 운영과정과 내용의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서의 정보 및 정보센터의 개념, 청소년정보의 현황과 사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청소년개발원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되는 모형은 하나의 제안이며 지속적인 연구와 실제적인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청소년정보센터를 설치한 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 모형은 대략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지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자료의 수집 → 자료의 가공 → 정보의 제공이라는 세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자료는 크게 일반정보와 지역정보로 구분하여 전국적인 정보수집망을 구성하도록 하며 수집과정에서는 문헌이나 기타 자료들을 관련 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통신망을 통해 수집하도록 한다. 이 때 통신망은 공중통신망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체적인 고유망을 개설하여 원하는 기관이 여기에 가입하여 개발원과 접속하도록 한다. 청소년정보센터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여 자료로서의 가치를 조사하며 선별하고 영역에 따라 구분하여 내용을 정리한다.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주전산기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며, 통신으로 수집된 자료는 다시 정리과정을 거쳐서 재입력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검색 과정을 거쳐서 정보자료의 형태로 제작되는데 여기에는 쉬트자료, 보고서, 자료집, 음반, 비디오, 슬라이드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들은 정보센터 방문과 자문, 출판, 컴퓨터통신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된다. <그림 2>는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는 정보센터 운영모형을 보여 준다.



〈그림 2〉 청소년정보센터 운영모형도

(2) 단계별 운영과정

앞에서 간단히 설명한 운영과정을 각 단계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자료의 수집단계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파악하여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된다. 청소년정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수집 영역은 우선 일반정보와 지역정보로 구분한다. 일반정보란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걸친 자료를 말하는데 <그림 2>에서 보듯이 매우 다양한 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단체정보의 경우 청소년단체협의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관련 연구물이나 통계자료는 정부산하 연구기관과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서로 필요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그리고 문화행사정보는 이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 협조하여 청소년부분에 대한 정보만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예를 들어 청소년관련 도서의 경우는 출판사에서 기발행된 도서나 신간 안내자료를 출판협의회를 통하거나 직접 보내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지역정보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에 규정된 각 지역별 대표수련시설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지역정보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청소년활동이나 시설 등의 자료로서 각 시군구의 관련기관을 통해서 각 시군구의 대표수련시설에서 이를 취합하고 다시 시도별 대표수련시설로 보내어 이를 정리하여 청소년정보센터로 보내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는 시간의 지연에 따른 문제로 정보의 가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거나 통신을 이용하여 시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직접 협력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수집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필요하며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정기간행물이나 월별 행사등은 정기적으로 수집하며 신속한 홍보를 요하는 정보는 수시로 조사하고 수집한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이미 정보자료의 수준으로 제작한 자료는 필요시 정보로 바로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집되는 자료의 형태는 문헌자료, 음반자료, 비디오 자료, 디스크에 보관된 자료 등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 통신을 이용한 자료의 수집은 신속성의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된다.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공중통신망(PSDN)인 01410이나 01420망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체망을 개설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01420은 데이콤의 전용회선이지만 이 망안에는 이외에도 여러기관에서 자체의 전산망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체 전산망을 개설하여 협력기관에서 이 망에 가입하여 자료를 전산망을 통하여 보낼 경우 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적합하게 보낼 경우에는 자료의 정리 과정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주전산기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전산기를 이용하도록 하고 이 전산망에 가입된 기관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주전산기에 입력된 각종 자료를 직접 검색하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자료의 가공단계

자료는 가공단계를 거쳐서 정보가 된다. 예를 들어 국민들의 보건생활을 알려주는 통계자료가 있다고 할 때 이 자료 자체가 청소년보건에 관한 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연령이나 청소년들의 생활 등 직접적으로 청소년과 연결된 자료로 표를 수정하거나 재편집을 해야 정보로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1993년에 본 개발원에서 발간된 [1993청소년지표]는 청소년에 관한 통계정보로서 매우 가치 있는 정보자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정은 자료에 대한 영역의 분류와 정리, 정리된 자료에 대한 검색, 그리고 검색된 자료를 정보자료로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최종 이용자들이 정보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i. 자료의 정리

우선 문헌 등의 각종 형태로 수집된 자료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한 후 청소년 정보 영역중 해당되는 영역으로 분류되어 정리된다. 영역의 분류란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자료의 관리 그리고 정보의 이용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며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영역을 가능한한 명확하게 분류하여 이용단계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실제로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명확하게 분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청소년과 관련된 영역은 사실상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어떠한 영역이라도 청소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련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 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자료가 2가지 이상의 영역에 공통으로 관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기존의 분류체계와 지나치게 상이할 경우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정보영역 분류체계의 설정은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동시에 일반적인 분류체계와의 연계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보를 가장 일반적인 분류체계인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라서 해당분야를 예시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기존의 도서 분류체계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혼란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방법은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한 정보를 찾으려는 이용자에게는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가 어떠한 항목에 있는지 비전문가로서는 쉽게 알 수가 없으며 청소년에 관한 정보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생각할 때 도서자료를 중심으로 한 분류체계로는 팜플렛 등 실제로 필요한 자료는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정보는 특수자료의 형태로서 나름대로의 분류체계를 필요로 하며 다만 국립중앙도서관등에서 이미 한국십진법에 따라서 분류된 자료는 그 분류기호를 첨부함으로써 다른 도서관에서도 자신이 검색한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의 분류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의 하나는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정보자료의 입력과정과 검색과정을 모두 고려해서 동일한 분류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기초자료로 수집된 각종 자료의 분류를 위해서는 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경우 뿐만이 아니라 그 자료를 검색하여 정보로 가공하고 다시 그 목록이 입력되어 그 정보를 최종사용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검색할 시점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용시점마다 분류형태가 다를 경우 관리자나 이용자 모두 혼란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운영과정의 모형도에는 기초자료의 입력을 위한 분류, 정리단계와 자료의 가공을 통한 정보의 제작을 위한 검색단계가 제시되어 있지만 정보의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실제의 운영에 있어서는 최종사용자들을 위한 기초자료 및 정보자료의 입력과 검색과정이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기초자료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는 최종사용자가 그 자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 또한 정보자료로 바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입력시 그 영역 분류틀은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청소년정보의 영역 분류틀과 동일하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료의 입력, 검색에 관한 내용은 가공된 자료로서의 정보의 입력과 검색도 동시에 고려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자료의 분류는 내용 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청소년정보 영역의 분류는 청소년이라는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각종 사회적 환경의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고, 학문분야에 따라서 그 영역을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단지 내용에 따른 분류이지만 그 자료가 어떠한 경우는 단행본으로 제작된 경우도 있고 또는 비디오로 제작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수련시설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팸플렛과 같은 형태로 제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정보는 그 내용 뿐만이 아니라 형태도 매우 중요하며 자료의 입력이나 검색과정에서는 내용 뿐만이 아니라 그 형태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따라서 자료의 입력과 검색을 위한 분류틀은 자료의 내용과 형태라는 두가지 요소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자료의 입력 또는 검색을 위한 분류틀을 설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료의 관리라는 측면 보다는 자료의 이용이라는 측면이다. 정보센터란 기본적으로 이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기관이다. 따라서 청소년정보의 영역분류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또는 모든 운영체제가 이용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서 청소년자료 또는 정보를 분류하여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자료를 조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청소년정보 영역의 분류에 대한 연구는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살펴 본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자료의 입력과 검색을 위한 자료의 분류틀을 자료의 내용과 형태라는 두 가지 기본 요건에 따라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번째, 자료를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방법은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구분하는 방법을 따르고자 한다. 영역 분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유네스코에서 발간한 청소년관계문헌목록집의 영역분류, 청소년백서, 문화체육부의 체육정보자료실의 구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관련 연구보고서의 구분(청소년관련문헌목록집 발간 사업보고서의 세목표, 청소년실태조사연구 등의 조사 영역등),영국 NYA의 분류체계,프랑스의 CIDJ의 분류, 일본의 청소년대책본부의 분류 등을 참고로 할 수 있다.

<표 10>은 본 연구에서 청소년정보영역의 분류를 위해 분석한 각종 분류틀의 대분류에 해당하는 영역을 비교한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영역 구분 역시 주로 주제에 따라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학문적인 배경과도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조차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제에 따른 기본영역을 설정하고 다시 각 기본영역 내에서 하위주제에 따라서 영역을 점차 세분화해 나간다.

기본영역은 <표 11>에서 설정한 바와 같이 기본 12영역으로 하지만 영역의 다양화에 따라서 더 증가될 수 있다. <표 11>에서 제시된 청소년정보영역(안)은 <표 10>의 청소년관련자료의 분류체계 및 부록에 제시된 각종 청소년자료의 분류틀을 참고로 하여 청소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제시된 12영역은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와 협의를 통하여 수정과 변경을 필요로 한다.

청소년관련자료의 분류체계의 비교

<표 10>

구분	프랑스	영		국		일본		한		국	
		NYA자료분류	청소년정보	문화정보	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청소년문헌정보
분류	교육	청소년일반	교육과 훈련	교육의 사회적 환경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청소년의 일반
	직업	행동 및 사회과학	가정과 인간관계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활동	문화와 인문과학	가정과 인간관계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평생교육	과학과 공학	가정과 인간관계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청소년의 직업
체계	사회생활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이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추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외국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체계	포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스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체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체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가정과 인간관계

* 자료의 출처(1993).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백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5), 청소년관계문헌목록집.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 청소년문제의 현상과 대책 (평성3년판 청소년백서).

한국청소년개발원(1989), 청소년관련문헌목록집발간사업보고서.

(1993), 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

CIDJ(1994), Les Publication du CIDJ Automne 93— Hiver 94, 1994.

(CIDJ :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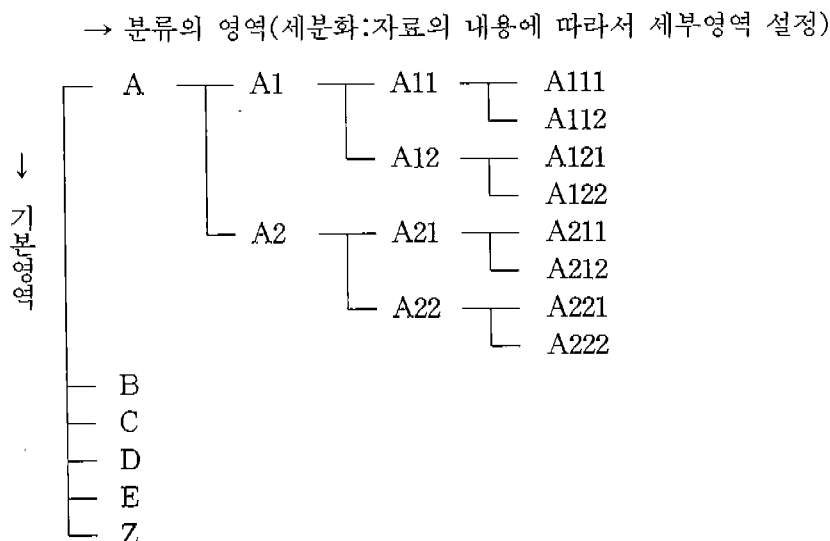
NYA(1992), Directory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NYA : National Youth Agency)

분 야	주 요 내 용
청소년일반	연감, 백서, 기본적통계서, 청소년인구현황, 청소년지표, 백과사전, 청소년관련행사(세미나, 캠프, 모임) 등
청소년의 심리	의식 및 태도 일반, 청소년의 의식(사회 의식, 집단 의식, 세대의식, 교육 의식, 노동 의식, 문화 의식, 종교 의식 등), 심신의 발달(신체, 정신, 성적인 변화 등), 성문제, 청소년의 고민, 청소년상담 등
청소년과 사회	사회문화현상 및 사회학 일반(사회체제, 사회규범, 사회화, 사회구조, 사회운동등), 정치, 경제, 종교, 일상생활일반, 지역사회개발, 청소년의 법적인 권리, 대중매체, 청소년문화 일반 등
청소년복지	사회복지일반,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요보호청소년, 복지시설 및 서비스, 지역사회복지사업, 장애청소년, 사회보장 등
청소년문제	사회문제일반, 청소년문제일반, 각종 문제행동(폭주족, 약물남용, 교내폭력, 등교거부, 성문제, 가출, 자살 등), 청소년유해환경, 범죄, 비행이론, 비행현황, 비행청소년의 처리 및 처우 등
청소년의 교육	교육학 일반분야(교육이론, 교육정책, 학교관리, 학습방법 등),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진학 및 학습정보, 사회교육, 학생생활일반, 각종 교육문제 등
청소년과 가정	가정생활, 가족관계, 가정교육, 가정경제, 가정환경, 주거환경, 문제 가정, 주거환경 등
청소년의 건강	청소년 건강문제 일반, 보건문제 및 보건서비스, 건강관리, 영양관리, 체력 및 체격, 각종 질병, 운동, 학교체육, 사회체육 등
청소년 활동	청소년활동일반, 각종 수련활동 프로그램(스포츠활동, 문화활동 등)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관련기관 등
청소년과 직업	직업종류, 취업안내, 취업상황, 직업훈련교육, 노동조건, 노동조합, 근로청소년의 대책 및 생활, 농어촌 청소년의 노동 등
청소년 정책	청소년육성정책일반, 청소년행정체계, 지역별 청소년정책 및 상황, 청소년관계법령, 정부 각부처의 청소년관련정책 등
청소년과 세계	청소년의 국제교류, 북한청소년 일반, 외국의 청소년정책, 외국의 청소년활동(시설, 지도자, 프로그램) 등

다음으로 기본영역별로 분류를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분야의 자료들을 대표할 수 있는 세부영역을 설정하고 여기에 그 분류 단계에 따라서 번호를 부여해나간다. 이는 십진분류법의 주류-강목-요목-세목의 단계와 유사한 체제이며 단지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여 관련 영역을 재편성하였으며 번호의 부여를 변경한 체제이다(〈그림 3〉참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부영역은 앞으로의 연구와 논의 그리고 실제적인 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그림 3〉 자료의 내용에 따른 분류



두번째로 자료의 형태에 따라서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로 구분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문헌학분야에는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 비도서자료란 시청각자료, 특수자료, 실물자료 등으로 불리고 있다. 즉 비도서자료란 ‘정보전달을 위한 도서 이외의 모든 자료를 통칭한 것으로 인간의 사상, 경험, 감정 등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도서의 형태가 아닌, 도서와 대칭되는 제반자료’(김남석, 1994)를 말한다. 예를 들어 소책자, 비디오자료, 오디오 자료 등은 비도서자료로 구분이 된다.

그러나 도서관의 도서자료나 기타의 자료 관리라는 입장 보다 청소년정보의 이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도서자료와 비도서자료 보다는 문자로 기록이 남아 있는 즉 인쇄된 자료와 그렇지 않은 기타의 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더 이용에 편리하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단체의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를 3~4페이지에 기술해 놓은 쉬트 자료는 인쇄물로 제작되며 이용자는 비도서자료로 보다는 인쇄물로 쉽게 인식하게 된다. 또한 패키지 형태로 되어 있는 파일자료, 묶음자료의 경우에도 글자로 인쇄된 형태를 쉽게 연상하게 되며 소책자를 비도서자료로 생각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자료의 형태는 인쇄매체를 이용한 인쇄자료와 기타의 다른 형태로 제작된 비인쇄자료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의 <표 12>는 다양한 자료의 형태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인쇄자료와 비인쇄자료별로 기호와 번호를 부여하여 자료를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2> 자료의 형태에 따른 분류

구분	인쇄자료												비인쇄자료											
자료 세부 형태	안내자료	전단자료	팜플렛	소식지	신문	정기간행물	일반논문	학위논문	소책자	묶음자료	연구보고서	단행본	슬라이드	사진	그림	도표	지도	오디오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영화필름	마이크로자료	컴퓨터디스켓	CD자료	통신자료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러한 자료의 내용과 형태를 모두 고려하여 자료를 분류할 때 다음의 <표 13>과 같은 정리가 가능하다. 수집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이 분류표를 따라서 형태를 분류하고 다시 제작된 정보자료도 그 목록을 입력할 때 이 표에 따라서 입력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우선 주제 영역을 찾고 그 영역에 속한 자료들이 어떠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편리하게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의 약물남용에 관련된 자료가 소책자, 연구논문, 단행본, 비디오자료, 슬라이드로 제작되었다고 하면 분류표에서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는

〈표 13〉

청소년정보의 입력과 검색을 위한 분류 기준틀

자료의 형태 자료의 내용			인 쇄 자 료										비 인 쇄 자 료															
			안 내 자 료	전 단 자 료	팜 플 레 트	소 식 지	신 문	정 기 간 행 물	일 반 논 문	학 위 논 문	소 책 자	무 음 자 료	연 구 보 고 서	단 행 본	슬 라 이 드	사 진	그 림	도 표	지 도	오 디 오 테 이 프	비 디 오 테 이 프	영 화 필름	마 이 크 로 자 료	컴 퓨 터 디 스 켓	C D 자 료	통 신 자 료		
기본영역		소 분 류																										
A	청소년 일반	A1	A11	A111																								
			A112																									
			A12	A121																								
B	청소년 심 리																											
C	청소년 과 사회																											
D	청소년 복 지																											
E	청소년 문 제																											
F	청소년 교 육																											
G	청소년 과 가정																											
H	청소년 건 강																											
I	청소년 활 동																											
J	청소년 과 직업																											
K	청소년 정 책																											
L	청소년 과 세계																											

해당 영역에 표시를 한다. 그리고 이 자료를 이용할 경우 청소년문제 영역에서 약물 남용에 관한 영역을 찾는다. 그리고 이 자료가 어떠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지 분류 표에서 찾아서 슬라이드 자료를 원할 때는 슬라이드 자료의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이용한다.

ii. 자료의 입력

그 다음으로 분류된 자료를 다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입력이 가능한 상태로 내용과 형식을 정리하여 주전산기에 입력하게 된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수집된 자료의 목록과 각 자료의 내용을 요약하여 입력하도록 하는데 그 메뉴의 구성양식은 자료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다음의 <표 14>는 자료의 유형별 프로그램 메뉴 구성요소를 보여준다.

<표 14> 청소년정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메뉴 구성요소

구 분	구 성 요 소
자료일반 (인쇄,비인쇄)	주제, 형태, 제목, 제작(출판)연도, 제작자(저자), 제작기관, 주요 내용(문헌자료는 목차 또는 초록), 소장기관, 이용방법 등
각종 행사자료	행사제목, 기간, 장소, 대상, 참가방법, 주요프로그램 등
기관(단체, 시설 유관기관)	연혁, 조직, 대표자, 주요활동, 보유시설, 이용 방법, 소재지, 문의처 등
수련활동 프로그램	활동유형, 대상, 기간, 주요 일정표, 프로그램 내용, 프로그램 실시 및 자료 보유기관, 문의처 등
지도자, 강사	활동분야별 강사 명단, 기관별 강사명단, 인적사항, 연락처 등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되는 정보 보다는 도서목록, 기관현황, 프로그램자료 등과 같이 지속성이 있는 자료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행사에 관련된 자료는 안내문과 통신망을 통해서 빠른 시간내에 입력된 자료를 이용

자에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통신망으로 수집되는 자료들의 경우에는 최초 입력시에 분류양식에 따라서 입력할 수도 있고, 기초적인 형태로 입력한 후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한 평가나 분류 등의 정리 과정을 거쳐서 다시 입력할 수 있다. 또한 정보로 제작된 자료들의 경우에도 다시 그 목록과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다. 즉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력 프로그램의 개발에 있어서는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입력과 동시에 최종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자료에 대한 입력도 포함하여야 한다.

iii. 자료의 검색과 정보자료의 제작

검색과정은 수집되어 정리된 자료나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자료들의 내용을 조사하고 홍보할 가치가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어떠한 형태로 만들어야 할지도 결정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교양도서 에 대한 내용을 조사하여 이를 정보화 할 경우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조사하고 관련자료를 출력하여 [청소년교양도서자료집]이라는 책자를 발간하든지 아니면 정기 간행물에 비교적 자세한 내용으로 1편씩 소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검색과정을 거치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니면 목록에 있는 책을 주제로 한 영화의 비디오 자료집 또는 비디오시리즈의 복사물을 제작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한다.

제작과정은 실제로 자료를 정보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다. 그 유형은 형태에 따른 정보의 유형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인쇄정보와 비인쇄정보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인쇄자료는 1페이지의 정리용 쉬트 자료에서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현실적인 측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므로 각종 인쇄자료의 출판업무는 특히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있는 내용 그대로를 제공하기 보다는 소책자나 쉬트자료를 영역별로 만들어 청소년,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요약, 정리하여 보급하는 방안이 보급에 유리할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비인쇄자료를 만들거나 수집된 비인쇄자료에 대한 목록집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정보자료는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그 목록이나

내용을 입력하여 최종사용자들이 그 목록을 검색하여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정보의 제공단계

정보의 제공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단계로 가능한 이용자가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하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과 지방에 청소년정보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방법이다. 영국의 경우에서와 같이 NYA에서 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는 주요 지역의 변화에 청소년정보센터를 운영하거나, 프랑스와 같이 중앙과 각 지역에 청소년정보센터를 운영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는 중앙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앞으로 지정될 지역별 대표수련시설이 지역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새로운 기관의 설립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기존의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안은 청소년기본법에서 한국청소년개발원과 대표수련시설에 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된다. 청소년기본법 제50조 1항에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청소년수련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대표수련시설은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정보를 한국청소년개발원과 교환하고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수련활동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며 한국청소년개발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지역 정보의 수집과 각 지역별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표수련시설은 생활권시설 가운데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타 기관과 연락체계를 갖출 수 있고 지역사회와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도심의 변화에 청소년들만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큰 규모의 센터를 운영하기는 어렵지만 좁은 공간이라도 청소년들의 기호에 맞게 시설을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경우 매우 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센터의 이용은

직접 방문에 의한 상담, 전화, 팩스, 우편 등을 통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출판물을 통하여 각종 자료를 인쇄자료화 하여 제공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1페이지의 쉬트자료에서부터 많은 분량의 보고서까지 유형은 다양하며 이를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한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행사에 관한 소식은 서울시청소년사업관에서 발행하는 [푸른소식]지와 같이 정기적인 잡지를 통해서 알리도록 하며, 정보센터나 기타 기관에 소장된 각종 자료에 대한 청소년관련자료의 목록집 발간을 통해 문헌에 관한 정보와 이용방법을 알리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문헌자료의 경우 가장 친숙하며 지속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보제공 수단이 된다.

셋째,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이를 복사 또는 대여를 통해 보급하는 방법이 있다. 자료의 내용에 관한 홍보자료를 만들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화필름, 비디오, 슬라이드자료, 사진자료, 음반 등 매우 다양한데 이러한 자료들은 활동자료로 많이 사용되므로 청소년활동기관에는 필수적인 자료이지만 비용이나 정보의 부족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정보 자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해 질 것이다.

넷째,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이다. 우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행사정보, 청소년시설정보, 상담정보 등을 제공하며, 지도자들에게는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가능한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아직까지는 컴퓨터 통신이 일반화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컴퓨터의 대중화에 따라서 이용자는 청소년들 뿐만이 아니라 부모 등 여러 대상으로 확대될 것이다. 컴퓨터 통신을 통한 정보의 제공은 정보의 제공 영역의 확대라는 점에서 매우 필요한 방안이다.

컴퓨터 통신은 우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자체망 보다는 기존의 통신망(천리안, 하이텔, 포스서브 등)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자체 전산망은 개발원의 전산망에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지만 기존의 통신망은 이미 대중화되고 있어 어느 곳에서든지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신망에 ‘(가칭)청소년정보마당’을 개설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이 정보 마당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몇 기관에서 청소년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청소년정보마당’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기존의 정보도 포함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망의 메뉴구성은 정보센터의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구성되는데 전체 데이터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의 빈도가 높고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언론을 통한 정보의 홍보와 제공이다. 주요한 행사는 신문이나 방송에 제공하여 보도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정보의 제공과 동시에 청소년에 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기회도 된다. 언론을 통한 홍보는 빠른 시간내에 많은 사람이 정보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다.

여섯째, 정부의 정책입안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정부산하 각종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이 기관에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청소년 정보를 다른 대상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다.

청소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이러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최종사용자들이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의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단점을 시켜야 한다. 이는 철저한 서비스 의식이 아니면 어려운 일이다. 최종사용자는 청소년과 관계되고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으로 한다.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부모, 교사, 연구자, 정책입안자 등 그 대상도 다양하다. 그러나 잘 조직된 정보와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는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관심의 제고를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2) 조직구성 모형

(1) 조직 구성의 조건

청소년정보센터가 효과적으로 운영 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체계적인 그리고 능률적인 조직의 구성이 요구된다. 자원의 활용정도는 조직의 구성 수준에 달려 있다

고 본다면 청소년정보센터 역시 일정한 체계를 갖춘 조직의 특성을 갖추어야 하므로 조직체계는 정보센터의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정보센터의 체계적인 조직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부환경의 조건과 외부환경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① 내부환경 조건

청소년정보센터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내부적으로 몇 가지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를 인적인 조건과 물적인 조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적인 조건이란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관련된 것이다. 어떠한 유형이든지 정보센터는 매우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다. 예를 들어 스포츠 정보센터라면 스포츠에 관한 전문성에 있어서 다른 어떠한 기관보다도 뒤떨어져서는 안된다. 기업의 경영에 관한 정보센터에서는 현장의 기업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정보센터도 청소년에 관련한 최고의 전문기관이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데 우선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즉 청소년전문가들에 의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와 정리 작업 그리고 정보의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정보제공의 측면에서 현장의 지도자나 관련자들에게 자신의 전문분야에 관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정보센터가 효율적으로 현장의 청소년활동을 돕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청소년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인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제공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전문사서, 출판에 전공하였거나 경력이 있는 출판전문가, 영상이나 음향 분야 경력이 있는 전문가 그리고 특별히 정보를 전산화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전산전문가는 필수적인 인적구성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자료의 수집과 전산입력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업무의 양과 영역의 다양함을 고려하여 수적인 측면에서도 적절한 수의 인원이 있어야만 한다. 정보의 수집과 제공은 수적

으로 매우 많은 인력을 요구하며 제한된 수의 인력은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게 할 것이다. 수행하는 기능과 분야 그리고 업무의 양의 따른 적절한 인원의 배분은 정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둘째, 물적인 조건이란 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말한다. 즉 자료를 저장하고 각종 보관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 공간등과 관련된 조건이다. 예를 들어 도서자료가 아무리 많더라도 이를 가장 좋은 형태로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도서자료는 의미가 없게 된다. 또한 전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자료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가 없다면 사실상 정보센터란 현실적인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점점 더 방대해지며 다양해지는 정보를 수작업으로만 정리할 수는 없으며 보다 빠르게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이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종 장비와 시설 그리고 공간에 대한 투자는 정보센터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되며 정보센터의 효율성을 결정짓는 조건이 된다.

② 외부환경 조건

청소년정보센터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인적, 물적인 조건이 잘 갖추어져야만 하지만 이와 함께 정보센터의 외부에서 지원을 담당할 수 있는 조건도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우선 정부, 특히 청소년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담당하는 문화체육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며 이외에도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처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청소년정보센터란 주로 청소년활동을 직접 담당하는 현장의 지도자나 청소년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자 또는 청소년 자신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센터의 기능은 결국 청소년육성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원체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금의 지원, 행정적인 협조, 정부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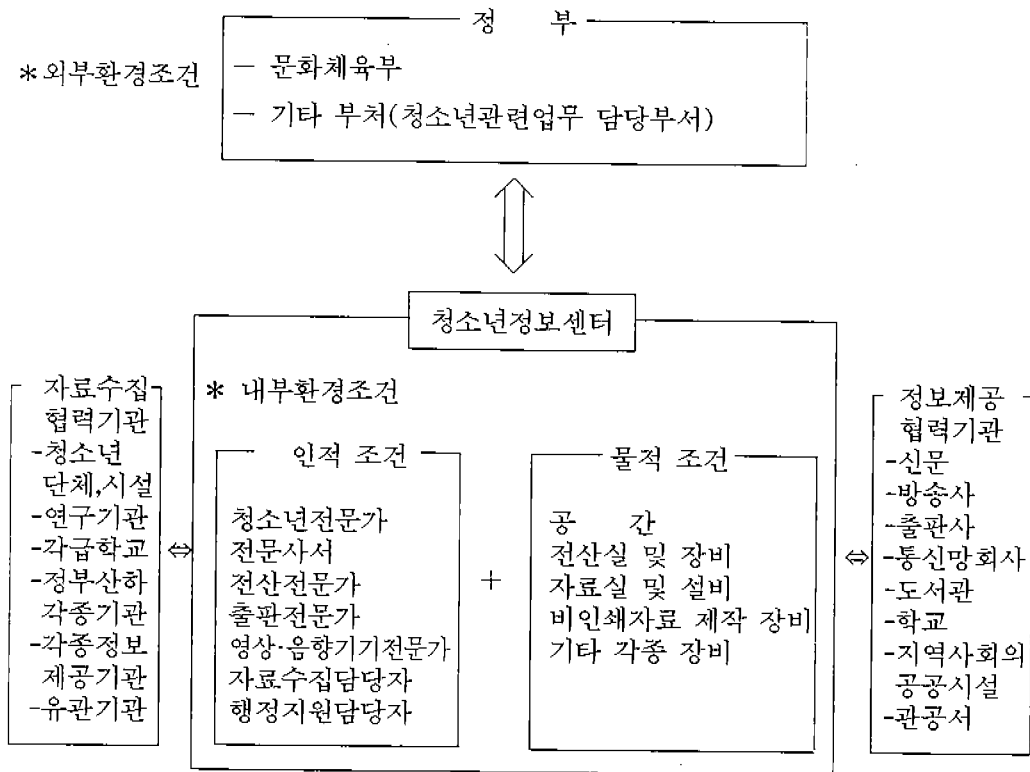
둘째로 자료 제공자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필요로 한다. 특히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시설과의 협력체제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활동의 중요 기반은 다양한 청소년단

체와 시설이며 각 단체와 시설에서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다른 단체나 시설에 소개 하며 청소년, 부모들에게 행사에 관한 정보를 알려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자신들의 기관의 중요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로 프로그램 정보를 공개하고 서로 공유할 때 전체적인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각 기관에도 더 이익이 된다.

각 청소년 기관에서 청소년정보센터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체제를 갖추는 것은 청소년현장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된다. 또한 이외에도 각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영화, 연극, 미술 등의 행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기관, 출판사, 도서관, 각종 사회교육기관 등이 있다. 정보는 시간과 함께 그 가치가 상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한 최신의 정보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과 협력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셋째로 정보의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언론 등에서 공개적으로 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알려준다면 다른 어떠한 통로보다도 정보의 전달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정보센터란 이용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서비스 기관이다. 그러나 이용자가 다른 유형의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 정보센터에서는 그러한 기관들과 실질적인 협력체제를 구성하고 각 기관에서는 청소년정보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보다 자세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적 그리고 외적인 환경조건은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4〉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한 환경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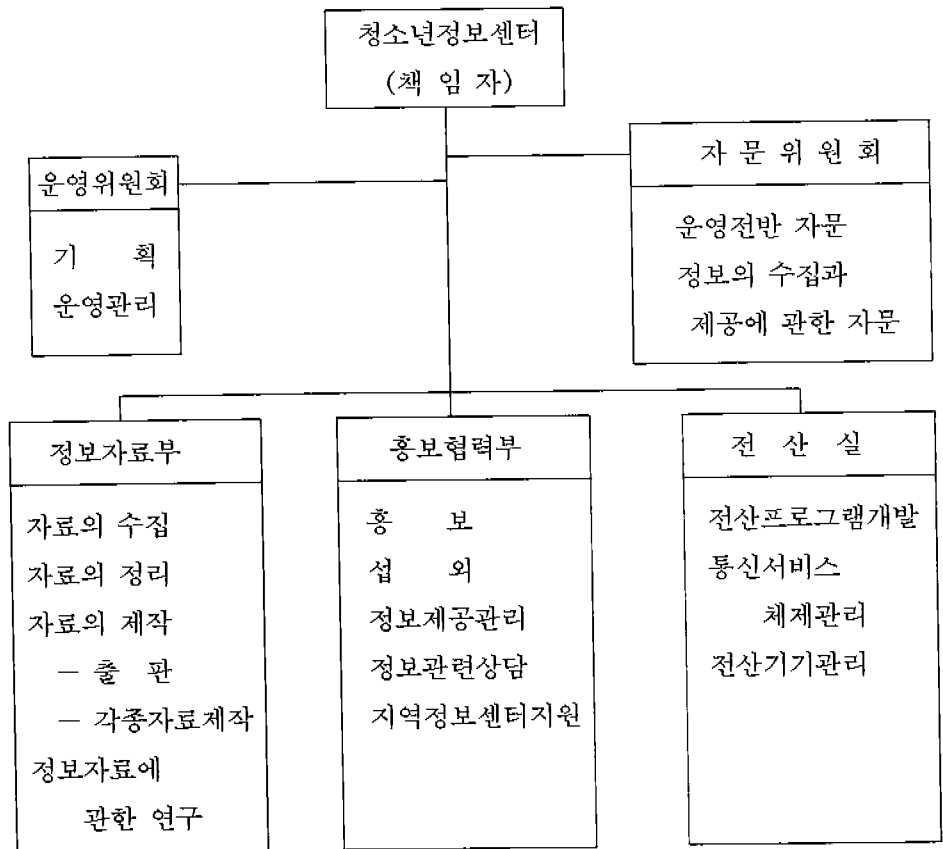
(2) 조직의 체계 모형

청소년정보센터의 내적인 환경조건을 인적인 조건과 물적인 조건으로 설명하였는데 여기에 기반을 두고서 구체적으로 정보센터의 조직체계에 대한 모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정보센터 또는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조직 모형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조직 구성요소는 자료의 수집과 가공을 통한 정보자료의 제작을 통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업무이다. 따라서 정보자료의 수집과 관리에 관한 업무와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를 지원하는 업무조직 예를 들면 행정적인 지원부서나 전산실과 같은 기술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도 필수적인 구성요소가 된다.

청소년정보센터의 설립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한

국청소년개발원에 설치한다는 전제하에 조직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1992년에 수행된 청소년수련활동전산뱅크제 연구에 따르면 발전 단계에 따라서 몇가지의 모델이 제시된다. 그러나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청소년에 관한 연구와 연수, 수련이라는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청소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정부와 각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맺는 것이다. 각 청소년단체나 청소년단체협의회 또는 시설연합회나 일부 기관 등에서 정보센터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담당하지만 청소년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기에는 자원, 인력, 다른 기관과의 협조 측면에서 어려운 형편이다. 청소년기본법에서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중요 기능으로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도록 하고 있어 청소년정보 제공은 법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중요 기능이 되고 있다.

다음의 <그림 5>는 청소년정보센터의 조직구성 모형 및 주요 업무이다.



<그림 5> 청소년정보센터의 조직체계모형도

① 자문위원회

이 위원회는 청소년정보센터의 자문을 담당하며 정보센터의 실무책임자, 전산 및 정보관련 전문가, 청소년분야의 연구자, 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 주요한 업무는 정보센터의 조직, 인원의 구성, 정보의 수집과 제공 등 청소년정보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을 담당한다. 특히 현장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며 이를 실무자와의 협의를 통해서 운영과정에 반영시키도록 한다.

②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정보센터 내부의 협의체로서 정보센터의 책임자와 정보자료부, 홍보협력부, 전산실의 부서별 책임자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계획, 예산의 편성, 인원 편성, 조직의 구성 등 전반적인 영역을 포괄하며 각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를 위한 지원을 한다.

③ 정보자료부

정보자료부는 기초적인 모든 자료의 수집에서 정보자료의 제작에 이르는 전과정을 담당하는 핵심부서이다. 이를 위해서 청소년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의 정보 자료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료의 영역 분류를 더욱 정교화 하며 이들은 수집된 자료에 대한 평가나 영역의 분류, 정리를 담당한다. 또한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로 제작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각종 정보자료의 집필과 제작을 담당한다.

자료의 수집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 통신 등의 방법이 이용되므로 수집과정에는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된다. 정보자료의 제작은 문헌자료는 출판에 의하므로 출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며 기타 영상자료나 음향자료등에서도 이 분야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수집된 자료나 정보로 가공된 각종 자료의 목록이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게 되므로 전산 입력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전산입력은 전산실의 전산전문가의

협력하에 실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되는 각종 정보자료는 자료의 영역별, 유형별 특징에 따라서 보관하며 이에 대한 관리를 담당한다.

④ 홍보협력부

홍보협력부는 정보센터의 대외적인 각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특히 정보자료부를 통해서 제작된 각종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업무로 한다. 이를 위해서 정보센터의 기능 및 활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기관을 섭외하고 관리한다. 그리고 정보가 전달되는 전체 체계를 관리하게 되는데 정보에 관련된 문의에 대한 청소년전문가의 상담이나 각종 정보자료의 보급, 통신서비스의 운영 그리고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한다. 또한 정보센터 이용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며 각 지역의 정보센터나 다른 기관에서 청소년정보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 방안에 관한 자문을 한다.

⑤ 전산실

전산실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관리, 저장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일이다. 정보자료부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개선해나가야 한다. 또한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자료의 수집과 정보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며 주전산기 등 각종 전산기기의 운영을 담당한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청소년 정보센터의 설립과 이를 통한 청소년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따른 내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소년정보센터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이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어 청소년정보센터의 설립에 대한 요구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소년기본계획과 청소년기본법에는 청소년관련 정보화의 필요성이 반영되어 있는데, 정보의 제공이란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청소년관련자료의 수집 및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정보를 구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가 적다’는 문항에 46.9%, ‘정보를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문항에 25.9%가 응답하였는데, 이는 청소년정보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청소년정보센터란 청소년이라는 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개발과 각종 프로젝트 수행에 직접 연결되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특수 도서관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업무담당자들의 정보요구에 따라서 이들이 정보를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자료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은 국가의 청소년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청소년정보센터의 운영이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되고 수행되고 있어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정보센터를 국가정책으로 추진할 경우, 설치방안으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기본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8조에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대표수련시설을 지정 운영하고, 개발원과 수련시설간을 연결하는 협력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수련활동 관련 정보의 교환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정보센터가 구체적으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직과 전문적인 인력의 투입이 불가피함으로 인하여, 현재의 개발원 인력과 조직으로는 청소년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개발원에서 청소년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새로운 영역의 업무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원의 인원과 재정의 추가확보와 조직개편을 통하여 현실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셋째, 광범위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분석 정리하여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관련 정보의 영역분류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수집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영역과 형태에 관한 사항으로, 청소년관련 정보의 영역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관련 전문적인 연구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그 형태에 있어서도 도서나 연구보고서 등 문헌자료에서부터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는 물론 새로운 정보매체로 각광받고 있는 마이크로필름 및 CD-ROM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넷째, 청소년정보센터에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종 정보생산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관련 정보의 생산기관으로는 청소년관련 연구단체, 청소년단체 및 수련시설, 문화체육부를 비롯한 각종 청소년관련 행정기관 등 직접적인 청소년육성기관은 물론이고 각종 언론기관, 기업체, 각급 학교, 각종 공연단체, 협의회 등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매우 다양 기관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정보생산기관들과 청소년정보센터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정보수집이 어렵게 된다. 특히 정보의 생명이 시한성에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청소년정보센터의 조직과 운영, 그리고 기능이 이용자의 편의 중심으로 조직화되어야 한다. 청소년정보센터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기관이기 때문이다. 정보센터의 최종적인 목적은 정보의 유통촉진에 있으므로 관리적인 편견이 서비스기능을 왜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보의 검색 및 제공방법이 이용자에게 편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여섯째, 정보서비스 방법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정보센터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을 통한 전산화된 정보의 제공이라는 측면만을 강조하기 쉬우나, 실제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방문자에 대한 상담, 자료를 제공하는 전통적인 방법에서부터 문헌자료의 배포, 컴퓨터통신망을 통한 정보서비스, 청소년지도자연수나 세미나에 이르기 까지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정보제공 방법의 선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정보학 및 통신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장기적인 계획하에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그 운영의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기 어렵기 때문에 효용성이나 가치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금물이다. 따라서 국가적인 청소년육성정책의 기초위에서 청소년정보센터의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수급을 위한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강석호 편저(1990), 정보체계론, 서울:박영사.
- 김남석(1994), 비도서자료, 대구:계명대학교출판부.
- 김동연(1990), 여성정보센터 운영의 활성화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렬·전태준 편저(1993), 정보화사회와 컴퓨터, 서울:정익사.
- 다니엘 벨, 서규환 편역(1992), 정보화사회와 문화의 미래, 서울:도서출판 디자인 하우스.
- 마상문(1993), 정보센터의 지원전략 및 성공적 운영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수련시설편람, 문화체육부.
- _____ (1993), 청소년백서.
- 박성호(1991), 전국의 전화기 및 단말기 보급현황 분석, 서울:통신개발연구원.
- 박준식·김정현(1992), 뉴미디어와 도서관,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사회과학연구소 편(1986), 정보화 사회,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성기덕(1994), 스포츠정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소영일(1990), 정보체계론, 서울:박영사.
- 유네스코한국위원회(1985), 청소년관계문헌목록집,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이경호 역(1990), 정보시스템론, 대구:대구대학교출판부.
- 이수성·이병섭(1991), 국가사회 정보화 5개년 계획, 서울:통신개발연구원.
- 이영숙 외(1993), 한국의 청소년지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영자·이경호(1993), 정보학개론, 서울:정각당.
- 이재원(1992), 정보시스템 성장단계에 따른 정보자원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종문(1992), CD-ROM 전자도서관 운영론, 서울:성광문화사.
- 일본뉴미디어개발협회 편, 정보마케팅본부 역(1993), 지역정보화 입문, 서울:산업기

술정보원.

장혜란·유재옥(1992), 정보문헌선집, 서울:구미무역(주) 출판부.

정보문화센터(1990), 정보통신이 세상을 바꾼다, 서울:정보문화센터.

_____ (1990), 정보화사회 수용도 및 정보화 정책평가 조사, 서울:정보문화센터.

정영미(1989), 도서관정보 전산화론, 서울: 구미무역(주) 출판부.

_____ (1993), 정보검색론, 서울:구미무역(주) 출판부.

조셉베커, 오동근 역(1993), 정보학의 첫걸음, 서울:구미무역(주) 출판부.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 청소년문제의 현상과 대책 (평성3년판 청소년백서), 동경:일본 총무청청소년대책본부.

최윤진 외(1989), 청소년관련문헌목록집발간사업보고서, 서울:한국청소년개발원.

최진탁(1993), 우체국의 지역정보 DB구축과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경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한국통신학회.

한국데이터통신(주)(1989), 2000년대 국민생활정보망 구축을 위한 연구 —종합계획—, 서울:과학기술처.

한국도서관협회(1993), 한국도서관통계, 서울:한국도서관협회.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1992), 지역정보화 실태 및 수요 조사, 서울:한국정보문화센터.

한국정보산업협회(1984), 정보화 사회에의 길, 서울: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87), 청소년활동프로그램백과, 서울: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CIDJ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1994), les Publication du CIDJ Automne 93 — Hiver 94, Paris:DIDJ.

Kenneth E. Dowlin, 최석두 역, 전자도서관, 서울:구미무역(주) 출판부.

Michale E. D. Koenig, 정영재 역, 도서관 및 정보센터 예산계획 기법연구, 서울:아세아문화사.

NYA(National Youth Agency)(1992), Directory of Information for Young People, Leicester:NYA.

_____ (1993), Annual Report 1992—1993, Leicester:NYA.

Peter White(1994), Information Shops in Action, Leicester:Youth Work Press(NYA).

William A. Katz, 노옥순·김효정 공역, 참고서비스와 참고과정, 구미무역(주) 출판부.

(부 록 1) 청소년관련 자료의 분류

1. 프랑스 청소년정보문헌센터

(CIDJ: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Jeunesse)

분류번호	분 류 체 계		
1	교 육	1.0-1	교육
		1.3	중등교육
		1.4	공학교육
		1.5	농업교육
		1.6	고등교육
		1.7	원격교육
2	직업연수 : 직업과 활동영역	2.0	행정
		2.1	농업
		2.2	예술분야의 직업
		2.3	상업과 무역관계
		2.4	스포츠와 문화적인 교육활동
		2.5	법과 경제
		2.6	문학, 인문과학, 정보와 통신공학
		2.7	건강과 간호
		2.8	과학과 기술
			: 기술학교-통계학, 지구과학, 물리학, 생물학, 생화학, 화학, 기계공학, 건축, 전기전자공학, 운송, 기타분야
3	고 용		
4	평생교육		

분류번호	분 류 체 계		
5	사회생활	5.1	일상생활
		5.2	주거
		5.3	가정생활
		5.4	건강증진
		5.5	인간적인 의무
		5.57	프랑스에서의 외국인
		5.58	장애인
6	여 가	6.0	설 비
		6.1-8	활 동
7	휴 가	7.1	문화적인 휴가
		7.2	스포츠 휴가
		7.3	체류와 휴가시설
		7.4	18세이상을 위한 조직적인 체류
		7.5	프랑스 여행
		7.6	외국과 연계된 체류
		7.7	프랑스 국내와 외국을 경유하는 여행
8	외 국		
9	스포츠	9.0	일반-장비
		9.1	육상과 신체적인 활동
		9.2-3	구기 종목
		9.4	격투기 종목
		9.5-6	기계장치이용, 하늘, 산에서 행해지는 운동
		9.7-9	자연환경을 이용한 운동

*1993년 봄에서 1994년 가을까지 출판된 자료집을 참고로 소분류의 목록을 보여주는 사례를 소개한 것이며 소분류의 번호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계속 세분화 함. 따라서 여기에서 설명한 소분류가 전체분류체계는 아님. (예, 1-1.0→1.01→1.011)

2. 영국의 국립청소년국(NYA : National Youth Agency)

1) 자료실의 일반적인 자료의 분류 체계

분류기호	분 류 체 계		
A	청소년 일반 행동 및 사회과학		
B/R			
B		교육	
C		통신 및 정보	
D		정치학	
E		법학	
F		경제학	
G		행정학	
H		노동경제학	
I		심리학	
J/R		사회과학 분야	
J			사회과학 일반
JB			사회학
K			인문환경
L	문화와 인문학		사회적 관심사
M			사회복지
N			개입치료
O			상담
P			지역사회와 지역사회사업
Q			청소년 및 지역사회서비스
R			지역사회서비스
T/W			
Y		문화	
U		역사, 철학, 윤리학과 종교	
V		여가	
W		예술, 철학	
X/Z			
XA	과학과 공학	과학과 공학 일반	
XE		과학	
Y			생명공학
Z		공학	
2/9	보조 목록		

2) 청소년정보의 영역분류

분류번호	분 류 체 계		
1	교 육 (Education)	1.1	기본적 기능
		1.2	대 학
		1.3	가정에서의 학습
		1.4	학 교
2	고용과 훈련 (Employment and Training)	2.1	취업 상태
		2.2	구직 안내
		2.3	훈련 계획
		2.4	직업 종류
		2.5	실업
		2.6	자원봉사활동
3	환 경 (Environment)	3.1	동물권과 보호
		3.2	지역별 활동
		3.3	세계적인 문제
4	유 럽 (Europe)	4.1	유럽 공동체
		4.2	유럽에서의 휴가
		4.3	유럽에서의 활동
5	가족과 관계 (Family and Relationship)	5.1	아동보호
		5.2	가족과 인간관계
		5.3	가족 지원
		5.4	사랑과 성
6	보 건 (Health)	6.1	다이어트와 운동
		6.2	마약
		6.3	보건 문제
		6.4	보건 서비스
		6.5	정신건강과 휴양
		6.6	여성보건

분류번호	분 류 체 제		
7	주 택 (Housing)	7.1 7.2 7.3 7.4 7.5	가사 목록 가정에서의 독립 임차인의 권리 주택의 유형 청소년과 무주택
8	정의와 평등 (Justice and Equality)	8.1 8.2 8.3 8.4 8.5 8.6	범죄 인종문제 차별문제 법적인 권리 정치 종교
9	금 융 (Money)	9.1 9.2 9.3 9.4 9.5 9.6	국민보험의 급부 부채 기금조성활동 금융관리 상인의 권리 세금
10	스포츠, 여가, 여행 (Sports, Leisure and Travel)	10.1 10.2 10.3 10.4 10.5	영국의 휴일 해외여행과 활동 여가 스포츠 교통

3. 일본 총리부 청소년대책본부

1) 청소년문제에 관한 문헌집의 분류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A	사 회	A1	사회체제	자본주의체제
		A2	법	헌법/민법/형법
		A3	사회규범	사회도덕/성도덕/아노미
		A4	사회사상	
		A5	사회구조	산업구조/인구구조/연령별인구구조/학력 별인구구조/학교교육인구/지역적인구구 조/인구동태생활구조/사회계급
		A6	사회문제	청소년문제일반/지역문제/도시화/과소과 밀/도시문제/농산어촌의 문제/벽지/인구 문제/베이비붐/환경문제/자연파괴/교통 문제/차별문제/사회병리/기타문제/풍기
		A7	풍속유행	별남/성의 해방
		A8	사회개발	지역개발/경제개발/해외협력환경대책/
		A9	사회보장	사회복지/사회보험/의료공중위생
		A10	청소년대책	청소년행정재정/청소년보호육성조례
		A11	국민운동	청소년육성국민운동
		A12	사회운동	정치운동/반전운동/공해투쟁,주민운동/ 여성해방운동
B	의 식	B1	의식구조	가치구조
		B2	사회의식	세계의식/국가의식/지역의식/집단의식/ 대인의식 행동/세대의식/계급의식/정치 의식/법의식/권리의식,의무의식/도덕의 식/공공의식/죄악감/범죄의식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B3	가족관	가족의식/모친관/부친관/예절관/결혼관
		B4	교육의식	학교관/면강관/진학관/아동관/교육관/ 학력의식
		B5	노동의식	근로관/직업관
		B6	문화의식	여가관/기호관/스포츠의식
		B7	인생관	생활의식/자기개념/미래관/성의식/성행동
		B8	종교의식	
		B9	가치의식의 행동적 측면	사회참가
		B10	성인의 청소년관	
		B11	의식전반	
C	심 신 의 발 달	C1	정신발달	지능/사고/기억/언어발달/감정정서/본능 욕구/의지의욕/인성 성격검사
		C2	신체발육발달	신체발육/기능발달/체력/성적 성숙/성차 /영양
		C3	질병, 상해	전염병/소화기질환/근골질환/호흡기질환 /비뇨기질환/내분비질환/순환기질환/감 각기질환/신경질환/피부질환/영양대사/ 장해/손상/사고
		C4	건강관리	건강상담/건강진단/예방접종
		C5	정신위생	카운셀링/부적응행동/정신위생센터
		C6	장 애	신체장애(자)/정신장애/중증 심신장애/심신장애의 대책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D	가 정	D1	가정의 역할	
		D2	가족관계	가족형태/양친/친의역할/친의권위/친의 태도/친자관계/형제관계/조부모와 손자의 관계/가정환경
		D3	가족교육	가정학습/정조교육/성교육/예절교육/교육방침/교육태도
		D4	가정의 직업	봉급생활자/자유업/자영업
		D5	가정경제	교육비
		D6	가정행사	
		D7	교 제	친척교제/이웃교제
		D8	주택환경	농산어촌/도시
		D9	문제가정	결손가정/유수가정/맞벌이가정/빈곤가정/갈등가정/부도덕가정/범죄가정
E	학 교	E1	교육이론	교육사상/교육론
		E2	교육정책	교육법/교육제도/의무교육/교육행정
		E3	학교관리운영	입학/졸업/전교/휴학/유년/퇴학/휴학/학교오일제/학칙위반/상/벌/학교사고/학급경영광보활동/학교시설/교육환경/학교후원회
		E4	학습지도	학습지도요령/교육과정/교과지도/학습지도법/교재/도덕교육/근로교육/성교육/종교교육/정조교육/공해교육/환경교육/특별활동/학교행사/학급지도/교육효과
		E5	생도지도	아동생도의 이해/가정방문/학교카운셀링/학교부적합/문제행동/진로지도/생활지도/교외생도지도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E6	교 사	교사의식/교사의 지도성/교사의 지도태도
		E7	사제관계	단절
		E8	생도의 생활	교우/놀이
		E9	기숙제교육	
		E10	정시제교육	야간중학/정시제고교/야간대학
		E11	통신제교육	
		E12	과소과밀교육	과소교육/과밀교육
		E13	동화교육	
		E14	대 학	대학대중화/대학관리운영/학생부/입학/ 졸업/전부/유학/유년/퇴학/휴학/별/학교 사고/교육과정/사제관계/학생생활/학생 운동/대학개혁
		E15	유아교육	유아교육사상/유치원교육/보육놀이/유아 교육시설/부적응아/보모
		E16	영재교육	
		E17	해외근무자 자녀 교육	일본인학교 해외귀국자녀교육학급
		E18	재일외국인 교육	
		E19	수험체제	준비교육/예비교육/진학교실/학습열
F	직 장	F1	취로산업	취학산업/제일차산업/제이차산업/제삼차 산업/기업규모/직종/고용형태
		F2	노동시장	노동력/고용/구직/취직/노동력이동
		F3	노동조건	노동시간/임금/휴가/취업규칙
		F4	직장적응	직업적성/직장정착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F 5	경영관리	생산성향상/노무관리
		F 6	직업교육	직업훈련/기업내무실
		F 7	노동위생	노동환경/노동재해/직업병
		F 8	노동조합	노동조합운동/노동조합의 활동
		F 9	근로청소년 대책	노동기준법/직업안정/근로 청소년복지
		F10	농산어촌의 노동	농산어촌청소년육성대책/농산어촌의 협 동조합/농림어업의 경영/농산어촌의 노 동조합
G	문 화	G1	생애교육	생애교육론/생애교육계획/시민강좌/학교 개방강좌/방송교육
		G2	사회교육	사회교육위원/청년학급 강좌/각종학교/ 전수학교/사회통신교육/국내연수/사회체 육/사회교육시설/근로청소년집/체육시설 /청년관/아동관/아동유원/아동도서관,실/ 공원/야외활동시설/국민숙사/국민휴가촌 /유스호스텔/학교시설의 개방
		G3	문화활동	아동문화/청년문화/문화운동/매스컴
		G4	여 가	여가론/여가이용
		G5	지 도 자	사회교육전문직원/유지지도자/지도자양 성/지도법
		G6	단체활동	집단론/지역조직활동/청소년단체활동/집 단활동/종교활동/농촌청소년의 집/집단 활동/회의법
		G7	국제교류	국제이해/국제친선

분류번호	분 류	소 분 류 체 계 및 내 용		
H	비 행	H1	비행이론	비행개념/비행원인(외적요인)비행심리 (인적요인)
		H2	비행현상	
		H3	문제행동	거짓말/흡연/음주/불량교류/불순이성교 류/가출/폭력/가정내폭력/교내폭력/폭도 족/학대
		H4	범 죄	특별법범/형법범/집단범/과격범/재범
		H5	범죄방지 비행방지	범죄방지/비행방지대책/비행방지화활동
		H6	처리 처우	소년법/조사/감별/처분/처우/갱생보호
Z	세 계	Z1	일 본	북해도지방/동북지방/관동지방/중부지방 /근기지방/중국지방/사국지방/구주지방/ 충송지방
		Z2	해 외	아메리카/유럽/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 니아

* 소분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더 자세한 영역으로 분리됨

2) 청소년관계문헌목록의 항목 내용

대 항 목	소 항 목
청소년문제일반	연감 백서 기본적 통계서 심의회답신위원회보고 등 청춘론 기타
청소년과 사회	인간문제 사회이동 도시화(과밀,과소) 지역개발 산업개발 경제문제 정보화 근대화 정치 복지일반 아동복지 가족복지 기타
청소년의 의식	의식, 태도 일반(활동태도를 포함) 세계관, 사회관(연대감, 인종관, 편견을 포함) 예절 생활기술 대인관계에 관한 의식, 태도 자기태도 인생관(삶의 보람, 고민, 욕망, 인격을 포함) 범죄 비행 문제행동에 관한 의식, 태도

대 항 목	소 항 목
	종교에 관한 의식, 태도 성 결혼에 관한 의식, 태도 도덕에 관한 의식, 태도 미술 예술에 관한 의식, 태도 가정생활(부모포함)에 관한 의식, 태도 학교생활(교사포함)에 관한 의식, 태도 직장생활에 관한 의식, 태도 생활의 행동적 측면(습벽, 언어, 행동 등) 기타(아동심리학, 사회심리학)
청소년의 건강과 신체	건강, 건강관리 신체적 성장, 사춘기 체력, 운동능력 학교체육 사회체육 비만아 병허약자 정신위생 자살 질병일반 정서장애 자폐증 심신장애일반 시력장애 청력, 언어장애 정신박약 지체부자유아 기타

대 항 목	소 항 목
청소년과 가정	가정교육 친자형제 가족관계 가정환경 성격형성 물질적 금지 모자가정 아동상담 현대의 자 열쇠아이 가출, 유동가족 요보호아동 기타
청소년과 학교	학습의욕, 학력형성 학업부진 생도지도일반 교교분쟁 진로지도 도덕지도 생활지도 교육상담 등교거부 독서지도 순결교육, 성교육 학교보건

대 항 목	소 항 목
	교통안전교육 공해교육 유아교육일반 취학전 교육 장애아의 교육 영재교육 정시제도교육 통신제 교육 학생생활일반 학생론 후생보도 학생운동 교육의 미래, 학원의 미래 과속, 과밀교육 동화교육, 해방교육 해외근무자 자녀교육 학습열, 준비교육 기타
청소년과 직장	노동력 이동 일반 취직, 채용 취로상황 일반 근로조건 직업관, 직업의식 직업교육 직장적응

대 항 목	소 항 목
	이전직 노무관리 정착대책 연소노동 노동조합 농산어촌의 노동 기타
청소년과 여가	사회교육일반 청년학급 청년기 아동회 동아리, 집단 교우 여가이용 학습활동 취미, 오락활동, 창작활동 봉사활동 지도, 지도자국제교류 기타
청소년과 환경	환경정비일반 시설 청년의 집 지역조합활동 매스콤의 접촉 공해 풍속유행생활권 청소년문화일반 아동만화 청년운동 기타

대 항 목	소 항 목
청소년의 비행	비행일반 비행원인, 요인 일반 인격특성 가치관가정의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동기 범죄현상일반 성범 폭력범, 조폭범 재산범 약물이용 교통사범 문제행동 검사 자척 보도, 발견 처우일반, 갱생 갱생시설(교호원을 포함) 소년원 조사, 감별 사례연구, 카운셀링 치료 범죄방지, 비행방지 기타
청소년의 미래상	현장 기타
기타	청소년행재정, 대책일반, 대책각현사정 기타

3) 청소년문제의 현상과 대책(일본의 청소년백서)

분 류 체 계(목차의 부-절 체계)		
청소년의 현황	청소년의 인구	청소년인구의 현상과 추이 청소년인구의 동태 청소년인구의 지역분포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청소년의 건강 청소년의 안전
	청소년의 교육	학교교육인구 학교교육조건의 정비상황
	청소년의 노동	청소년노동력 인구 청소년의 취업상황 신규학교졸업자의 취직상황 이직상황 노동조건
	청소년의 비행, 기타의 문제행동	개설 형법범소년 촉법소년(형법) 도로교통법위반등 문제행동의 제형태 - 폭주족소년 - 약물남용 - 교내폭력 - 가혹행위 - 가정내폭력 - 불량행위 - 성의 일탈행위 - 등교거부 - 가출 - 자살

분 류 체 계(목차의 부—절 체계)

청소년에 관한 국가의 시책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및 총합조정 청소년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공 청소년육성 국민운동 청소년의 비행방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 체력만들기 국민운동
	청소년 건전육성사업	개설 학습활동의 장려 단체, 그룹활동의 촉진 문화활동의 장려 체육, 스포츠의 보급과 진흥 건전육성시설의 정비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확보
	가정에 관한 시책	가정교육의 진흥 가정아동 건전육성사업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 가정의 복지 모자보건의 추진 심신장애의 복지대책 아동수당

분 류 체 계(목차의 부—절 체계)		
	학교교육에 관한 시책	유치원교육의 진흥 의무교육의 충실 고등학교 교육의 진흥 고등학교의 충실과 개혁 전수학교, 각종학교의 진흥 해외자녀교육, 귀국자녀교육의 충실
	직장에 관한 시책	신규학교 졸업자의 고용에 관한 시책 근로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시책 청소년노동자의 직업능력의 개발 에 관한 시책 농산어촌 청소년의 육성에 관한 시책
	사회환경의 정비에 관 한 시책	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의 인권보호 청소년의 사고방지대책
	소년의 비행방지와 비 행소년의 처우	개설 소년비행의 방지활동 비행소년의 처우
	국제교류에 관한 시책	개설 청소년의 국제교류

4. 한국의 청소년관계자료 분류 사례

1) 문화체육부

(1) 정보자료실의 청소년관련자료의 분류체계

분 류 번 호	내 용
334.245	청소년범죄문제(비행청소년 선도)
334.3	아동 청소년문제
334.6	청소년대책, 정책, 일반사항
334.7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프로그램
334.8	청소년시설 자원
334.9	청소년 기타사항 (심리, 복지)
334.10	청소년 조사연구 홍보
334.11	청소년 국제교류
334.12	청소년 사회환경
336.5	근로청소년
339.5	청소년단체
370	학교교육
378.9	가정교육

(2) 청소년백서(1993)

분 류 체 계 (부 - 장 - 절)		
청소년현황	청소년인구	청소년 인구현황 청소년 인구추이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특성 개황 출생 사망 혼인 청소년인구의 이동 개황
	청소년인구의 동태	가족의 변동 및 해체
	가족구성	청소년의 체격 청소년의 체력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청소년의 건강	

분 류 체 계 (부 - 장 - 절)		
청소년의 교육	청소년의 안전	교통사고 수난사고 및 동반사고 산업재해
	학교교육인구	개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각종학교 및 기타학교
	학교교육조건	학교규모 및 교직원 학교교육비
	학교교육의 중점추진 시책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실업교육 과학기술교육 특수교육 학생생활지도
청소년과 근로	고용구조	개요 청소년의 취업상황 청소년 취업정책
	신규졸업자 취업상황	개황 중학교 졸업자 진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상황 신규졸업자 취업대책
	근로조건	임금 및 근로시간 근로청소년 특별보호
	근로청소년 활동지원	문화활동지원 근로청소년의 기능 증진 농어촌청소년 활동지원

분 류 체 계 (부 - 장 - 절)		
청소년활동	수련활동	개황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보급 청소년수련활동 사업 청소년문화진흥 청소년과학활동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활동 중추시설 건립 공공 및 민간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관련시설
	청소년지도자	개황 청소년육성업무관계자 현황 청소년지도자양성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연수 농어촌청소년지도자 연수
	청소년단체	현황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단체별 활동
청소년복지	가정의 교육기능 강화	가정의 의의 가정의 자녀지도 강화
	사회환경개선	학교주변 환경개선 대중매체의 개선 청소년 유해환경 정비
	어려운 청소년 지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저소득층자녀 지원
		기타 어려운 청소년 지원

분 류 체 계 (부 - 장 - 절)		
청소년비행	청소년상담활동	상담활동 현황 청소년대화의 광장 시도 청소년상담활동 청소년단체의 상담활동
	청소년비행의 현황	개황 청소년비행의 동향 청소년비행의 예방
청소년교류	청소년비행의 예방과 처리	비행청소년의 법적 처리 비행청소년의 교정교육
	청소년국제교류	개황 국제협력 및 증진교류 국가간 이해 및 우의 증진 교류 국제감각 증진교류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 기타 청소년 국제교류
청소년육성 기반 조성	청소년국제행사 및 남북한교류	청소년 국제활동 프로그램 사업 남북청소년교류 기반조성
	청소년관련기구 강화	청소년육성위원회 청소년관련행정기관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기본법 제정 청소년육성 재정 기반 확충 개요 국민토론회개최 청소년육성 토론 및 심포지움 개최 대한민국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육성 유공자 포상
	청소년관계법령 정비 및 재정기반 확충	
	청소년육성 국민의식 제고	

2)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헌목록집의 분류(1985)

분 야	내 용
청소년의 심리구조	가치관, 의식구조, 심리적 특성
청소년의 단체활동	청소년단체, 서클활동, 과외활동, 학생운동, 청년운동, 현실참여, 리더쉽
청소년의 생활과 복지	오락, 이성교제, 교우관계, 청년문화, 복지문제, 풍속 및 유행, 각종 실태조사
청소년의 비행과 선도	비행, 범죄, 이탈, 선도, 지도, 상담
청소년과 가정	가족관계, 가정교육, 가정환경
청소년과 학업	교과과정, 교육제도, 학습입시문제, 교육환경, 대학과 대학 생, 학풍
청소년과 직장	직업교육, 취업지도, 작업환경, 산학협동
청소년의 대책 및 정책	교육정책, 청소년 대책 및 정책, 조례, 법규, 사회규범, 사회구조
세계의 청소년	해외 청소년 일반(북한 청소년 포함)
기 타	상기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성교육, 종교)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단체협의회 분류(1987)

분 야	내 용
교양교육 프로그램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일반사회인으로서 필요한 기본적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
기초교육 프로그램	의무교육의 연장교육, 계속교육, 기초보습교육으로서의 기본적 지식교육
직업기술훈련 프로그램	직업기술습득, 직업개발, 경영관리, 기술 기능의 재교육
자아개발 프로그램	두뇌개발, 언어활동, 창의성개발, 성취동기육성, 잠재력개발, 가치관정립, 종교교육, 진로교육, 인간관계개선, 자연 체험활동 등
가정생활 프로그램	생활윤리, 예절, 충효, 의식주에 관한 프로그램 등
시민생활 프로그램	공중도덕교육, 집단생활훈련, 정치의식교육, 시민권교육, 지도력훈련, 노동교육, 협동조합교육, 자유교육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자연보호, 지역사회 이해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고아원이나 보육원 방문, 일선장병위문활동, 기타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나 각종 캠페인의 참여활동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친교, 취미, 오락, 체육활동, 문예, 창작, 예술활동, 기타 레크리에이션활동 및 여가활동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전통문화 이해 및 활동 프로그램 등
심신수련 프로그램	극기훈련, 모험훈련 등
국민의식개발 프로그램	국민정신교육, 민족 애족교육, 국사교육, 국민윤리교육, 환경교육, 통일안보교육, 새마을교육, 경제교육, 호국 수련프로그램 등
국제이해 및 평화교육	각종 국제교류 프로그램

4) 한국청소년개발원

(1) 청소년관련문헌목록집 발간사업 보고서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000	총 류			
010		도서관, 서지학		
020		도서관학 및 정보과학		
030		백과사전		
040		일반논문집		
050		일반수차간행물		
060		일반학회, 단체 연구조사기관		
070		신문,잡지		
.432				경제란
.433				사회란
.434				가정란
.436				스포츠란
.438				문예란
.485				아동신문
080	철 학	일반전집, 총서		
090		향토자료		
100				
110		형이상학		
130		철학의 세계		
140		경학		
150		아시아철학, 사상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160		서양철학		
170		논리학		
180		심리학		
183			발달심리학	
.1				유아심리
.2				아동심리
.3				청년심리
184			이상심리학	
.7				의욕의 이상
185			생리적 심리학	
.3				정신위생
186			임상심리학	
.1				면접법
.2				적응과 부적응
.3				상담 및 진단
190		윤리학		
191 .1				가치론, 덕론
192			가정윤리	
.3				자녀에 대한 부모 의 책임
.5				아동훈
.6				부녀훈, 내훈
193			국가 및 정치윤리	
.1				시민
194			사회윤리	
.1				예의
.2				사교
.3				우정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195	종 교		직업윤리일반	오락윤리 운동윤리 공연윤리
196			오락 및 경기윤리	
.1				
.2				
.8				
197			성윤리	정조 금욕 매음 음서, 음화
.1				
.2				
.3				
.4				
199			도덕훈, 교훈	인생훈 청년훈
.1				
.5				
200				대청소년포교, 설 교, 불교사회사업
210		비교종교		
220		불교		
225			포교, 전도, 교육, 교화활동	
.25				대청소년포교, 설 교, 주일학교 기독교사회사업
.8				
230		기독교		
235			포교, 전도, 교육, 교화활동	
.25				대청소년포교, 설 교, 주일학교 기독교사회사업
.78				
.8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240	사회과학	도 교		철학 및 이론 사회과학방법론
250		천도교		
280		회 교		
290		기타 제종교		
300				
1.				
.11				
301			사회사상	
.09				사회사상사 및 운동사
310				
319		통계학	인구통계	
320				
326		경제학	공익사업	교육방송 라디오방송 방송국제 텔레비전방송
.737				
.74				
.759				
.76				
330		사회학, 사회문제	사회학	사회사, 사회체제 근대사회, 시민사회, 자본주의체제
.9				
.904				
331				
.09				사회학사
.1				사회심리학
.12				집단행동방식
.13				사회통계 및 사회화
.132				사회통계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138				사회화
.14				선전
.15				여론
.16				군중심리
.17				지도성
.18				인간관계
.2				사회집단
.23				세대(연령별)사회 집단
.24				제1차(소)집단
.25				제2차집단
.26				비조직집단
.43				농촌사회학
.47				도시사회학
.5				문화,문화과정
.54				사회변동
.9				사회조사
332			사회조직 및 제도	
.2				가족
.22				결혼, 혼인
.23				부부관계
.24				부모, 자녀관계, 친자관계
.27				가족과 사회변동
.274				산업화와 가족
.28				가족제도의 붕괴
.4				민족사회학
.48				혼혈아문제
.6				사회계층, 계급, 신분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334			사회문제	사회정책 사회보험일반 사회병리 빈곤문제 성문제 및 성교육 매음,공사창,인신 매매 간통,강간,성범죄 반사회집단,폭력 문제 범죄문제 청소년범죄문제 음주문제 아동, 청소년문제 (일반) 전쟁과 사회문제 전쟁고아문제 자살, 정사문제 기타 사회문제
335			생활문제	생활문제 지역적 생활문제 농촌생활문제 도시생활문제 여가 주택문제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336			노동문제	
.1				노동정책 및 행정
.2				노동관계
.22				고용
.25				실업
.3				노동조건
.33				임금
.4				노동운동
.42				노동조합
.5				소년노동
.6				부녀자노동
.7				이동근로자
.9				기타 근무자문제
337			여성문제	
.3				부인해방
.4				부인(여성)의 법적 지위
.5				가정부인
.6				여성의 직업
338			사회복지	
.061				적십자
.1				사회사업
.12				사회안전보장계획
.13				사회복지사례활동
.14				사회교화사업
.15				정부복지활동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17				개인복지활동
.18				가정복지활동
.2				재해구호사업
.3				불구자원호
.31				의료복지사업
.4				생활보호
.48				생활의 법적 보장
				문제
.5				아동복지
.9				지역사회복지사업
339			사회단체	
.4				여성단체
.5				청소년단체
.7				폭력단체
.9				기타사회단체
340		정치학		
.2				정치사상
350		행정학		
.22				국무총리, 내각
.241				법무부
.271				보건사회부
.281				문교부
.285				문화공보부
.7				경찰행정
.76				사법경찰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359			지방자치 및 행정	
360		법 학		
361			국제법	
362			헌 법	
363			행정법	
364			형 법	
.41				범죄행위론
.3				형사정책
.4				범죄학
.68				소년원
.721				소년범죄대책
.722				여성범죄대책
.727				매음범죄대책
365			민 법	
.56				이혼관계
.57				친자관계
.578				양자
.579				파양
.58				친권, 후견보좌
.6				상속법
367.16		교육학		
370				
.1				교육철학 및 이론
.11				교육학방법론
.13				교육사회학, 교육과 문화, 교육과 사회
.139				지역사회와 학교
.18				교육심리학, 교육적 환경학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183				교육측정, 검사
.19				교육사상사
.199				비교교육
.71				교사양성
.72				교육연구소
.8				교육론
.88				도덕교육, 종교교육
				순결교육(정조 교육)
.9				교육사
371			교육정책 및 행정	
.01				교육정책의 일반 이론
.9				교육재정
.93				장학금, 대여장학금 육영재단, 기부금 교육보조금, 융자
372				학교행정 및 경영 보건 및 교육 지도
.1				학교시설, 설비
.2				학급경영
.3				학교행사
.44				학교보건 및 위생
.48				학교체육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5				학생생활
.54				기숙사문제
.56				학생단체
.6				교육지도
.61				교육상담
.62				생활지도
.68				직업교육 및 지도
.69				레크리에이션지도
373			학습지도, 교육방법	
.3				시청각교육
.5				현장학습
.51				교외연구
.52				견학, 시찰
.53				조사
.6				공동학습 및 특별 교육활동
.7				학습평가
374			교육과정	
375			유아 및 초등교육	
.1				유아교육, 취학전 교육
.15				보육학교
.16				유치원
.2				초등교육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376			중등교육	중학교교육 고등학교교육 실업교육 외국인학교,재외 한국인학교
377			대학, 전문, 고등 교육	각국의 고등교육 및 대학교육 고등교육 및 대학의 일반적 문제 학생,학생생활, 학생문제 학생조직,학생운동 고등교육과정 초급대학 종합대학교 및 단과대학 대학원 학위 학위논문초록집 학문 및 연구장려 장학금, 대여장학금 기부금, 보조금, 유학비원조, 융자, 연구기금 전문직교육
.5				
.6				
.7				
.9				
.01				
-07				
.1				
-.3				
.25				
.256				
.4				
.5				
.6				
.68				
.69				
.698				
.7				
.73				
.9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378			사회교육	성인교육 부인교육 집회학습, 시청각 교육 집단학습, 서어클 활동 공민관 통신교육기관, 독학 독학 교화운동 가정교육
379			특수교육	불구자교육 정신박약아교육 천재교육 불량아교육, 문제아 교육
380		풍속, 민속학		
382			가정생활의 풍습	아동생활의 풍습 부녀자생활의 풍습
.2				
.3				
383			사회생활의 풍습	
384			관혼상제	
385			예의작법	아동예법 청년예법
.1				
.2				
386			축제, 연중행사	
389			민족학	
390		국방, 군사학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400	순수과학	의학	부인과, 산과학, 소아과학 위생학, 예방의학	아동위생 사춘기위생				
500	기술과학							
510								
516								
517								
.372								
.373								
522								
.6								
.63								
.65								
590	예술				가사,가정학	농업경제	농가경제 및 농촌 조사 농촌인구 농촌생활	
591								가정관리, 가사관리
598								육아
600								
613								공공건물
.7								
.8								
.85								
617								주택건물
.5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650	어학	회화, 도화	주제별 회화	아동초상화			
654							
.55			만화, 삽화	아동용 그림			
657							
.7			음악	음악사회학 음악회와 독주회 프로그램 음악심리학 학생 및 교가			
670							
.13							
.78							
671.18							
673.7							
679					국악		
680		연극, 영화, 대중연예					
685			무용 라디오 텔레비전극 영화 대중연예				
686							
687							
688							
689							
690						오락, 운동	
691					오락 체육,스포츠		
692							
.3		체육사회학 체육심리학					
.8							
700							
710			한국어	독본, 해석, 회화			교과서
717							
.2							

분류번호	주 류	강 목	요 목	세 목
800	문학	한국문학	시 희곡 소설 수필 연설, 웅변 일기, 서간, 기행 풍자 프로로타르 및 기타	동요 아동극 동화
810				
811				
.8				
812				
.8				
813				
.8				
814				
815				
816				
817				
818				
820		중국문학		
830		일본문학		
840		영미문학		
850		독일문학		
860		프랑스문학		
870		스페인문학		
880		이탈리아문학		
890		기타 제문학		
900	역사	아시아	한국	여인 아동
910				
911				
980		지리		
990		전기		
.94				
.95				

* 한국십진분류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자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목록을 선정함

(2) 한국청소년의 실태와 문제(1991)

분 류	내 용
청소년인구와 가족	가족구조, 가족관계, 가족의식
청소년과 교육	교육기회, 교육인구, 교육여건, 교육재정
청소년과 노동	고용구조, 노동환경, 근로의식
청소년과 여가문화 활동	문화예술환경, 문화예술활동, 여가활동, 대중매체, 교우 관계 및 고민거리
청소년의 건강과 보건	체력과 체위, 사고와 질병, 의료시설과 건강, 건강관리
소년비행	소년비행의 현황, 소년범죄의 동향, 청소년의 범죄피해
청소년의 사회 국가의식	사회주의, 국가의식

(3) 한국의 청소년지표(1993)

분 류	내 용
인 구	인구추이, 출생과 사망의 구조, 인구구성, 인구분포 및 이동
가구, 가족	가구구성, 주거환경, 가정경제, 가정생활, 가족해체
교 육	학생현황, 교육기회, 교육여건, 학교생활, 교육재정
노 동	노동인구, 노동이동, 노동조건, 노동환경
건강, 보건	체격, 영양건강관리, 질병 사망
문화, 여가	여가시간 및 비용, 문화생활환경, 문화여가활동
복 지	요보호인구, 복지시설 서비스, 복지자원
비행, 범죄	비행 범죄의 원인, 비행 범죄의 동향, 비행소년의 특성 비행 범죄 대책

〈부록 II〉 설 문 지

청소년지도자의 청소년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우리 개발원에서는 청소년육성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부모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은 연구자료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1. 귀하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세)
2. 귀하의 성별은 ? ___ ① 남 ___ ② 여
3. 귀하가 청소년지도 또는 육성업무 종사하신 경력은 얼마입니까? (년)
4. 귀하의 직종은 어떠한 것입니까?
___ ① 학교교사
___ ② 청소년관련 공무원
___ ③ 청소년상담요원
___ ④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자
___ ⑤ 기타()

5.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

① 개인 또는 민간법인체에서 운영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③ 기 타 ()

6.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청소년단체

② 자연권수련시설

③ 생활권수련시설

④ 유스호스텔

⑤ 청소년상담실

⑥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⑦ 행정기관

⑧ 기타 ()

7. 귀하가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이름을 적어주시십시오.

()

8. 귀하가 근무하시는 곳에서 청소년수련활동을 지도할 때 주로 담당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① 수련활동 직접 지도

② 상담 및 생활지도

③ 활동기획 및 운영총괄

④ 행정 관리 및 지원

⑤ 기 타 ()

9. 귀하의 근무형태는?

- ___ ① 자원봉사
___ ② 정규직원
___ ③ 기 타 ()

10. 귀하의 학력은?

- ___ ① 고 졸
___ ② 전문대졸
___ ③ 4 년대졸
___ ④ 대학원졸(석사학위) 이상

11.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하시면서 새로운 정보나 자료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___ ① 수련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해
___ ② 청소년 상담을 위해
___ ③ 청소년 이해를 위해
___ ④ 새로운 기능을 배우기 위해
___ ⑤ 기타 ()

12. 청소년 정보나 자료는 어떠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것이 활용에 가장 편리하신지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___ ① 문헌자료
___ ② 카세트테이프
___ ③ VTR자료
___ ④ 컴퓨터통신 자료
___ ⑤ 음성정보시스템
___ ⑥ 지도자연수 및 세미나
___ ⑦ 기타 ()

13. 귀하가 청소년관련 자료를 구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한가지만)

- ___ ①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
 ___ ② 찾은 정보가 직접 활용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___ ③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정보가 적다.
 ___ ④ 내가 찾은 정보중 시간이 오래지나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것이 많다.

14. 다음에 나열된 청소년관련 정보영역중 귀하가 평소에 관심이 있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영 역	매우 관심 있다	관심 있다	보통 이다	관심 없다	전혀 관심 없다
1) 학습/진학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2) 진로/취업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3) 약물/건강/성교육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4) 수련활동 프로그램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5) 수련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정보	⑤	④	③	②	①
6) 수련활동시설 및 청소년단체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7) 청소년관련 세미나, 학술모임 정보	⑤	④	③	②	①
8) 청소년수련활동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관련정보	⑤	④	③	②	①
9) 외국의 수련활동 관련 정보	⑤	④	③	②	①
10)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교육관련 정보	⑤	④	③	②	①
11) 청소년수련활동 및 시설 관련 법규 및 제도	⑤	④	③	②	①
12) 청소년관련 문헌, 시청각 자료	⑤	④	③	②	①
13) 청소년의 취미/여행 활동 관련 정보	⑤	④	③	②	①
14) 청소년을 위한 공연/연극/도서 등의 정보	⑤	④	③	②	①
15) 청소년사업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받을 경로	⑤	④	③	②	①

청소년관련 정보의 수집과 활용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우리 개발원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여러분이 평소 생활에서 필요한 정보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 설문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이 설문지는 연구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응답자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의 의견을 솔직히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4. 8.

한 국 청 소 년 개 발 원

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2. 귀하가 다니는 학교는 무엇입니까?

___ ① 중학교

___ ② 고등학교(인문계, 실업계)

3. 귀하의 학년은? (학년)

4. 귀하의 살고있는 거주지는? (구)

5. 귀하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직업을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어주세요?

(아버지의 직업 : _____번, 어머니의 직업 : _____번)

보 기

- | | | | |
|---------------|---------------|-----------|-----------|
| 1) 농림어업직 | 2) 자 영 업 | 3) 판매서비스직 | 4)기능직,작업직 |
| 5) 사무직,기술직 | 6) 관리직,경영자 | 7) 전문직 | 8)무직 |
| 10) 아버지가 안계신다 | 11) 어머니가 안계신다 | | |
| 12) 기타 | | | |

6. 귀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까?

___ ① 가지고 있다.

___ ② 없다.(7번으로 가세요)

6-1. 귀하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종은 무엇입니까?

___ ① 286급

___ ② 386급

___ ③ 486급 이상

6-2. 귀하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___ ① 학교학습

___ ② 프로그램개발(게임, DB개발 등)

___ ③ PC통신

___ ④ 오락

___ ⑤ 기타

6-3. 귀하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은 하루평균 얼마입니까?

(시간 분)

7. 귀하는 PC통신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___ ① 이용하고 있다.

___ ② 이용하지 않는다. (8번으로 가세요)

① 거의 매일 이용한다.
② 주 3회정도 이용한다.
③ 주 1회정도 이용한다.
④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① _____

② _____

① _____

② _____

___ ① 전혀없다.
___ ② 1~3회 정도
___ ③ 4회이상

① 그렇다 (단체명은:)
② 아니다

10. 다음은 여러분이 평소 생활하시면서 접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를 나열한 것입니다. 각 정보들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필요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보 영 역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 대학 및 학과 정보	⑤	④	③	②	①
2) 직업 및 진로 정보	⑤	④	③	②	①
3) 자격증소개	⑤	④	③	②	①
4) 유학정보	⑤	④	③	②	①
5) 취업/아르바이트 정보	⑤	④	③	②	①
6) 학습자료	⑤	④	③	②	①
7) 교육방송의 학습강좌	⑤	④	③	②	①
8) 공부방법 상담	⑤	④	③	②	①
9) 건강 질병 약물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0) 성격상담	⑤	④	③	②	①
11) 이성문제 또는 성문제 상담	⑤	④	③	②	①
12) 가족문제 상담	⑤	④	③	②	①
13) 청소년시설(청소년회관, 야영장 등)의 이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4) 청소년단체의 회원가입, 활동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5) 청소년캠프의 행사일정, 참가방법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6) 주말 또는 평일에 참가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7) 각종 취미 및 교양강좌 강습회 정보	⑤	④	③	②	①

정 보 영 역	매우 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없다	전혀 필요없다
18) 연극공연 및 영화상영 정보	⑤	④	③	②	①
19) 각종 미술전시회, 박물관전시회 등의 정보	⑤	④	③	②	①
20) 대중가수 콘서트, 음악회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1) 오페라, 발레, 무용 등의 공연 및 강습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2) 탈춤, 사물놀이 등 전통문화활동의 공연 및 강습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3) 청소년음악회, 청소년문화제 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행사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4) 가수, 탈렌트 등 연예인의 동정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5) 스포츠 관람 및 각종 경기기록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6) 여행정보	⑤	④	③	②	①
27) 스포츠활동 참가 정보	⑤	④	③	②	①
28) 청소년잡지, 만화, 교양도서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29) 컴퓨터 게임, 응용소프트웨어, 기기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30) 비디오, 음반 등에 관한 정보	⑤	④	③	②	①

11. 귀하가 필요한 정보는 어떠한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송이용
② 신문, 잡지에 게재
③ 청소년정보지 발간
④ 컴퓨터 통신
⑤ 기타 ()

청소년 전화상담의 효용성 제고방안 연구

— 피상담자의 통찰력 증진방안을 중심으로 —

연구자: 노 혁

목 차

I. 서론	167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167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69
II. 이론적 논의	171
1. 전화상담의 특징	171
2. 인간과 언어	173
3. 언어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무의식과 지각의 문제.....	176
4. 청소년의 언어특성	183
III. 상담사례분석	186
1. 분석과 통과 방법	186
2. 상담사례분석	188
IV. 결론 및 제언	199
참고문헌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방향

전화상담이란 무엇인가? 면접상담에 비해서 많은 제한적 요소가 내포된 전화상담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상담의 본질과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화상담은 어떤 위치를 가지며, 스스로 독특한 형식과 전략을 가질 수 있는가? 또한 청소년들에게 전화상담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같은 일련의 질문은 전화상담은 무엇이며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로 집약될 수 있다.

우선 전화상담은 무엇이며 그 존재의 의의는 있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은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전화상담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담의 한 방법으로 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시도가 상담의 한 형태로 전화 상담을 활발하게 이용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사실은¹⁾ 전화상담의 사회적 가치와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전화상담은 스스로 어떤 독특성과 효용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가능한가?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본 연구는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언어 그리고 상담자와 피상담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전화상담이 유용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단순히 전화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착안되어 시작한 전화상담이 부딪친 문제는 의사소통에 있어 완벽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상담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것이 전화상담의 단점을 드러내는 요소이지만, 실제 이 단점은 장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라디오와 TV 극의 비교를 통해서 전화와 면접상담

1) 청소년대화의 광장이 실시한 국내 상담기관실태조사에서 301개의 대상기관 중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 전체 60.9%로 나타났고 이 중 사회상담기관의 73.2%가 전화상담실을 설치하고 있었다(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 138, 157 참조).

의 특징의 한 면을 알 수 있다. 라디오 극의 성우 목소리는 청취자에게 자기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스스로 그리는 세계로 빠져들게 한다. 즉, 자기와 극중 인물이 동일시될 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자기의 像이 그 인물에 투영된다. 반면 TV극에서의 연기자의 표정과 말투는 시청자에게 라디오 보다는 훨씬 쉽게 있는 그대로 자기를 연기자의 성격과 행동에 몰입시키지만 제시되는 像 이상의 상상을 불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소리언어는 의사소통에 있어 완전한 요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자기 내면과의 관계속에서 심리적 상황을 전환시키거나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는 작용을 한다. 또한 비언어적 표현이 배제된 이 상태는 자기은폐와 연관을 갖는다. 이렇듯 ‘보이지 않음’은 피상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주어진다. 이 현상은 상담관계에 있어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전기가 된다.

전화상담에서 상담자와 피상담자 사이에 완벽한 의사소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같은 곤란은 전화상담이 즉시성과 단절성이라는 특징을 나타내는 데서도 찾을 수 있다. 전화상담의 경우, 피상담자는 상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도중에 상담을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떤 부담도 받지 않는다. 또한 피상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나 감정이 유발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전화상담에는 의사소통의 근본적 장애요인이 상존한다. 이런 한계를 도외시하고 면접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그 효과와 기능을 설정한다면 실패를 거듭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면 상담의 본래 기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전화상담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할 때 전화상담의 효용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이 물음의 답은 역설적이지만 전화상담이 갖는 한계인 소리언어의 사용에서 찾아야 한다.

상담에서 언어는 개체간의 의사소통 interindividual communication의 도구이며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상담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 이는 전화상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언어의 또 한가지 기능을 상정해야 한다. 즉, 개체내의 소통 intraindividual communication기능이다. 전자는 언어의 사회적 면모이고 후자는 개인적인 그리고 특히 인식적인 특성이다. 감각자료가 인지과정에서 재체계화된다고 하지만, 불가불 인지는 언어의 표상작용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조명환, 1985 : 30).

전화상담에서 언어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내적 통찰력의 증진과 관련이 깊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할 수 있을까? 언어는 닫혀있는 형식적 체계이다. 언어가 사고를 지배할 수 없다면 사고는 언어를 지배하는가? 일련 의문의 여지도 없어 보이는 이 말에도 함정이 있다. 사고를 어떻게 정의하고 개념화할 것인가이다. 만일 사고가 의식적 활동영역이라면 위 말은 타당하다. 그러나 사고의 범위를 무의식과 전의식으로 확산시키면 위의 말은 거짓을 내포한다. 이러한 단서에 동의하면서 여기서 언어는 무의식적 사고영역을 의식화시키는 요소인 동시에 무의식적 영역의 통제능력을 강화시키는 통찰력 부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가정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전화상담은 이같은 언어라는 수단을 활용하여 피상담자(개체)의 통찰력을 얻게하는 의도적인 노력이라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어적 표현이 지시나 의미 그리고 타인과의 의사소통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내적 사고를 형성하고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주요한 역할을 한다는 경험적 사실을 기초로 전화상담의 효용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현대 언어학자인 촘스키가 제시한 언어의 무한체계는 이 사실을 기본적으로 입증해 주지만 그의 이론은 언어의 문법구조의 틀이라는 선행요건을 제시함으로써 그 논리를 그대로 검증의 결과로 삼기에는 적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화상담의 측면에서 언어와 사고 그리고 인간과 그의 무의식 존재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론적인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분석의 틀을 만든 후, 전화상담의 사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본다.

이 검증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화상담이 갖는 한계성을 독특한 특징으로 전환시키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의식의 발전과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언어만을 활용한 상담의 유용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전화상담이 소리언어만 사용하는 상담방법인 것 착안하여 발전적 상담기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바, 본 연구자가 갖는 언어의 사회, 심리적 연구에 대한 보

다 깊은 지식의 미비와 오해 그리고 전반적인 상담과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부족은 물론, 충분한 사례를 분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소년 상담에서 중요한 상담자의 언어활용과 기법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전화상담이 독특성 나아가 청소년들의 발달심리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한 상담의 한 형태²⁾일 수 있다는 기초적인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하는 언어의 개체내 의사소통의 문제는 언어와 관련되는 현대의 철학, 심리학과 언어학 자체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그들 학문이 실천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관점에서든 몇가지 논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 2) 사실 엘리스 Ellis의 합리적 심리치료이론은 본 연구와 유사한 접근방법을 갖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는 인간의 신체적 행동이나 감정은 사고 또는 신념의 소산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는 사고와 정서는 내면화된 자기대화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자기대화에 의한 사고 없이도 정서가 존재할 수 있으나 사고에 의해 유발되지 않은 정서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그는 인간의 문제행동은 감정에 의해서 형성되고 유지된다고 보다는 개인의 비합리적 사고에 의해서라고 한다. 그의 이론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고와 신념이 행동에 미치는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속에서 상담의 과정과 피상담자의 자발적인 사고 및 통찰과는 거리가 있다. 특히 전화상담에 있어 그의 이론은 상담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행동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리 현실성이 강해 보이지 않는다.

II. 이론적 논의

본 연구는 전화상담의 언어사용의 특성이 청소년들에게 유용할 수 있다는 임상경험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한다. 전화상담에 관한 경험과 이론은 정립 이전에 아직 충분한 정리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전화상담과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과 개념을 정립하기 보다는 전화상담의 경험적 특징 중 언어가 갖는 비중을 열거하고 이에 따라 전화상담 의미와 사용 그리고 인간의 사고와의 관계 및 청소년의 언어적 특징 등을 서술함으로써 전화상담에서 언어활용의 분석틀을 마련하는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1. 전화상담의 특징

면접상담과 달리 전화상담은 전화를 매개체로 상담³⁾의 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몇가지 특성을 갖는다.

그 첫째는 편이성이다. 만일 전화상담을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24시간 전화를 개방해 놓고 상담에 임한다면 피상담자 입장에서 전화상담은 언제나 가능하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특성은 새로운 경험이나 자극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익숙한 장소에서 스스로 선택한 안전한 방법으로 상담함으로써 안정감과 편리함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둘째는 익명성이다. 이것은 두가지 수준에서 구분된다. 하나는 피상담자의 익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상담자의 익명성이다. 전화상담에서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 앎을수록 심리적 긴장감은 감소된다. 이런 점에서

3) 우리의 현실에서 올바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의문은 그 이론과 실천방법이 토착화하지 못한데서 비롯된다. 따라서 상담이 다양한 의미와 기능을 갖고 사용되는 시점에서 상담에 대한 불분명한 정의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여기서 상담이란 태도상의 문제나 심리적 갈등의 문제 등 조언과 안내 그리고 심리치료의 범주를 제외한 순수한 상담의 정의만을 의미한다(정원식·곽성수, 1983 : 29 참조).

전화상담의 익명성은 피상담자가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된다. 따라서 면접상담을 통해서만 상당한 친밀감이 형성된 상태에서만 밝힐 수 있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담자가 갖는 익명성의 장점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이상형 즉, 만능해결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째는 선택성이다. 상담자는 피상담자를 선택할 수 없다. 또한 피상담자에 대한 사전의 정보나 지식을 갖는 것도 불가능하다. 전화상담은 비록 운영기관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표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전화상담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문제가 제기될지 모른다. 따라서 전화상담자는 상당한 경험과 순발력이 필요하다. 반면에 피상담자는 자신이 원하는 상황과 상담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만일 상담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화를 끊으면 된다. 이 특징은 상담자에게 많은 부담을 준다.

네째는 언어적 표현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특성은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다. 사실 인간의 의사소통에 있어서 언어보다 상대의 행동이나 몸짓, 표정 등이 더 주요한 요소로 등장할 때가 많다. 그러나 전화상담은 비언어적 표현이 철저하게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상담자는 언어라는 제한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어떻게 피상담자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의 반응을 읽으며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는 숙제를 갖게된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의 기술 등은 전화상담의 기술에 있어 핵심적 요소이며 그 자체가 전화상담을 의미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을 전화상담의 특징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때문에 전화상담의 유용성에 대해 회의를 제기하지만 실제로 이 특징이 하나의 심각한 한계는 될 수 있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들 중 전화상담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익명성과 언어적 표현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중 익명성은 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한 상황적 특성이지만, 언어적 표현만으로 제한된다는 점은 전화상담의 실제 과정과 기술에서 많은 작용을 한다. 상담의 기본적 요소인 관계와 과정은 이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화상담

의 독특성과 나아가 그 가능성과 한계선을 가늠해 줄 저울의 역할을 한다.

2. 인간과 언어

그렇다면 인간에게 언어는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이 愚問에 대한 답은 아마 누구도 명쾌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표현의 수단이고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 등등. 그러면 이같이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장 field에서 언어를 새롭게 조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한다. 전화상담의 장에서 피상담자들의 언어는 상담과정과 치료의 방법으로 특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특별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어 우선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며 그들에게 언어는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은 전체의 논리를 구성하는 핵심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실존론적 인간이해에 있어서는 인간의 삶이란 자기의 본질을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고 새로운 자기의 가능성을 창조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여기서는 인간에게 공통된 본질, 곧 인간성 따위는 거부된다. 인간의 “존재(실존)는 본질에 앞선다”는 사르트르의 유명한 명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주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이다. 인간을 규정할 본질이란 없는 이상,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본질을 스스로(주체적으로) 창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세계 속에 자신을 내던지면서 세계 안에서 고민하면서 비인간적인 것과 투쟁하면서 인간은 자기를 형성해 나간다. 인간은 세계와 미래에 대해 끝없이 개방된 존재로서 실존한다. 따라서 인간을 ‘어떤 존재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는 삶이라는 과정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더욱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삶은 정형화된 형식이 아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종이다.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와 어떻게 그릴 것인가는 모두 종이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어떤 종이도 그림을 행위나 표현없이 나타내지는 않는다.

기쁠 때 웃고 고통스러울 때 울며 무엇에 대해 희망을 가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해 동정하며 아픈 곳을 치료해 주는 것과 같은 인간의 행위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

위들이다. 그것은 학습을 통해 배운 행위라기 보다는 인간의 자연사 natural history에 속하는 행위들이다. 이제까지 우리는 이런 류의 행동들을 본능에 의한 행위라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그것을 인간의 자연사에 속한 행위라고 불렀다. 개체 보존과 종족보존에 필요한 여러가지 행위가 그것이다.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사랑하고 그리고 웃고 울며 희망하는 일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행위들은 사고의 산물이거나 길들여진 행위가 아니다. 언어는 이런 행위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이런 행위들은 말놀이가 작동하는 일정한 배경을 제공해 준다. 이런 말놀이의 배경 속에서만 언어는 작동한다. 배경이 결여되었을 때 언어는 걸돌게 된다. 언어는 나들이를 떠나고 휴업상태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형식 속에는 인간의 자연사에 속하는 원시적 행위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분석철학연구회 편, 1989 : 240).

인간이 언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해가능한 정의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끝없는 탐구처럼 그를 감싸고 있는 언어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소모적인 요소가 있다. 엄밀히 말해 인간의 실존은 언어적 현상의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나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까? ‘보여지는 것’으로 존재의 현상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은 지구 반대편의 어느 집에서 굶는 고기 냄새를 짐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수많은 대상 중의 하나이지 의미를 가진 존재는 아니다. 존재의 단어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지만 존재는 하나의 특수한 개체로서 사람의 마음속에 각인되어질 때만이 그는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한 여자가 가방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이 때 우리는 여자, 가방, 하늘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드는 행위, 쳐다보는 행동도 존재하고 있다고 사고한다. 이 사고는 직관적 작용이 아니라 그 존재를 마음속의 언어로서 각인하는 과정의 산물이다. 적어도 각인된 언어를 표현하는 방법은 교육과 문화 그리고 제도와 연관된 언어라 할지라도 한 존재는 인간의 내재적 작용에서 언어로 인식되고 형상화하여 다시 언어로 표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인간이 언어를 지배할 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가 인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현상적 작용이지 인간의 본성자체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비록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한계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지 그 외적인 자극의 복합체 또는 동떨어진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다. 언어는 인간이 탄생시킨 산물이지만 아니 더 정확히 말해 인간의 것이지만
관일 우리가 그의 힘의 성질과 영향력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면 이미
우리를 떠난 언어는 미묘한 방법으로 우리와 사물들 사이를 뚫고 들어올 것이다. 인
간이 언어를 얼마나 멋대로 사용해 왔는가의 자성은 여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인간
이 학습한 바대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는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을 총동원
해서 언어에 대해 또는 언어 밖으로 폭력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인간의 언어행위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A. de Waelhens가
지적한 대로 언어에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는 언어가 원래 사물이 아닌 대용어로서
사물, 실재를 촉발한다는 점이다. 즉, 언어는 부재를 바탕으로 해서 현존을 촉발한다.
단어는 사물의 현존이자 부재이다. 사물은 단어에 의해 지칭되고 실재의 체계속에
본질적으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연관된 실재계와 언어의 두 체
계는 지칭행위에 의해서 형성된다(이미션 역, 1994 : 92).

이 사실은 어쩌면 인간이 언어를 새롭게 조망하는 기호, 상징을 창조하는 실마리
로서 제공되고 나아가 새로운 인식과 언어의 창조를 통해 그 은유의 세계를 실재화
하는 인간의 독특성과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이 은유는 존재이전에
“있는” 인간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접근하기 위한 욕망이며 또한 존재의 본질을 존
속시켜 인간으로서의 공통점과 상이점을 구분하고 ‘인간다움’을 촉진시키는 가능의
장을 열어준다. 특히 전화상담에서 인간의 무한한 언어의 창조와 긍정적인 개발은
자발적으로 그가 원하는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하고 또한 그 세계를 새로이 만들어
적응하는 주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3. 언어의 의미와 사용 그리고 무의식과 자각의 문제⁴⁾

언어란 어떤 문법적인 구조를 지닌 기호의 체계 이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를 사용하는 일은 언어와 더불어 그 사용자까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어란 대화의 행위를 통해 이러한 잠재적 체계를 실제로 나타내는 화자와 분리되어서는 결코 현실화되지 않는다. 언어는 창조적 행위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양태로서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각각의 경우마다 언어의 실화는 창조적인 주체에 그 초점을 맞추으로써 언어를 재구성하려는 개인의 행위 이행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언어의 의미는 언어의 잠재적 소여성을 실제적 사용으로 연결시키려는 인간 주체를 통하여 이해해야 한다(장석만 역, 1991 : 118). “나는 ‘부부’라는 말을 가지고 ‘만일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나는 산책을 나갈 것이다’를 의미할 수 있겠는가? — 오직 어떤 하나의 언어 내에서만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어떤 것을 뜻할 수 있다. 이는 ‘뜻하다’의 문법이 ‘어떤 것을 표상하다’와 같은 표현의 문법과는 비슷하지 않음을 명료하게 보여준다”(이영철 역, 1994 : 40). 후기 비트겐슈타인에서처럼 그는 언어를 단어의 의미로 보지 않고 규칙들에 의해서 정의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한다.

우리가 게임의 규칙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갖는 물리적 성질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장기의 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에 대해 말할 때도 그러하다. ‘실제로 한 단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은 ‘장기에 있어서 말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과 꼭 같은 것이다(황경식·이윤형 역, 1989 : 103-104). 장기에 있어서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게임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와

4) 전화상담에서 언어의 강조와 개체내 의사소통 증진의 목표는 자칫 언어와 사고와의 관계에서 언어중심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라 보여질 수 있다. 즉, 언어가 사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언어중심적 견해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글은 언어를 사고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사고를 형성하는 범주형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언어중심적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언어가 사고나 다른 행동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언어의 상대성이론 등 중심적인 언어우위론과는 차이가 있다. 다시말해 다른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는 언어와 사고의 독립성을 견지하고 있지만 언어와 인지를 행동을 전제로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그 접근방식은 동일하지 않다고 본다.

유사하게 우리는 한 단어의 의미란 언어게임에서의 그것의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그는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점보다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느냐에 더욱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언어게임 language game이라고 불렀다.⁵⁾ 언어를 벗어나서는 언어의 부적절함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수단은 언어적인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아가 언어의 피조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이다. 사적인 세계는 공적인 세계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인간성은 언어에 의해 창조되기도 하고 언어로 표현되기도 한다(정철호 역, 1993 : 261).

비트겐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설명으로서 단어의 용법 즉, 언어게임의 상황을 명료화한다.

“내가 누군가를 보내 어떤 것을 사오라고 시킨다. 나는 그에게 ‘다섯 개
의 빨강 사과’라는 기호가 적힌 어떤 하나의 종이 쪽지를 준다. 그는 그 종
이 쪽지를 상인에게 가지고 간다. 상인은 ‘사과’라는 기호가 붙은 껌짜를 연
다; 그 다음 그는 어떤 하나의 일람표에서 ‘빨강’이란 낱말을 찾으려 그 맞
은 편에서 어떤 하나의 색 견본을 발견한다. 이제 그는 ‘다섯’까지 기수의
수열을 말하며 —나는 그가 그 수열을 외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 각각의
숫자마다 그 견본의 색깔을 가진 사과 하나를 껌짜에서 꺼낸다. 그러나 그
가 ‘빨강’이란 낱말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참조해 보아야 하는지, 그리
고 그가 ‘다섯’이란 낱말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는 어떻게 아는
가? 자, 나는 그가 내가 기술한 것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설명들
은 어디에선가 끝을 가진다. 그러나 ‘다섯’이란 낱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
런 것은 여기서 전혀 이야기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야기된 것은 단지, ‘다
섯’이란 낱말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이었을 뿐이다” (이영철 역,

5) 한 기호는 그것이 인간의 행위의 맥락속에서 일정한 목적에 기여하도록 사용될 때 비로소 의
미있는 언어가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와같은 일정한 목적과 양식을 지닌 행위의 맥락속에서
의 기호의 사용을 가리켜 ‘언어게임’이라고 부른다. 그가 이것을 게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모
든 게임이 일정한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행위이듯이 기호의 사용도 규칙에 의해 인도되는 행
위이기 때문이다(최세만, 비트겐슈타인의 보여줌의 이설 과 철학 : 99에서 참조).

물론 비트겐슈타인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언어관에서의 원초적인 관념의 타당성을 상정하고 그의 예시적 정의야말로 단어의 의미를 제시하는 기본적인 행동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그는 ‘무엇이 한 단어의 의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그것들의 대답에 해당하는 아무 것도 지적할 수 없으면서도 그 무엇인가를 지시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한 단어의 의미’라는 구절은 각각의 명사와 형용사에 대응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것이 단어의 의미이고 또 하나의 개체가 하나의 고유 명사로 명명되는 것처럼 그 단어도 명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어떤 마력을 지닌다고 본다. 이러한 마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대신에 ‘의미에 대한 설명은 무엇인가?’라고 물음것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이렇게 대치함으로써만 그 물음이 구체화되며, ‘의미’라고 불리는 어떤 대상을 찾으려는 유혹을 제거시켜 준다.

그렇지만 비트겐슈타인에게 있어 언어 ‘사용’의 중요성은 인간의 사적인 언어를 배제한 공적인 언어 다시말해 언어의 집단적 사용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의미와 목적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의 사상이 주는 언어의 중요성과 언어의 사고지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언어에 우선순위를 주면 개인의 사적인 신념과 객관적인 세계 간의 대비는 점점 더 어렵게 된다. 모두가 따라야만 하는 규칙이 있는 대중적인 언어가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세계는 언어의 가능성에 의해 한계가 지워진다. 우리 자신의 개념들, 즉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도 언어학적인 용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언어를 분석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언어없이는 사고思考도 없기 때문이다(정철호 역, 1993 : 253).

물론 언어가 사고의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지만 언어는 사고를 축소시키거나 확장할 수 있다. 우리는 사고를 한다. 그렇지만 사고를 한다는 뜻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사고를 하는가? 만일 “내가 피로하다”고 느낄 때, 실제 마음의 동요로 내가 피로하다는 감정을 인식할 수 있을까? 내가 피로운 것은 그 감정이 내적 언어로 나의 사고에 투영될 때 다시 지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나는 나와 언어로 교류하고 나의 사고에

각인한다. 적어도 이 자아의 내면세계에서의 의사소통은 사적 언어로서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자아는 무의식과 의식의 혼합된 형태로 형성된 실체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세계에서의 언어는 종종 상징이나 기호, 신비한 그림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내적 언어가 나의 밖으로 나아가 공적인 언어로 나타난다— 아니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의미란 무엇보다도 언어의 의미이다. 언어란 공공연하게 인식가능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드러난 행위만을 증거로 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사회적 기술 social art 이다(Quine, 1970 : 26).⁶⁾

현상학적 관심의 끝없는 의심은 선험의 중요성을 다루게 했고 궁극적으로 자아의 자기인식은 지식의 형성에 실제로 작용한다고 본다. 의식은 언어에 반영되어 있으며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하이데거의 말 “처럼 언어는 존재(사고와 의식을 가진 개체에 있어)를 사회나 삶의 과정에서 한 가운데 존재케하는 다양한 용도를 가진 도구이다. 사실 여기서의 관심은 언어의 수동적인 기능이나 역할이 아닌, 즉 존재의 집이 아닌 존재를 형성하는 결정적 요소 critical factor 이다.

그런데 언어는 의식의 존재 속에서만 가능한 요소일까? 인간이 갖고 있는 사고의 갈래된 엄청난 源泉인 무의식과 언어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만일 언어가 인간의 무의식을 자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참 모습 즉, 욕망의 구조를 의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제시한다.

6) Quine은 의미란 언어사용자의 드러난 행위 즉, 언어 사용의 공적인 조건 public condition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언어를 처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공적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드러난 행위가 아니고는 어떤 경험적 자료도 있을 수 없으며 그래서 의미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동적 기준에 의해 배워지고 설명되어야 한다. Quine에게 있어 이와같은 방식으로 특징지어지지 않는 ‘의미’란 결코 의미일 수 없다.

7) 하이데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언어의 본질은 정보 제공의 수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언어란 단순히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 가운데 하나인 도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존재를 펼쳐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장석만 역, 1991 : 124).

무의식은 단지 본능적인 충동들의 집합에 불과한 것인가? 우리는 문자⁸⁾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글자 그대로 주의깊게 들어야 한다. 문자란 구체적 담화가 언어로 부터 빌려온 물질적인 지주이다. 이 정의는 언어가 언어습득을 위해 동원되는 주체의 다양한 심리적·육체적 기능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왜냐하면 언어와 그것이 갖는 구조는 개별주체가 언어체계로 들어가기 위한 정신적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퀀택영외 편역, 1994 : 53). 무의식영역의 언어구조화는 역설적인 모습을 띠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Erich Fromm이 말하는 잃어버린 언어를 찾으려는 사회현상의 동일점을 이야기함으로써 무의식에 담긴 언어의 체계를 이해할 수 있을 수 있다. 다시말해 우리의 발화점은 각기 개성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 화음을 맞추어 노래하고자 할 때 한 점(언어)을 향해 목소리를 일치시키는 (무의식을 깨우치는) 노력과 같다.

언어는 사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작용을 만들어 낼 뿐이다. 이 진술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작용도 또 다른 의미작용을 참조하지 않고서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논의를 좀 더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언어(기표)가 기의의 전 영역을 대신할 수 있다는 명제가 생겨난다. 기의는 기표로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기의는 기표의 결과물이란 의미에서) 이 때 기표는 필연적으로 기의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모든 욕구들을 충족시킨다. 우리가 언어속에서 구성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언어 속에서 구성된 대상은 단순히 지정된 대상이 아닌 개념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퀀택영외 편역, 1994 : 56).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사적 언어는 무의식의 어떤 부분을 자극할 수 있고 그것은 공적인 언어로서 스스로에게 각인될 때 하나의 의식과 표현되는 욕망으로서의 위치를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8) 라플랑슈와 르콜레르는 무의식의 개념이 프로이트 이래 계속 변형되어 왔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초로 무의식을 변성시킨 폴리체 G. Politzer 이후 무의식의 개념이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본다. 그 문제는 무의식이란 의미일까? 아니면 문자일까?라는 점이다. 문자로서의 무의식은 의식적 언어 속에 나 있는 빈틈에 끼어든 또 다른 담론으로 이루어진 명확한 실체이다. 반대로 의미로서의 무의식은 주체가 말한 모든 것에 들어 있는 의미이다. 예를들어 꿈에는 단 하나의 내용만이 존재한다. 명백한 꿈 내용은 비관습적인 언어로 이루어진 이야기이다. 무의식은 그 이야기의 의미이지만 이 의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이미션 역, 1994 : 204-205참조).

무의식의 의식화는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물론 의식화되기 이전에 무의식의 영역은 합창에 필요한 음이 아닌 소리의 단일성으로 존재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영역이 의식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 함의는 인간의 사회적 영향과 문화적 배경 그리고 정서까지 고려한 특수한 개념으로 변한다. 이런 관점에서 전화상담이 그들의 의식을 사회로 끌어내 교육과 바람직한 이념의 목표로 인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 이것은 무척 회의적인 일이다. 결국 상담에 있어서 언어의 활용은 무의식을 자극하기 보다는 의식을 확장시켜 무의식의 지정된 사적 언어개념을 자기 스스로 작인할 수 있는 내적이면서 공적인 언어로 변환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는 다시 무의식의 영역을 잠재적 역량으로 놓아두면서 자기의 행동과 사회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기 위한 의식적 자각과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표현하자면 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궁극적인 관심은 피상담자의 말을 이해하려는데 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사고의 음운적 위장을 꿰뚫어야 하며 또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음운적 형태로부터 사고를 연역해내는 규칙체계가 있어야 한다. 이 규칙들을 형식화하는 이론 형식으로서의 그러한 규칙 체계에 관한 지식 (즉, 규칙을 체계화하는 이론)은 그 자체가 문장의 내면에 들어있는 논리적 형식을 드러내리라는 가정도 성립된다. 만약에 언어학자들이 화자가 언어적 의사소통에서 사고를 기호화 encoding하고 그 기호를 사고로 해석 decoding하는데 사용하는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들은 비트겐슈타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바로 그 일을 하는데 성공하는 셈이 될 것이다.

이런 원리들에 관한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언어의 내재적 실재를 찾아내려는 시도에 대해서 있을 수 있는 오직 한가지 반론은 그와 같은 내재적 실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실재가 모든 언어에 동일할 수 없다는 것이다(윤일선 역, 1984 : 17).

따라서 본 연구는 Vygotsky의 내적 언어이론에 동의한다. 그는 언어 형식을 외적 언어와 내적 언어로 분류한다. 외적 언어는 남에게 하는 말이고 내적 언어는 자기에게 하는 말이다. 본래 전자는 소리내어 하는 말이고 후자는 소리없이 하는 말이다. 언어의 최종적인 발달단계는 내적 언어의 출현이다. 내적 언어는 말이 생각속으로 들어가는 말이다. 그는 이를 언어적 사고라고도 표현한다. 내적 언어는 외재적 언어

의 내면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의 기능이다. 그것은 대체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사고이다(윤일선 역, 1984 : 102-103)⁹⁾.

결국 본 연구에서의 관심은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사적 언어를 공적 언어로 바꾸어 언어를 통한 사고의 자극을 일으켜 그 외적 언어를 내적 언어로 전환시킴으로써 통찰력 얻고 그 과정¹⁰⁾을 통해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사적 언어 : 개체내의 정리되지 않은 사고와 형상, 상징의 언어적 총체

사고의 비중에 따라 무한한 의미를 갖는 언어

공적 언어 : 사고 또는 언어적 표현과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의미를 지니고 상호 이해가 가능한 언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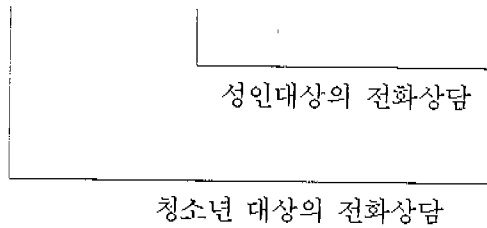
외적 언어 : 개체가 주체가 되는 대상 중심의 공적 언어

내적 언어 : 언어적 자극을 통한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언어

개체내의 내적 의사소통 향상과 증진에 기초가 되는 언어

9) “생각은 말과는 달리 별개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나는 파란 셔츠를 입은 맨발의 어린이가 거리로 뛰어가는 것을 오늘 보았거니와, 그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소년, 셔츠, 파란 색, 그의 달음박질, 맨발 등의 항목을 하나하나 별개로 볼 수가 없다. 나는 모든 이들 항목을 하나의 생각 속에서 품는다. 그러나, 이들 항목을 별개의 단어로 적을 수 밖에 없다. 생각은 단어들을 마구 소나기처럼 퍼붓는 구름이나 비유할까?

10) 이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언어의 실체와 개념을 체제화시키는 일이다. 우리가 체험하는 세계가 참으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인가라는 의문은 인식론의 기본 물음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아니다일 것이다. 바깥세계의 사물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그대로 비취지는가부터 의심스럽다. 뿐더러 감각된 자극이 우리의 지각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예컨대 네모꼴을 미스듯히 보면 우리 망막에 나란히꼴이나 마름모꼴로 비추인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그것을 네모꼴로 지각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인지한다. 후박과 독련을 나무라는 유목으로 심지어 어떤 특정한 소나무와 박쥐에 낀 이끼를 식물이란 유목으로 인지한다. 다시말하면 우리는, 감각재료를 재구성하고 지각하고 그 지각된 것을 다시 개념유목으로 재구성하여 우리의 지식체계를 이룬다. 이 과정이 곧 체제화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지나치게 상위의 범주를 참조하거나 지나치게 하위의 범주를 참조한다면 의사소통에 혼란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예컨대 개를 전승이라고 이야기한다면 혼합성에 빠져버리며 특정한 종류의 발바리라는 이름으로 부른다면 자아중심적인 것이 되고 만다. 그런데 다행히도 로쉬에 의하면 사물의 진정한 구조인 기본 대상의 수준은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범주수준보다 더욱 포괄적인 수준이다(조명환, 1985 : 139-140).



4. 청소년의 언어특성

청소년은 인간이다. 이 당연한 명제는 청소년을 보는 분야마다의 관점의 강조때문에 지나쳐 버리는 수가 많다. 누가 청소년을 인간이라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청소년은 인간이다라는 정의는 이 맥락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청소년은 다른 어떤 연령계층보다도 인간적 특성의 다양하고 깊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너희들이 선(禪)을 배우기 전에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었다. 그런데 선을 배우는 동안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니고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다. 그러나 깨치고 나면 산은 다시 산이고, 강은 다시 강이다.” 사람들은 이 과정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얻게 된다. 깨달음이다. 청소년은 스스로 추구하는 삶의 목표과정에 입문하는 시기이다. 이런 차원에서라면 청소년을 심리적·신체적 미숙기로 보는 시각에 동의할 수 있다. 적어도 그들의 산은 어른들의 산이 아니다. 같은 산을 지칭하더라도 그들의 의식세계에서는 산은 산이 아니다. 이것을 산의 일부를 지칭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양량적인 문제 이전에 대상의 문제이다. 청소년이 코끼리의 다리만 만지며 이것은 코끼리다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코끼리의 전체 모습을 청소년이 볼 수 있다는데서 오는 실망을 감추기 위한 어른의 자위일 수 밖에 없다. 청소년은 눈명 코끼리를 보고 있다. 단지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코끼리 형상을 한 기계일 수 있고 모형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들이 참 코끼리를 보고 있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어른의 기준이다. — 우리는 이 기준의 타당성을 믿을 수 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들의 믿음이 전세계를 지배하는 사상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만일 그 세계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마치 니이체가 신의 존재를 부정함으로써 결국

신의 본체를 인정했던 모순에 빠지는 결과와 똑같은 것이다 — 결국 청소년은 자신의 코끼리를 보고 있고 그것은 어른도 코끼리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게 산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본다. 그들이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 산은 산이 아니지만 어떤 과정과 변수를 통해서 다시 산이 되고 그 때 그 산은 참 산이 된다.

이는 청소년의 언어체계가 어른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지만 어른이 자신의 외부세계와의 관계속에서 언어를 확장시키는데 비하여 청소년은 자신의 의식을 폐쇄적으로 비언어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청소년의 강은 강이라고 인정해주기 힘들다. 한편, 청소년도 강으로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강일 뿐이고 이는 어른도 인식하고 있다. 그 강은 혼자 흐를 뿐이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직관은 선험적 직관이기 보다는 감상이기 쉽다. 어떤 의미에서 이 감상은 직관보다 탁월한 기능과 영향력을 가진다. 직관은 이미 선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보여진다. 따라서 청소년이 어떤 어른 이상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라고 그들이 의식이 사회속에 쉽게 내던져지기는 어렵다.

중요한 사실은 청소년의 마음속에 각인된 언어를 통한 의식의 확장 또는 통찰은 사회속에서 인정받기 보다는 스스로가 어떤 모델을 통한 부단한 자기확인의 수단으로서 사용한다. 청소년의 사적 언어가 어른의 그것에 비해 훨씬 더 신비스럽고 무한한 잠재의 힘을 갖는다는 점은 청소년언어가 사회에서 갖는 한계이자 가능성이다. 즉, 청소년이 자신의 완벽한 사적 언어체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른의 언어를 통해 이루어내는 의식의 확장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청소년의 의식을 세계밖으로 끄집어 내는 일은 언어의 자아형성과 관련이 깊다. 다시말해 청소년은 언어의 공적인 인정과 함께 의식(자아)가 형성된다. 따라서 정상적이라면 청소년은 어른처럼 자아의 왜곡과 불만족에 대한 불안 보다는 언어를 통해 의식을 형성하려는 과정속에서의 괴리에 따른 괴로움이 더 크다고 본다.

결국 전화상담에서 청소년은 자기표현의 수정과 사회적 적응을 통해 자아 의식을 형성하고 미분화된 자아를 분화시키도록 통찰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의 끊임없는 표현과 자기확인 속에서 스스로 무의식적 반응을 의식화시키는 통찰을 말

한다. 즉, 언어의 올바른 사용은 자기의 의식을 확장시키며 문제와 상황에 대한 통찰을 유도하고 그것은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는 힘이 된다.

III. 상담사례 분석

1. 분석의 틀과 방법

문장의 의미란 발표의 순간에 화자話者의 심중에 있는 의미인가? 그렇지 않으면 들은 순간에 청자聽者의 심중에 있는 의미를 말하는가? 나는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청자의 심중에 있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청자는 화자의 목적을 완전히 오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자의 심중에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화자는 머리에 있는 생각을 고의로 말로 써서 감추는 일이 있다. 그리고 만일 그 표출의 의미가 머리에 있는 그대로의 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생각컨대 다음과 같은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문의 의미란 화자가 그 문에 의해서 청자에게 이해받고 싶다고 의도하는 것이다”(김봉주 역, 1990 : 179—180).

본 연구는 전화상담에서 개체내 언어적 표현을 조장함으로써 피상담자의 통찰력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전화상담의 핵심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통찰은 그 용어만으로는 자기생활의 역기능적인 요소를 극복하는 기법의 하나이다. 이 통찰 즉, 깨달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피상담자가 자기 깊숙히 갖고 있는 투사와 내적욕구 및 자기방어기제를 밝혀내어 그의 생활을 더욱 현실적으로 적용시켜 과거 및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장애를 최소한도로 국한시키고 걱정과 반응 등을 완화하거나 해소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전인적 인간관계(상담으로서의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비언어적 표현과 지속성의 보장이 없는 전화상담에서 상담자의 치료기법에 따라 의도대로 피상담자가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상담자 스스로 자기대화기법(내적 언어)을 통해서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통찰력 증진을 위한 피상담자의 개체내 의사소통 과정 (요소)

- ①
 - 자기확신(확인)
 - 자기방어(합리화)
- ② 자기통제
- ③
 - 사고의 범주화
 - 사고의 구체화
 - 사고의 현실화
- ④ 통찰력

본 연구에서는 통찰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피상담자의 개체내 의사소통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를 분석의 도구로 삼는다.

이들 과정적 요소는 네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자기확신과 합리화의 과정이다. 문제나 고민을 갖고 전화상담을 하는 피상담자의 경우, 문제-해결방법에 대한 해답이 있든 없든간에 그들은 자기의 문제가 특정한 것이라고 느끼며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피상담자로서 스스로 낙인을 찍는 잠재적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출구임에는 틀림없지만, 사실 심리적으로 그는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해결되어야 바람직한 것인지 전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상담에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제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타인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나 고민이라면 자신이 문제의 핵심주체로서 가장 많은 반성과 통찰의 과정을 가졌을 것이다. 따라서 피상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이 문제만큼은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는 자기확인을 확고히하며 타인의 시각과 관점을 즉, 자신의 문제를 객관화시키려는 언어를 찾는다. 이 때 피상담자는 자기의 사고나 정서가 최선이라는 합리화가 잠재되어있다. 둘째는 자기통제의 과정이다. 어떤 의미에서 사적인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다. 다시말해 자신의 갈등이나 문제를 어떤 모습으로 언어적 구조화를 시켜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가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적 언어를 공적인 언어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자기통제는 이 과정을 위해서 스스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 언어적 사고내용을 통제하게 된다. 셋째는 사고의 범주화, 구체화, 현실화의 과정이다. 언어가 사고를 자극하는 과

정이다. 내적 언어 표현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스스로 새로운 언어 즉, 자기를 명료화하는 통찰력을 가진 언어로서 전환시키는 것이다. 그는 사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언어표현을 통해 사적인 언어로서의 사고를 정리하고 그것이 현실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야 할지 선택하며 마지막으로 현실과 타협하여 자기의 사고(언어)로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외적언어를 내적언어로 바꿈으로써 그 자연스러운 과정이 곧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통찰을 수면 위로 떠올리는 역할을 하며 결국 피상담자의 자각을 이끌어낸다.

2. 상담사례분석¹¹⁾

청소년들을 위한 전화상담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교육 또는 평가 목적으로 전화상담사례를 분석한 예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전화상담의 합의된 기록 양식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또한 전화상담이 전문적인 상담교육을 받은 사람보다는 자원봉사상담자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초점인 피상담자의 언어적 표현을 통한 사고의 확장 그리고 통찰력부여의 과정에 유사하거나 적합한 상담을 찾는다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기 보다 이같은 과정적 요소와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상담사례를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4개의 사례(전화상담 3개의 사례와 면접상담1개의 사례)를 제시하여 위에 제시된 분석틀에 입각하여 접근해 봄으로써 바람직한 전화상담 방향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1)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화상담사례는 청소년 전화상담관련기관의 공개된 상담사례집과 교육목적을 전제로 제공해준 사례들이다. 피상담자의 비밀보장을 위해 이름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내용 중 분석이 필요한 부분만 게재한다. 분석에 따른 자문 또는 사례의 일부분을 제공해 준 기관은 청소년 대화의 광장, 대한가족계획협회, 서울청소년지도육성회, 사랑의 전화 등이다.

사례 1 : 여자 옷에 대한 호기심때문에 고민하는 남자 청소년(전화상담)

상 : 그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같이 생각해보도록 하죠.

피 : 생각이 안나요.

상 : 처음에 집에 돌아와서 바로 욕상에 올라가서 옆집에 걸려 있는 속옷을 본다고 했는데, 속옷을 보게되면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들테니까 일단은 욕상에 올라가지 않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피 : 속옷을 버리면 되요.

상 : 속옷을 버리고 그리고...

피 : 모르겠어요.

상 : 운동할 때는 그런 생각 안난다고 했잖아.

피 : 네. 운동도 하고...

상 :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고, 또 다른 방법은?

피 : 모르겠어요.

상 : 그럼 우리 친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방법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볼까?

피 : 네? 음 속옷을 버리고 욕상에 올라가지 않고 혼자 지내지 않고...

상 :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옆집에 가서서 속옷이 안보이도록 말씀 좀 해주시라고 할 수도 있고.

피 : 엄마한테요?

상 : 어렵겠어?

피 : 모르겠어요.

청소년 전화상담에 있어 상담자의 초조함은 상담관계를 쉽게 종결시킨다. 물론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논의는 미루어 놓더라도 객관적인 자기확인을 반복시키는 기술을 노출한다.

이 상담사례의 경우는 상담자의 자기확인과 자기방어 그리고 자기 통제를 거의 일방적으로 피상담자에게 학습시키고 있다.

상 : 그럼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피 : 생각이 안나요.

가장 기초적인 피상담자의 자기방어를 참을성있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상담의 중심이 피상담자에서 상담자에게 옮겨갔다. 상담자가 피상담자의 입장에 들어가서 자기확인 및 통찰의 과정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상담태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상담자의 역할과 부분을 빼앗고 있다. 즉, 이 상담이 상담자가 아닌 피상담자 스스로 상담자가 제시한 과정을 풀어나간다면 더욱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자는 마지막 상담과정에서 한번의 기회를 더 갖지만 그것마저 놓치고 만다.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엄마한테 옆집에 가서서 속옷이 안보이도록 말썽 좀 해주시라고 할 수도 있고 ” “엄마한테요?” 피상담자가 자신의 사고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 지금까지 어떤 과정으로 그 단계에 도달했는지— 기회를 “어렵겠어”라는 결과적 판단이 내재된 용어로 차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담과정에서 유의할 점은 매우 간단한 언어적 자극과 반응으로 상대의 사고를 점진적으로 범주화, 구체화시킨다는 점이다. 비록 피상담자에게 통찰을 줄 수는 없는 상담이었지만 그 표현양식은 주의깊게 생각해 볼 만하다.

사례 2 : 선생님을 좋아하는 여학생의 고민 (전화상담)

피 : 요즘 기분이 들떠있고, 책을 잡아도 공부가 안되고...

상 : 요즘 공부가 잘 안될만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피 : 네. 얼마전이에요. 우연히 길에서 선생님을 만났어요. 좋아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선생님은 인간성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총각선생님이시거든요. 제가 선생님 책상에 꽃도 꽃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해서 선생님도 절 잘 아세요. 다른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 같아요.

상 :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다고요?

피 : 네. 학원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이 먼저 저를 부르셨어요. 놀람기도하고 당황되기도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 좀 하자고 하셔서 빵집으로 갔어요. 빵집에서 선생님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상 :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

피 : 인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선생님 이야기.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거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해 주셨어요. 선생님하고는 얘기가 잘 통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절 잘 이해해 주세요. 집에 돌아와서 막 울었어요.

상 : 선생님께 좋은 말씀을 들어 아주 좋아했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었어요?

피 :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서요. 그날 이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아요. 책을 봐도 선생님이 자꾸 떠올라요. 선생님과 같이 얘기했던 그 생각만 나요. 기분도 그 때 기분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상 : 그날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 해봤나요?

이 사례에서 피상담자는 처음부터 자기사고의 확신과 통제를 자신과 상담자에게 확고하게 주입시켜 놓는다. 나아가 자기확신의 타당성을 객관화시키는 작업까지 진행한다. “좋아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담임선생님은 아니지만, 그 선생님을 좋아해요. 그 선생님은 인간성이 아주 좋으신 것 같아요.” 이미 사적인 자기 감정(언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인간성이 좋으신 선생님을 좋아하는 자기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결론을 내린다.

이 상담 사례는 무리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담자가 피상담자에게 자기 사고를 범주화하고 구체화하며 현실화시키는 기본적인 초점을 잘못 유도하고 있다. 피상담자와 선생님간의 특별한 관계와 그 미화된 상황을 객관적으로 끌어내오기 보다는 그의 특수한 세계속에 상담자가 들어가고 있다. 즉 “선생님을 길에서 만났다고요 ?” 이같은 반응과 질문은 선생님과 피상담자와의 관계를 분리시킴으로써 피상담자의 사적 언어를 공적 언어로 바꾸어 그의 통찰을 자극할 수 있는 언어체계로 만들어 가지 못하고 피상담자의 감정의 중심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를 나타내게 한다.

표면적으로 보면 피상담자가 몇 단계를 거쳐 선생님에 대한 감사를 깊이 인식하는 듯하지만 그것은 그의 의식세계가 밖에서 스스로 자극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결국 사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는 상황을 만든다.

“그날 일을 누구에게 이야기 해봤나요?”라고 상담자가 그의 감정의 편승하므로써, 고조된 정서를 세계밖으로 끄집어 낼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상실하고 만다.

이러한 상담은 전화상담에서 조심스럽게 상담에 임하는 상담자들이 피상담자 중심의 운영을 통해 스스로 그의 자각과 고민해결의 진보된 과정을 겪고 있다고 착각하는 일반적인 예시이다. 결과적으로 이 상담도 피상담자의 자기확신과 자기방어(합리화)를 부정적으로 강화시켰으며 또한 자기통제도 나타내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감정 속으로 몰입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물론 감정의 충분한 표출과 내뱉음으로 그에게 자기감정의 정화역할을 제공해 주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청소년상담에서 중요한 자아성숙과 의식의 확장이라는 측면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례 3 : 잘못된 신체적 편견때문에 고민하는 남자 청소년 (면접상담)

피 : 내 손등 혈관을 남들이 보면 즉시 나를 피해요.

상 : 왜 그럴까?

피 : 제 왼손 혈관을 보면 어떻습니까?

상 : 난 아무것도 다른 것을 모르겠는데…?

피 : 괜히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모른다고 하시겠죠… 제 손등 혈관에는 나의 결함이나 열등함이 나타나 있어서 나와 같은 혈관 모양을 가진 사람은 모두 성격이 내성적이고 이기주의자고 비겁하고 무능하고 야비하고 의지가 약하고 소극적이고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놈이라는 것을 알고 나를 피해 버려요.

상 : 손등 혈관을 어디에 그런 것이 나타나나?

피 : 여기 왼손 혈관이 이렇게 갈라져서 손가락 쪽으로 내려간 그런 모양이면 그 래요.

상 :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겼으면 모두 그렇단 말이지?

피 : 예. 다 그렇죠.

상 : 책에서 봤나... 누구에게 들었나...?

피 : 아니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상 : 그냥 그렇게 느껴진다고... 잘 생각해 봐 언제부터 그런 느낌이 들게 됐나...?

피 : ... 잘 모르겠어요...

상 : 잘 모르겠다고?... 최초로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지 잘 생각해
봐...

피 : ...아마 국민학교 5학년 때 과외 공부할 때 일거예요... 그 때 과외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예쁘고 잘 가르쳤고 나를 많이 생각해 주셨
어요... 그 선생님의 손은 희고 예뻐어요... 그 선생님 손등 혈관이 나와 다르
고 내 친구 머리 좋고 공부 잘 하는 애하고 같은 혈관이었어요... 아마 그 때
부터가 아닌가 생각해요.

상 : 그 때는 자네도 공부 잘 했다면?

피 : 잘 하는 편이지만 그 애를 따라잡지는 못했죠.

상 : 그것만 가지고 그 애가 머리 좋다고 하기에는 타당성이 약한데...?

피 : 그 당시 IQ 테스트에서 내가 84 - 85였는데 그애는 110이었어요... 그 당시
나와 비슷했던 애들도 IQ는 90-100정도 었거든요... 그 중에서 내가 제일 낮
았어요... 충격받았어요...

상 : 지능지수는 참고용이지 절대적 수치라고는 할 수 없어. 또한 국민학교 때 지
능과 성장 후의 지능이 많은 차이를 나타내며 지능지수 이외의 능력들을 더
많이 활용하며 생활해야 하는 것이 인간생활이라고...

피 : IQ 이외의 능력이에요?

상 : 응... 예를들면 음악, 미술, 음식만들기, 옷만들기, 연기, 운동... 등등 얼마나
많이...?

피 : 그렇긴 그러네요...! IQ도 성장하나요?

상 :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피 : 그러면 나도 지금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상 : 그런데 손등 혈관 모양에서 나의 결점들이 나타난다는 느낌이 자네가 능력이

부족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느낌과 무슨 관계가 있나?

피 : 아무리 따라 가려해도 내 능력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할 때 였어요... 그 당시는 내 왼손이 늘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외 여선생님의 손이 내 손등의 혈관 모양과는 아주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죠... 서운했어요... 나와 같았으면 좋았을텐데... 라고 많이 아쉬워 했죠. 그런데 우리 반에서 IQ 110으로 가장 좋고 공부도 항상 1등인 친구의 손등혈관이 그 선생님과 닮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IQ가 높겠다고 생각했고... 손등혈관이 다르게 생긴 나는 머리가 나쁜가 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듯 해요.

이 면접상담사례를 분석하는 이유는 첫째, 이 상담이 청소년상담의 긍정적인 모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고 둘째는 면접상담이 놓칠 수 있는 상담력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다.

이 상담과정은 자연스러운 상담관계형성과 상담자가 핵심사항에 대한 적절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으로 피상담자의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아 주는 한편, 통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손등혈관’이라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논의에서 비롯된 피상담자의 의식과 사고의 확장은 그의 본질적인 고민과 욕구를 지나쳐 버리고 있는 듯하다.

피상담자는 자기자신의 가장 주의와 관심을 갖는 부분인 손등을 통해 열등감을 표현함으로써 그 열등의식을 잠재시키고 싶어한다는 것이 마지막 그의 고백에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따라 가려해도 내 능력이 모자란다는 느낌이 들어서 걱정할 때 였어요. 그 당시는 내 왼손이 늘 잘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외 여 선생...” 사실 피상담자가 손등혈관의 문제와 열등함 그리고 IQ와의 관계에 대해 그가 스스로 이야기한 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책에서 봤나... 누구에게 들었나... ?” “아니요. 그냥 그렇게 느껴져요...” 그 스스로도 막연한 생각을 자기 확신으로 굳히고 있으며 그를 손쉽게 자기 방어기제로 삼고자 한다.

피 : 그렇긴 그러네요... ! IQ도 성장하나요?

상 : 물론... 생활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피: 그러면 나도 지금은 많이 높아졌을 겁니다.

이같은 대화는 상담자와 피상담자사이의 결정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가 자기 언어의 객관적 확인을 통해 사고를 현실화시키는 과정 즉, 자기의 막연한 의문과 확신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한다.

이처럼 면접상담에서는 과정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의 확인과 자기 통제 그리고 사고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이 단계적으로 확인되고 평가되며 또한 재확인된다. 이는 대면관계에서 언어적 반응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반응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이중적인 대화체계를 갖는 반면, 그에 따른 완충작용은 거듭되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면접상담에서는 자신의 말을 다시 이해시킬 수도 설명하기도 어렵지 않다. 그러나 전화상담에서 이같은 사례가 다루어졌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문제와 해결의 궁극적인 초점에 동일하게 도달했더라도 피상담자의 '손등혈관'에 대한 해법에 따른 과정이 아닌 '왼손 혈관'이 주는 상징성과 그에 따른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상상력과 신중한 언어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이다. 부단한 자기이해를 통해 주관적인 피해 의식과 강박관념을 자연스럽게 떨쳐낼 수 있는 자극이 주어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과 대화함으로써 상담 상황과 과정에서 자신을 깨우쳐 나가는 장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이과정에서 상담자와 피상담자의 언어적 상호작용은 예민한 흐름속에서 이루어진다. 피상담자의 언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순간에 모든 상황이 종결되어 버린다. 따라서 이 사례가 전화상담에서 이루어졌다면, 상담관계가 어느 시점에 돌발적으로 종결될 확률이 면접상담보다 높지만, 피상담자의 문제나 고민을 훨씬 더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이끄는 장점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사례는 면접상담과 전화상담이 동일한 언어작용을 택하면서도 그 방향과 내용의 차이를 예시해 주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면접상담이 전화상담에 비해 언어적 상호작용에 부담이 적다는 암시를 주며, 반면에 전화상담에서 언어적 자극과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례 4 : 오빠의 구타때문에 고민하는 여자 청소년 (전화상담)

피 : 제일 화나는 건, 이유없이 맞을 때예요. 어제는 집에 들어 오더니 여자는 다 교활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맞는 순간은 너무 아파 울음부터 나왔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너무 화가나요. 제가 맞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빠방에 가서 막 대들었지요. 그러면 더 맞을거라는 건 뻔하지만, 맞을 때 맞더라도 이유라도 알아야지요. 그랬더니, 기가 막혀서. 그냥 너도 여자니까 때리거라나요. 여자는 다 싫테요.

상 : 평소에도 동생이 보기엔 이유없이 괴롭히나요 ?

피 : 아니예요. 잘 해줄 땐 또 잘해요.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 말씀따라 나이차이가 얼마나지 않아서 그럴꺼라 생각했는데. 요즈음은 더 난폭해지고 회수도 찾아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자친구하고 잘 안되나봐요. 그렇다고 저한테 분풀이하는 건 온당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선생님

상 : 그럼 오빠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네요 ? 동생이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이유지만은요.

피 : 이유없이 그럴리아 하겠어요. 저도 어느정도 알지만 이전 해도해도 너무하니까 그렇지요. 어쩔 땐 그 여자친구가 막 원망스러워져요. 사이만 좋아도 저한테 이렇게 까지 피해가 오지는 않을텐데 말이예요.

상 : 오빠가 여자친구이야기를 어떻게 하곤 하나요 ?

피 : 그렇게 자세히 오빠 여자친구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지만 오빠와는 별로 맞는 성격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싸우겠어요. 저도 사진은 보았는데 참 예쁘긴해요. 그런데 오빠를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오빠말고도 다른 남자와 사귀나봐요. 사실 제가 보기엔 오빠에게 과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에게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상 : 오빠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 : 오빠요. 그래요. 단지 남매라서 그럴꺼예요. 사실, 오빠는 밖에선 쌤님이에요.

어떤 때는 참 불쌍하게 생각되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다고 생활이 어려웠던 적은 없지만, 진짜 남자다움을 배워야 할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자 형제나 친척 중에서라도 형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가끔 저를 쥐어 박으면서 네가 남자면 얼마나 좋겠니 하곤 했거든요. 참 제가 남자라서 너그럽게 웃으면서 대해주면 별 문제없을테고, 또 제가 남자라면 것처럼 잘못된 남자다움을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제 몸에 손 대는 것은 질색이거든요. 글썄 생각해 보면 폭력도 아니고 오빠입장에서는 애정의 표시일 수도 있겠지요. 그래요.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맞는 것은 말도 안되지만 오빠가 정말 저를 싫어해서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서로 이야기할 기회를 먼저 막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빠에게 자초지종을 물어보고 따질 수도 있는데 감정부터 앞서니, 물론 제가 잘못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그 방법 밖에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이 갖고 있는 사고는 어른의 그것에 비해 훨씬 탄력적이며 허용성이 많다. 물론 이같은 사실은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드러나지만 다른 한편, 그들의 순수한 정신과 높은 이상이 긍정적 심리상태의 근간임을 말해준다. 또한 전화상담은 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위의 상담사례는 물리적인 현상인 오빠의 구타문제를 통해 피상담자가 자신의 사고 영역을 확장하고 그 대책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로서 피상담자의 문제를 좁혀나가고 있다.

“제일 화나는건, 이유없이 맞을 때예요. 어제는 집에 들어오더니 여자는 다 교활하다고 하면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만일 이같은 상황에서 오빠의 폭력에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전화상담에서 갖는 피상담자의 상상력이라는 강점을 쉽게 포기하는 결과가 된다. “평소에도 동생이 보기엔 이유없이 괴롭히나요?” 이러한 반문은 피상담자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결과뿐만 아니라 문제의 포괄적인 본질을 객관화시켜 제시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사적인 언어체계를 공식화하는 세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피상담자는 상담자의 반응에 따라서 오빠의 괴롭힘이 아닌 자신과 오빠

의 문제로 보다 자신의 고민을 확인하며 사고를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갖는다.

두번째 상담자의 반응인 “그럼 오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네요? 동생이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이유지만은요.”는 전화상담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피상담자의 반응을 객관적으로 유도함은 물론, 그에게 잠재되어 있는 감정의 불만을 적절히 지지하면서 그가 오빠의 의식세계를 평가하도록 유도하여 폭넓은 사고와 상담의 주체로서의 위치에 서게 한다.¹²⁾

결국 이 상담은 피상담자와 오빠와의 관계를 피상담자 스스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그 언어가 객관화되고 현실화됨으로써 자기내적인 언어로 통찰을 부여한다.

12) 이것은 상담이 갖는 바람직한 인간관인 ‘나도 옳고 너도 옳다’ (I am OK, You are OK)의 방식을 잠재적으로 취하는 태도이다. 즉, 긍정적인 인간관을 피상담자에게 심어줌으로써 그 스스로 타인을 있는 그대로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IV. 결론 및 제언

우리는 피상담자의 언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언어의 본질적 의미와 그의 의식 및 무의식과의 관계 또는 그의 심리적 세계를 들여다 보는 것으로써 상담자가 피상담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담자의 말의 확장을 통해 그의 의식세계를 보다 넓고 깊게 확충시키거나 스스로 자신의 세계에 대해 통찰력을 갖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 상담관계에서 언어와 의미는 곧 피상담자의 무의식 또는 의식세계를 이해하는 중심도구로 취급되어 왔다. 만일 정신분석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무의식의 영향과 과정을 인정하더라도 무의식적 과정은 언어를 통해 의식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언어는 무의식의 본 마음을 의식으로 변환시키는 주요한 도구이자, 무의식의 형태를 구성하고 새롭게 조직화하는 과정이다. 다른 한편 상담은 피상담자의 심리적 안정과 자신의 세계에 눈을 뜨고자 하는 욕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보면 상담관계에서 언어란 수면상에 나타난 현실적 실체로서 현재 그와의 관계 또는 상담진행관계 속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예를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 역할이라는 말 대신에 입장이라는 의미를 사용했다고 통상적으로 지칭되는 역할 또는 입장의 의미가 뒤바뀌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들이 잘못 사용하거나 의미화되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그의 문장과 내용속에 그 단어가 어떤 위치와 맥락에서 존재하는지가 더 큰 관심이 된다. 상담자는 그의 의미나 내용을 수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말을 쓰던 그의 의식 흐름을 자신에게 보다 투명해 질 수 있도록 확충시키고 깨닫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같은 전제 아래에서만 그의 사용언어를 보다 명확히¹³⁾ 할 수 있고, 피상담자를 하나의 교육적 대상으로 조망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강조하면 “한 낱말의 의미는 말속에서의 그 낱말의 쓰임이다.”라는 비트겐슈

13) 명확히 한다는 것은 상담자의 자질과 느낌 그리고 경험에 많이 좌우된다. 피상담자가 자신의 잘못된 표현 때문에 스스로 사고에 장애를 받는다면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그의 언어 사용과 의식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는 일이다.

타인의 말처럼 언어가 본질적으로 모든 의미를 그 스스로 내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우기 정신질환이나 심한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에서의 언어는 사고나 의미를 모두 객관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담에 있어 피상담자가 특히 강조하는 언어과정과 참조작용은 존재한다. 이같은 언어에 대한 반응과 느낌은 청소년은 물론, 누구에게나 나타나지만 정작 본인은 크게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전화상담에 있어 이러한 과정은 상담관계에 위기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관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증진시키는 결과 - 앞서 이야기한 전화상담과 라디오의 유사성을 상기해 본다면 이 의미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 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한편, 상담을 일시에 종결시키는 부정적 요인도 된다. 이에 대한 책임은 상담자가 부담해야 한다. 올바른 피상담자를 고를 수 없는 현실에서 또한 아직 자아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청소년과 같은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전화상담에서의 피상담자를 피상담자답게 만드는 일은 쉽지 않다. 사실 상담관계에서 피상담자가 상담자처럼 정제된 언어와 의도적인 반응을 보일 수는 없고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사람들은 그리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을 한다. 물론 정신분석학 측면에서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 상담 또는 대화에서 무심코 그리고 별다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표현을 하는 때가 많다. 이 경우 일부는 자기 그런 이야기에 놀라 특별히 합리화 또는 분석을 하면서 자기 진단과 평가를 한다.

전화상담은 분명 - 모든 사례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 긍정적인 상담분야로서의 기능을 한다. 그리고 이론적인 고찰과 실증적 사례를 통해 언어적 표현(활용)으로 피상담자의 의식을 확충시키고 통찰을 유도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화상담은 청소년 피상담자의 올바른 언어사용을 유도하고, 또한 전화상담에서 상담자의 적절한 언어적 반응은 피상담자에게 통찰을 부여한다. 그리고 이 과정의 반복은 피상담자 스스로 통찰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전화상담은,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화상담은 제약된 조건과 현실에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완전성을 지니지 않은 언어가 자기의 의식으로 전환되어 통찰을 갖게 되는 과정을 적절한 반응과 계획된 방법으로써 도와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화상담의 효용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상담자의 자체 의사소통과정을 통한 통찰력 증진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사실 전화상담의 분야가 이론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의 정리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의 속성과 인간의 사고와의 관계에서 전화상담의 전략과 기술적 방법을 추출해 내고자 하는 다소 무리있는 주제를 이끌어왔다. 그러나 어떤 분야든 그가 갖고 있는 한계상황이 곧 가능성이 될 수 있으리라는 관점에서 이같은 기술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화상담이 비전문 상담자인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는 면과 청소년들이 하나의 교육적 대상으로서 그들의 언어생활도 예외일 수 없다는 점은 본 연구의 입지를 대변해 줄 수 있다. 이제 보다 실천적 수준에서 전화상담의 효용성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와 상담자와 피상담자간의 주어진 상황내에서의 관계설정을 정의하는 일은 전화상담의 독특한 이론형성과 기술발전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보면서 몇 가지 제언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1. 전화상담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과 바람직한 의식발전에 주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화상담은 언어를 통해 자기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할 수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으며 언어적 표현의 조장으로 바람직한 의식을 형성하도록 통찰력을 부여할 수 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하고 아직 언어와 실체에 대한 완전한 대상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전화상담은 하나의 언어학습자로서 언어를 통한 의식증진의 촉진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전화상담은 청소년들의 올바른 언어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이전에 언어학습기능의 여러 기술들을 개발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보다 정확한 언어를 통해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전화상담이 갖는 익명성과 풍부한 상상력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청소년들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상담기술을 개발해야 하며 여기에는 언어에 대한 관심과 상담자의 폭넓은 지식과 풍부한 감성이 선행해야 한다.

전화상담은 상대를 볼 수 없다. 이 사실은 피상담자에게 많은 표현의 허용성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며, 상담자와 피상담자와의 관계에서 보다 풍부한 상상력을 준다. 특히 청소년에게 이 익명성은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고 자유로운 표현을 조장한다. 전화상담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에 적합한 상담기술을 개발해야 함은 물론 상담을 하는 사람의 풍부한 직·간접의 경험과 이해 그리고 피상담자를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융통성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3. 현재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특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시대의 변화와 여건에 영향을 받는다. 언어가 변화하는 것처럼 청소년들만의 언어세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 언어는 심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른들의 그것처럼 구체화되어 있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면이 많다. 즉, 매우 냉정하고 객관적인 언어체계가 구축되어있고 그에 따른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과 논리를 바탕으로 언어를 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현재 사용하는 언어적 특성에 대한 부단한 관심이 있어야 한다.

4. 청소년 전화상담 자원봉사상담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전화상담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전문가가 아닌 자원봉사자를 상담자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지만 하고 있는 일의 특성에 따른 기술과 방법의 기초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전화상담자원봉사자들을 위한 전화상담과 언어 그리고 의사거래분석 등은 기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들의 수준에 맞게 조직하여 제공하는 일은 전화상담의 활성화를 위한 첫단계이다.

5. 전화상담의 가능한 범위와 한계적 상황을 명확히 제시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일이 시급하다.

본 연구도 전화상담의 가능한 범위와 한계상황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현실적으로 전화상담이 유용할 수 있는 기준선을 마련하는 한편, 할 수 없는 일을 명확히하여 전화상담의 분야와 대상 그리고 질적인 연구에 토대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청소년대상의 전화상담은 그들의 특성상 어른들에 비해 더욱 다양하고 넓은 범위의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규수, 류태보 (편), 교류분석치료, 형설출판사, 1993.
- 분석철학연구회(편), 비트겐슈타인의 이해, 서광사, 1989.
- 서광선, 정대현 (편역), 비트겐슈타인, 이화여대출판부, 1985.
- 엄정식 (편역), 비트겐슈타인과 분석철학, 서광사, 1986.
- 이운상, 상담심리학, 성광문화사, 1987.
- 이정균, 정신의학, 일조각, 1981.
- 정원식, 박성수, 카운슬링의 원리, 교육과학사, 1983.
- 조명환, 언어심리학, 정음사, 1985.
-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문제와 상담실태분석, 청소년대화의 광장, 1993.
- 허발 (편역), 언어내용론, 고려대출판부, 1986.
- Ambrose, A. and Lazerowitz, M.(ed),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y and Language*, George Allen and Unwin Ltd., 1972.
- Bollnow, O. F., 백승균(역), 인식의 해석학, 서광사, 1994.
- Bollnow, O. F., 백승균(역), 진리의 양면성, 서광사, 1994.
- Collins, G., 정동섭(역), 훌륭한 상담자, 생명의 말씀사, 1983.
- Drum, D. J. and H. E. Figler, *Outreach in Counseling*, The Carroll Press, 1976.
- Fann, K. T., 황경식, 이운형(역),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이란 무엇인가?, 서광사, 1989.
- From, S., 김용정, 배의용(역), 칸트 대 비트겐슈타인, 동국대출판부, 1988.
- Hacking, I., 선혜영, 황경식(역), 왜 언어가 철학에서 중요한가?, 서광사, 1987.
- Hansen, J. C., R. R. Stevic, and R. W. Warner, *Counseling Theory and Process*, Allyn and Bacon Inc., 1977.
- Katz, J. J., 윤일선(역), 언어철학, 정민사, 1984.
- Lacan, J., 권택영 외(편역), 욕망 이론, 문예출판사, 1994.
- Lee, W. B., *Language, Thought, and Reality : Selected Writings*, Technology Press of Massachu-

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56.

Lemaire, A., 이미션(역), 자크라캉, 문예출판사, 1994.

Lyons, J., 현대언어학연구회(역), 언어, 의미와 상황맥락, 한신문화사, 1984.

Ogden, C. K. and I. A. Richards, 김봉주(역), 의미의 의미, 한신문화사, 1990.

Putnam, H., *Mind, Language and Re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Quine, W. V., *Ontological Relativity and Other Essays*,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9.

Quine, W. V., *Philosophy of Logic*, Prentice-Hall Inc., 1970.

Rasmussen, D. M., 장석만(역), 상징과 해석, 서광사, 1991.

Romanos, G., *Quine and Analytic Philosophy of Counseling*,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1980.

Trigg, R., 정철호(역),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천, 1993.

Whitehead, A. N., *Modes of Thought : Six Lectures delivered in Wellesley College, Massachusetts, and Two Lectures in the University of Chicago*, Capricorn, 1958.

Wittgenstein, L.,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he Humanities Press, 1992.

Wittgenstein, L., 이영철(역), 철학적 탐구, 서광사, 1994.